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계,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온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4월 3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대한불교진흥원을 비롯한 교계 7개 단체가 '청정지계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치관 전도 물질만능으로 혼란한 우리 현실을 지계 실천을 통해 맑히려는 신선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전에 나타난 지계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계율지키기

세가지 것이 있어 계(戒)를 이리땁게 해준다. 첫째는 몸으로 행하는 행위가 청정해서 더러움이 없음이다. 둘째는 말이 청정해서 인사에 거칠은 데가 없음이다. 세째는 그 마음이 청정해서 일찌기 어지러워지는 일이 없음이다. 〈대애경〉

계는 온갖 선법(善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온갖 선법이 생겨나는 근본이니, 땅이 온갖 수목의 생겨나는 원인인 것과 같다. 〈열반경〉

계는 해탈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바라제목차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계에 의지해야만 온갖 선정과 고를 없애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다. 계야말로 최상의 안은한 공덕이 갖들어 있는 곳임을. 〈유교경〉

계를 지키는 공덕을 수행해 성취하며, 계를 지키는 공덕 때문에 성불하게 된다. 〈광명경〉

온갖 중생도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해탈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말이 안 된다. 이 계는 온갖 승속이 누구나 수지해야 한다. 〈무생계경〉

보살은 정계의 배로 과계자를 건네 준다.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나 열반의 기슭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육바라밀경〉

보살은 청정한 계로 그 몸을 이리땁게 하고,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계를 굳게 지키도록 한다. 〈수호국계주경〉

계는 시원한 물과 같으니, 심광미만해서 지계자의 신심의 더러움을 씻어 준다. 계는 진기한 보배와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귀중히 함으로써 같이 온갖 과실에서 떠난다. 계는 좋은 말과 같으니, 착한 사람들은 이를 타고 진실하게 사유해서 즐거운 과보에 떨어지 않는다. 〈제법집요경〉

계를 지키면 항상 우아하고, 계를 깨면 항상 추하다. 〈천청문경〉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니,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 준다. 계는 시원한 못이니,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술법이니, 사해의 독을 제거한다. 〈승기율〉

살생을 떠나 해치지 말며, 투도와 사음과 거짓말, 욕지 않은 말, 틀리는 말, 무의미한 말을 떠나야 한다. 〈회업경〉

관련기사 2 · 3면

"매월1일 청정5계 지키자"

지계 · 보시생활화 '깨끗한 사회' 조성

모든 불자들이 지계와 보시를 생활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신행상을 정립하는 '청정운동'이 범불교적으로 펼쳐진다.

대한불교진흥원과 재가회의 등 교계 7개 단체로 구성된 청정운동추진협의회(위원장 이상범, 대불청회장)는 지난달 27일 대불청 만해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주제로 한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 개최를 비롯한 청정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청정운동추진협의회는 청정운동을 "우리 사회의 제반 혼란이 나에게서 비롯됨을 깨닫고 이 순간부터 나를 바루겠다는 신앙개혁 사회개혁운동"이라고 규정하고 매월 1일을 지계일로 정해 청정 5계를 지키고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과 보시금 보내기 등 보시의 생활화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정운동 참여단체가 연합하여 전국 6대 도시에서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를 개최, 범불교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전국대회는 홍보비디오 상영과 강연, 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홍보비디오와 스티커는 이미 제작에 들어갔으며, 연사는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고은(시인)씨와 정병조(동국대) 강건기(전북대)교수 등을 섭외중이다.

청정실천 전국대회는 6월 9일 전주 전북예술회관을 시작으로 대전 우송예술회관(6. 13), 광주 시민회관(6. 20), 부산 보보다 대강당(7. 6), 대구 시민회관(7. 7), 서울 불교진흥원 대법당(7.17)에서 개최된다. 청정 5계는 △아침예불을 올리고, 독경 또는 참선수행을 한다 △술 고기 담배를 삼가한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화내지 않는다 등이다.

청정운동은 지난해 대한불교진흥원 장상태이사(동국제강 회장)의 발의로 진흥원 설립 20주년 특별사업으로 전개키로 함에따라 준비되었으며, (주)동국제강에서 이 운동의 소요예산 1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청정운동추진협의회에는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청년회 구도회 대원회 대불련등문화우리는선우 한국불교재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지켜야할 청정5계

- 아침예불·독경·참선
- 술 · 고기 · 담배 삼가
- 음식 남기지 않기
- 대중교통수단 이용
- 화내지 않는다

결산검사등 15개안건 토의

조계종 120회 종회

조계종 제120회 임시중앙종회가 지난달 27일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됐다.

81명의 재적의원중 59명이 참석한 종회 첫날, 1995년 결산검사를 포함한 15개의 안건을 토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차주 상보〉

종회는 1995년 조계종 예산 68억원중 세입 75억3천7백30만 4천7백25원(110.8%), 세출 64억 7천3백87만8천5백26원(95.2%), 차년도이월 10억6천3백42만6천 1백99원을 통과시켰다.

한원 종책질의에서 기획실장 현응스님은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등의 종단관련 소송에 대해 "해종세력의 최근 소송은 종단개혁과 현종단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마지막 함거로 본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가두캠페인

종단협 산하 공명선거계도위원회(위원장 월서)는 오는 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한다.

15대 총선에 앞서 공명선거와 깨끗한 정치를 촉구하기위해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각종단 대표스님을 비롯 재가불자가 동참, 총선에 대한 불자들의 의지를 표명한다.

공명선거계도위는 이날 법회에 이어 조계사 탑골공원 종각 광화문일대에서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계도위는 지난달 22일 공선협에 성금 2백만원을 전달했다.



청소년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줍시다

전국 중·고교 데생용 미술교재로
현대불교 미륵반가상 석고 보급

종단 · 방송등 교계단체 적극 후원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시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금동불상인 미륵보살반가상(국보 83호)석고 모형을 바라보며 데생을 하게된다.

현대불교신문은 미륵반가상을 데생용 석고모형으로 제작, 전국의 중·고교 4천5백68개교에 보급해 미술시간에 데생교육의 기초교재로 활용케하는 운동을 4월부터 연말까지 범국민적으로 펼친다.

중·고교의 청소년들은 그동안 미술실기교육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데생을 아그리빠, 비너스, 줄리앙 등을 대상으로 익혀왔다. 이처럼 서양식 교육일변도로 무비판적으로 흐르고 있는 오늘의 교육현장에 대해 민족의 얼과 전통문화부재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어왔다.

현대불교신문은 청소년 교육현실에 경종을 울리면서 데생용 미륵반가상 석고모형을 전국의 중·고교에 배포하는 운동을 벌인다. 미륵반가상은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등을 고려해 교계학계 미술계의 자문을 받아 범종사의 협찬으로 제작했다.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 얼 한국의 美의식을 바르게 심어주자는 이 운동은 개인 단체 기업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뜻깊은 운동은 종단협의회를 비롯 조계종 태고종 현태종 진각종 총무원과 조계종포교원, 한국불교재가회의,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불교방송, 불교TV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본사 사령
임 조 형
命 제주 지사장
〈1996년 4월 1일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휘장 · 캐릭터 발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상징하는 휘장과 캐릭터가 지난달 26일 확정됐다.

봉축위원회(위원장 월주)는 연꽃을 중심으로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5개의 꽃잎과 1개의 꽃받침 위에 꽃비를 아로새긴 휘장과 청소년의 해에 맞춰 일반대중에 친숙한 모습의 아기부처님 캐릭터를 발표했다.



전자게시판 부다피아 모뎀번호 735-1500-4

법공양페이지 포함 20면 발행
4 · 11총선을 달리는 교계인사 4면
대중가슴 적시는 불음가요 13면
어린이 프로에 판치는 '불교왜곡' 20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변산온천에서 태고의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한국 최고의 자연휴양지 변산반도에서 새로운 레저문화를 경험하십시오.

변산온천은 변산반도의 심장에 위치하여 바다, 산, 계곡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해변온천입니다.

변산에서의 휴양 변산온천에서 시작하십시오.

고품격 레저문화의 신기원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광명소인 채석강, 해수욕장, 내소사, 직소폭포, 개암사, 천문대, 칠병암 등으로 가장 쉽게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한 차원 높은 휴양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수질

유황 성분이 다량 함유된 중탄산나트륨, 알칼리성 수질의 온천수가 공급되는 온천탕은 무색 무명의 부드러운 물로서 피로 회복, 신경통, 갱년기 장애, 노화방지, 피부미용 및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부인병, 동맥경화 등의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천혜의 온천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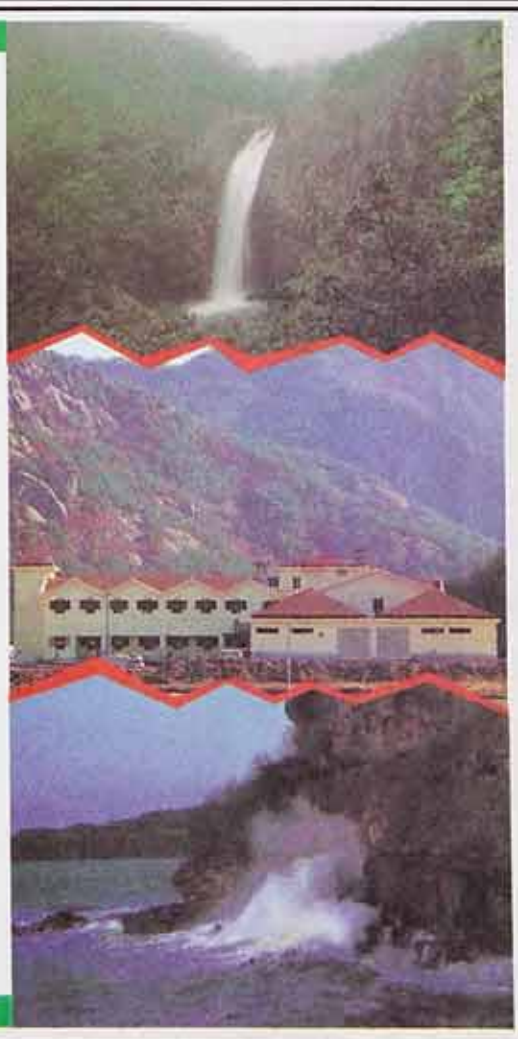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해변온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채석강, 변산해수욕장을 바로 곁에 두고, 산과 계곡의 신비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매머드 자연 휴양지로 국내 최초의 해변 온천입니다.

편리한 교통망, 최고의 서비스

서울에서 쉽게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서울→태인IC→변산온천:약 3시간30분 소요), 국내 최고의 해변 드라이브 코스, 최고의 서비스로 제공되는 최상의 안락함을 느껴보십시오.

YONSAN SPA RESORT 변산온천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41번지
사무실: TEL(0683) 82-8539, 83-8539
FAX(0683) 83-9555
리조텔: TEL(0683) 82-5390~2



사 설

민족유산·전통사찰의 법적보호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행정으로 전통사찰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불교문화유산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사찰주변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각종도로 공공시설 등이 경내지까지 편입시켜 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고속철도 경주통과나 경마장건설계획에서 이러한 정책의 문제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불교성지인 경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대단히 높다.

특히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선심성 공약남발과 지방자치시대의 돌입으로 지역발전을 앞세운 대대적 개발정책이 시행되기 마련이다.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등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자연환경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전통사찰의 경관이 허물어지고 있다. 청정해야 할 수도도량이 정상적인 종교활동과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보완하여 전통사찰의 주변환경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전통사찰보존법은 주로 불교단체의 내부인사권이나 재산관리의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지취임시 신고의무, 경내지 건조물의 변경 처분 등에 따른 관청의 허가, 자의적인 전통사찰의 지정등 불교단체의 자주성을 해치는 법조물들로 꽉 차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특히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의 이념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제는 전통사찰의 보존을 위한 재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현실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개발정책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사찰경내지의 주변을 보호하고 청정한 수도도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개발금지와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차제에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령이나 기타 불교관계 법령으로는 민족의 성지인 경주를 비롯한 불교유적지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어렵다. 또한 버려지고 가리워져서 미쳐 발굴되지 못한 옛 절터와 문화유산을 찾아내어 복원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재정지원은 물론 일제 식민지사관에 의해 우리민족의 유산인 삼보정재가 과소평가되고 황폐화된 것을 되살려내야 한다. 민족사관에 입각하여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현장교육도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살아 숨쉬는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 보존·복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이며 세계화·국제화시대에 삶의 질을 높여 자랑스런 우리 민족유산을 보여주는 길이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함께 우리 불교계는 사부대중의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파괴행위를 막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불교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교육하는 데에도 종단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환경운동을 비롯한 각종 시민운동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개발정책과 문화정책을 비판·감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운동을 좀더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할 역사적 소명이 우리 불교계에 주어져 있음을 강조한다.

열 린 마 당 — 불교 환경복지

3월 21일 정부는 환경관련 행정방향을 밝혔다. 녹색환경공동체건설을 위한 5대원칙과 7대 기본시책은 정부가 추진해야할 구체적인 실천과제이다. 이시책에 따라 실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환경모범국가가 될 것이다. 불교계가 실천해야 할 환경복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납골제 확산등 장묘제도 개선해야

각 현 〈연꽃마을 이사장〉

환경과 복지는 둘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보존은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있다. 이런점에서 정부가 환경복지구상을 발표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정부가 시행할 환경보존 정책 가운데 특히 장묘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분묘수는 2천여만기로 국토의 1%에 이르고 있다. 이는 살아있는자의 거주공간인 주거지역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직도 매년 여의도만한 면적이 묘지로 전용,국토가 황폐해 가고있다.

장묘제도의 개선안으로 오래전부터 납골제 실시가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장묘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해놓고도 3년째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매장만이 조상에 대한 최상의 공경표시요, 전통문화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역사속에서 인식해야한다. 하나밖에 없는 한정된 국토를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는것은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의 과제이다. '유교중심적인 장묘문화가 뿌리깊이 국민의 정서속에 자리잡고 있는 현실' 운운하며 국민의 정서만을 탓 할 것이 아니다. 이번 환경복지구상에서 밝혔듯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장묘제도의 개선에 정부가 적극나서기를 촉구한다.

"불자가 먼저 환경보호운동 실천을"

차 준 엽 〈자연의 친구들 대표〉

요즘 환경문제의 관심은 동네 고마들까지 쉽게 외칠 수 있는 흔해 빠진 구호인 셈이다. 이런 사회적인 풍토는 환경오염과 훼손의 심각성이 일상 생활속에 피부로 접하는 수준에 이른 반사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도시민들의 삶의 지표가 쾌적한 삶과 질을 찾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연자원의 토지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준농림지역의 논과 밭이 아파트단지나 위락시설로 변하고 아름다운 명승사찰 자연환경 주변엔 각종 도로건설, 레저, 위락시설 등이 단골손님처럼 수려한 자연속으로 뻔뻔스럽게 파고든다.

우리 뿌리를 스스로 잘라먹는 기현상이 일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 있음을 회피할 수 없다.

자연환경보호운동단체인 '자연의 친구들'은 희귀식물 등 자연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수려한 자연자원이 있는 곳엔 명승사찰들이 있기때문에 사찰주변의 환경과 맞물려 사찰주변에서 일고 있는 환경분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불자나 사찰 당사자들도 법당의 부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부질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사찰은 경내불사에만 치우친 것이 사실이다. 이젠 부처님도 법당에서 나오시고 스님들도 환경보호운동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다. '극락세계에도 나무를 심어야 된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법당앞에 맴도는 것을 생각해 본다.

법당앞까지 불도저가 밀려오는 현실에 우리의 관심과 실천은 살불살존(殺佛殺尊)인가? 생불생존(生佛生尊)인가?

버리고 훼손하는 생활습관 고쳐야

유 정 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김영삼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환경복지 구상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하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개발은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서 '환경대통령'을 내세우는 개인의 지침과 구상이 신뢰 갈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위상부터 세우기를 바라면서 불자들의 환경운동 이념을 설정해 본다.

불교환경운동은 '모든 것이 연관돼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법과 다르지 않으며 환경에 있어서 종교계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므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자 개인 개인의 존재확인 작업을 거쳐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세계관부터 바꿔야 한다. 환경문제는 일종의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불교환경운동은 지역을 살리는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고등종교인 불교가 가지는 집단적 선의지를 모아 삶의 동기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지역행정의 감시자 역할도 수행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원리를 체득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 의견

조 형 준 〈환경운동연합 정책간사〉

"불교 생명존중사상 환경문제 해결 열쇠"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들 환경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백마디 말보다는 단 한번의 실천을"이라는 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발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습지와 갯벌을 보호하자는 람사협약 가입을 유보하고 국제경기 유치를 위해 발왕산을 파헤치는 등 정부의 여러 행동은 이번 선언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대통령의 선언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따라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만든다. 이번 선언이 너무 뒤늦고, 화려한 수사와는 별도로 다분히 속빈 강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무엇보다 먼저 이번 선언에서 환경철학적 측면이 빠져있는 점에 대해, 즉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하는 정신적·윤리적 측면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즉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주의적이고 기술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발본적으로 혁파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재주를 피우고 요령을 부리더라도 행정개혁만으로는 환경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무튼 대통령의 권위를 갖고 국민 앞에 선언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만물의 생명이 동일하다는 평등사상과 이에 기반한 공생(共生)주의에 기반해 왔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서구사상과 달리 만물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불교의 세계관은 환경의 도구화와 일방적인 이용으로 인해 빚어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두번째 특징은 실천성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매스미디어말고는 삶과 의식을 매개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현대 세계에서 불교적 실천은 환경을 일상의 실천과 접목시키는 데도 훌륭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존을 위한 새롭고 특별한 대안은 없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를 알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지난 94년 공해추방운동 불교인모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불자 48가지 실천수칙'을 발표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천연세제 이용, 1회용품 안쓰기, 시장바구니 이용, 매월 1회 환경법문, 이면지 사용 등은 곧바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이제는 실천의 문제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목어

"다른 친구가 내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면 내가 보는 것과 같을 텐데요."

5년간 백혈병과 싸우다 세상을 떠나며 각막을 기증한 김태완군(金泰完·11)은 슬퍼하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했다.

소년은 또 문병온 친지들이 손에 쥐어 준 돈 39만 9천원을 '나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3월19일 눈을 감았다. 11세 소년의 믐보시·재보시는 어른도 힘든 보살행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웃에게 회향한 그 의젓함에 그저 부끄럽고 숙연해질 뿐이다.

불자들은 수시로 말한다. 나와 이웃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그러면서 보시의 공덕을 입버릇처럼 뇌인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의 장기를 기증해 주십시요'라고 청하면 선뜻 응할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얼마전 한 불자는 '생명나눔실천회'로부터 이사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허락을 못해 마치 밥먹다 목에 가시 걸린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답을 못주고 있으니 '앎'과 '함(行)'의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다며, 그 질긴 집착을 안타까워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을 주축으로 여러 재가단체가 연대하여 '청정운동'을 전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불자들이 '나부터 깨끗해져 세상을 깨끗하게 하자'는 이 운동은 개인의 생활지계와 보시행이 사회문제 해결로 확대되는 '신행개혁·사회개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철 푸른나무

얼핏보면 누구나 손쉽게 지킬 수 있는 지침들이다. ▲아침예불을 올리고 독경 또는 참선수행을 한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술 고기 담배 등을 삼가자. 이 점은 자신의 건강뿐아니라 사회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 식량절약 환경운동에 일조를 더하는 셈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거드는 보살행이다. ▲화내지 않는다. 자신의 정신건강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본요소다. ▲매월 1회이상 가족·직장단위로 보시금통을 복지단체 등에 기증 또는 자원봉사한다. 나눔 즉 보시는 자비행의 첫 걸음이며 육바라밀 수행의 시작이다.

'앎과 함'이 일치하여 불자들이 사회의 귀감이 될때 이 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 42장경에 보면 "교화를 펴는 일은 사철 푸른나무와 같다"고 했다. "불자여러분 사철 푸른나무가 됩시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청소하는 공덕

청소하는 것에는 다섯가지의 이익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청정한 것, 남의 마음을 맑게 하는 것, 하늘이 기뻐하는 것, 단정한 업을 짓는 것, 목숨을 마친 뒤에 천상에 나는 것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협찬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이사장 회장 김 명 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일류 문화유산

한글대장경

민족의 자존심 국보 팔만대장경

● 현재 195권 간행 보급중
● 98년까지 250권 완역예정

▶정가 1권 12,000원
▶1권당 700쪽 내외 호화양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구입처

TEL: (02)269- 2972 , 275-4391



· 동국역경원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아니한 한역장경 (漢譯藏經) 및 팔리어장경 (巴利語藏經), 범어장경 (梵語藏經) 그리고 한국고승문집 (韓國高僧文集)을 번역한 **한글대장경**의 발행과 기타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문고본[現代 佛敎新書]과 단행본의 출판을 목적으로하고 1964년 7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삼대사업 중 하나인 역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역경위원회의 번역원고를 출판, 보급하기위하여 동국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발족.

· 주요활동사항

동국역경원은 **한글대장경**과,현대불교신서, 불교총서, 기타 단행본 여러종을 간행하였으며, 역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활동중.

한글팔만대장경 목록

01. 장아함경
02. 중아함경 1~3
05. 잡아함경 1~3
08. 별역잡아함경
09. 증일아함경 1~2
11. 대루탄경 (외)
12. 불반니원경 (외)
13. 아라한구덕경
14. 비화경 (외)
15. 불본행집경 1~2
17. 찬집백연경
18. 현우경 (외)
19. 출요경 (외)
20. 법구경 (외)
21. 대반야경 1~20
41. 법화경
42. 화엄경(60권본) 1~3
45. 화엄경(80권본) 1~3
48. 화엄경(40권본)
49. 열반경 1~2
51. 대방등대집경 1~2
53. 대애경 (외)
54. 아차말보살경 (외)
55. 대집회정법경 (외)
56. 현겁경 (외)
57. 유마경 (외)
58. 입능가경 (외)
59. 정법 염처경 1~3
62. 사분율 1~3
65. 선견율비바사
66. 구사론 1~2
68. 중론백론
69. 현양 성교론 (외)
70. 대승기신론 소별기
71. 부휴당집 (외)
72. 선문염송 1~5
77. 조당집 1~2
79. 전등록 1~3
82. 무용당집 (외)
83. 백곡집, 월저당집
84. 법원주림 1~5
89. 경율이상 1~2
91. 본생경(쟈아타카) 1~5
96. 대보적경 1~5
101. 대지도론 1~5
106. 종경록 1~4
110. 유가사지론 1~4
114. 불성론
115. 아비달마집이문족론
116. 아비달마식신족론외
117. 아비달마품류족론외
118. 아비달마대비바론사 1~8
126. 십송율 1~3
129.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1~2
131. 정법화경 (외)
132. 예념미타도량참법
133. 대비로자나성불가지경
134. 기세인본경
135.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
136. 해심밀경소 1~2
138. 해동고승전 (외)
139. 대각국사문집외 7
140. 범망경술기 (외)
141. 화엄경탐현기 1~4
145.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1-2
147. 십주비바사론 (외)
148. 부자합집경 (외)
149. 무량청정평등각경 (외)
150. 대승보살장정법경 (외)
151. 니야야빈두 (외)
152. 성실론
153. 지혜와 자비의 말씀 (외)
154. 대승본생심지관경 (외)
155. 방광대장엄경 (외)
156. 과거현재인과경 (외)
157. 문수사리문경 (외)
158. 무소유보살경 (외)
159. 금색동자인연경 (외)
160. 보살영락경 (외)
161. 심밀해탈경 (외)
162. 제법집요경 (외)
163. 십력경 (외)
164. 보우경 (외)
165. 본사경 (외)
166. 보조국사집
167. 나옹화상집 (외)
168. 원감국사집 (외)
169. 소요당집 (외)
170. 반니원경 (외)
171. 불본행경 (외)
172. 불퇴전법륜경 (외)
173 수능엄경
174 도행반야경
175 아비담팔건도론
176 아비달마발지론
177 아비담심론
178 아비달마순정이론1
179 아비달마순정이론2
180 아비달마순정이론3
181 아비달마순정이론4
182 아비담비바사론1
183 아비담비바사론2
184 아비담비바사론3
185 사리불아비담론1
186 사리불아비담론2
187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188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
189 근본설일체유부니타아목득가
190 근본설바다부율섭
191 마하승지율1
192 마하승지율2
193 성유식론
194 대방광십륜경
195 해탈도론

불교대중화 수준 가늠하는 척도

조계종 직장·직능불교 현황 조사의미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가 전국의 직장·직능법회 현황파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직장·직능불교 활성화 대책을 제안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장법회는 131, 직능법회는 53곳이다. 91년의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직장법회는 36곳이 늘어났다. 그러나 타종교의 활발한 활동과 비해 침체를 견치 못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개신교는 서울의 25개 구청에 모두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불교는 성북구청과 중구청 2곳뿐이다.

직장·직능법회는 사찰신행과 함께 불교신형의 두 축을 이룬다. 특히 우리 사회의 흐름이 산업화·정보화시대로 진입하면서 직장 및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직능법회의 비중은 매우 커지며 기존의 사찰에서 직장 직능으로 중심이 옮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직장·직능법회는 삶의 현장에서의 신행생활이라는 점에서 불교대중화와 생활불교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또 정부기관에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개신교 신행단체(신우회)의 영향력이 종교편향적인 정부정책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직장·직능법회의 중요성을 더해준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장·직능법회는 종단차원의 지원은 물론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몇몇 불자들의 원력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그나마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불자가 전근 또는 퇴직할 경우는 법회가 결성되었더라도 1년 이상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91년 조사에서 파악됐던 동작구청불심회 국토개발원불교회 등 9곳이 해산되고, 11개 직장법회가 새로 결성되었다.

이같은 부침현상의 원인은 회원들의 소극성에 기인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종단 및 인근 사찰의 무관심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를 대행한 〈대중불교〉 김희균 주간은 "법회는 대개 지도법사가 없이 그때그때 외부의 법사를 초청해 진행하는데, 그래봐야 1년 정도 하다보면 법문이 반복되기 십상이다. 단계별 프로그램이 어디에도 준비되지 않아 회원은 차츰 흥미를 잃게 된다. 지도법사를 모시고 싶지만 지속적으로 애정을 갖는 스님은 전국을 통틀어 손꼽을 정도이다. 경제적으로 그럴만한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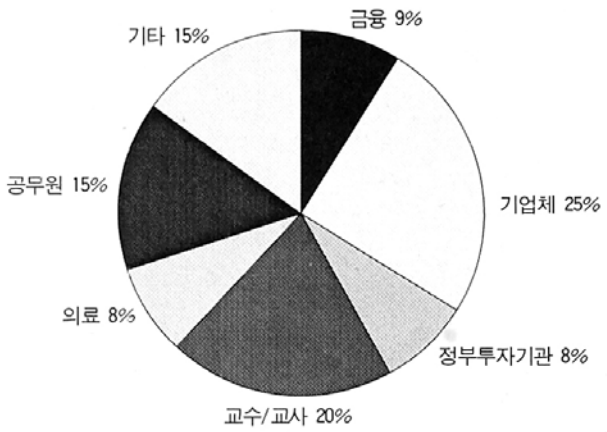
포교분과위원회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를 통해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는 불교대중화의 핵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불교대중화, 저변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함께 포교분과위원회는 △신행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중앙신도회 및 포교원과의 긴밀한 지원협조체제 구축 △직장·직능법회와 인근 사찰과의 결연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포교원도 빠르면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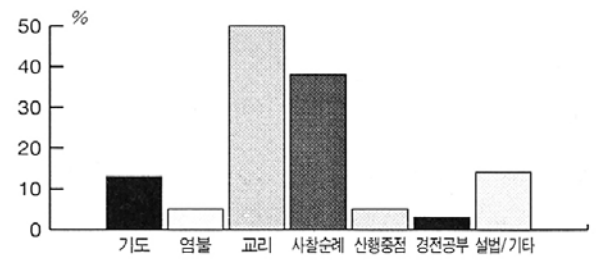
한편 이번 조사가 중앙종회 분과위원회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중앙종회가 집행부서인 총무원을 감시 통제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와 함께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앙종회는 물론 교계의 한 전형으로 평가할만 하다.

정성운 기자

〈업종별 직장·직능 법회 분포〉



〈신행형태 (중복응답)〉



소극활동 지양 참여확대 계기 삼아야

'사찰과 교류' 등 종단차원 지원책 절실

신행혁신 넘어 범시민운동 기대

교계 7개단체 추진 '청정운동' 의의

대한불교진흥원과 재가회의 등 교계 7개 단체가 청정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청정운동'은 한마디로 지계와 보시를 생활화하자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제반 혼란이 나에게서 비롯함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즉 온갖 구호와 슬로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힘의 원천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추진협의회가 지계·보시의 생활화를 위해 실천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울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다. 김형균 추진위 홍보위원장은 "새로울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사소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확산될 때 가치있고 신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교리적이고 선언적 차원이 아닌 최소한의 실천가능한 사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 운동의 성격을 설명했다.

△아침예불을 올리고, 독경 또는 참선수행을 한다 △술 고기 담배를 삼가한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화내지 않는다. 이 청정 5계를 매월 1일을 지계일로 정해 이날만은 지키자는 것이다. 자기를 되돌아보는 삶,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태도, 환경과 절약의 생활화의 철학을 담고 있다. 불자다운 삶의 출발이다.

청정 5계·보시생활화등 불자상 제시

환경보호·절약·자비등 실천지침 확산

불자들의 모범적인 생활태도가 정착될 때 자연스레 불자들의 새로운 신행상이 정립된다. 지계와 보시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생활태도이다. 따라서 이 운동이 불교내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신행개혁 운동의 차원을 넘어 조용한 시민운동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담겨 있다.

지계와 함께 보시의 생활화 지침도 제시했다. 가족과 직장단위로 보시금통을 마련하고 이를 모아 추진협의회나 복지단체에 기증하며, 자원봉사를 매월 1회 이상 스스로 정하여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순수한 재가운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승가에 대한 말없는 경책으로도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조계종총무원이 매월 두차례 포살법회를 봉행하며 자정과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에 대한 재가불자의 화답이기도 하다.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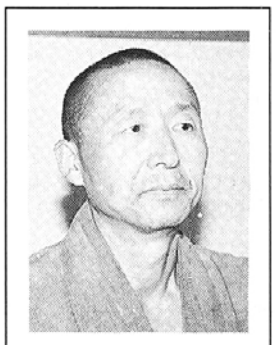
시 론

한국불교의 슬픈 열기

나는 이 글을 쓰기가 너무나 답답하다. 나는 지금 수행불교 참여불교 다 싫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선거철을 맞아 도무지 국민적 가치가 될 수 없는 망국적인 지역 감정들이 여타의 모든 가치들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종교 감정까지 가세해서 국민정신을 헌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모두가 자기 종교 출신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배타성은 낯설지가 않다. 그러나 불교는 본래 그 관용과 보편성과 무당파성으로써 매력과 우수성으로 평가돼 왔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자신의 특성에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열기와 에너지를 얻고 있지 못하고 상대 종교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그 동기와 에너지를 주로 얻고 있고 자기 종교의 특성의 신장(伸張)보다 도리어 상대종교의 단점에 물들어 가고 있는 형국이라면 문제는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휴 암
〈팔공산 기기암〉

그러나 나는 타종교에 대해선 더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불교의 지금의 사회의식은 자신의 이윤 확대가 목적인 세속 사업가적 세속의식이지 세속적 가치를 허망시하고 자기를 초월하여 역사와 중생을 구제하려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종교 후보에 표찍기

과거의 한국불교는 무조건 호국불교였었다. 그 뒤를 계승한 것이 젊은 승가인들을 통한 광주 정서적인 운동권적 의식의 한국승가에의 유입이었다.

반체제 반정부 투쟁이 그 의식의 기조이며 그 전술 전략적 수단으로 반양키 불교탄압 전통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불교의 사회적 역사적 의식을 고취함이 그것이었고 바로 그 정서가 재작년 4월 사태 이후 지금 한국불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흐름 속에 한국불교는 부쩍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 목소리의 높이는 지금 어쩌면 애종(愛宗)의 상징 행세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승단 내에서 정치로 입지를 찾으려는 승려들에게는 호재(好材)가 되는 토양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불교계는 불교탄압의 항의성토 농성들이 만발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마치 과거의 호국불교의 맹목성이 참여불교의 열기 속에 재현되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엔 너무 조용해서 탈이었다. 그래서 조계종은 찢어진 북인가 하고 신문 사설에까지 질책이 등장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계종의 항의의 북소리에 사회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우리 승가는 노태우씨 대선 때는 발을 등동 굴리고 폴짝폴짝 뛰지 않았던가? 바로 그 정서가 지금 선거철을 맞아 반(反)YS 정서를 타고 불교탄압의 절규로써 역사의 되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장래 걱정할 사람

우리 불교인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모조리 우리 불자가 돼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려(思慮)가 없다. 그저 맹목이다. 과거의 호국불교가 그랬었다. 이것이 분명 병든 시대를 치유하려는 치료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도리어 커다란 치료가 요청되는 하나의 병든 음성인가?

보라!

오늘날 한국불교는 애종 애교자(愛宗 愛敎者)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불교적인 삶'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겠으니 이 어쩐 자기 모순인가?

오늘의 한국승가는 이 허망무실(虛妄無實)한 사바의 현세계에 자신의 참 가치를 심어주려는 열의와 사명감이 중심이 돼 있는 흐름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승단에서 종교가 하는 본분이 뭔지 잘 모르는 멍청이가 됐다.

허!허! 나는 아무 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든 그것이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도무지 상관이 없는 바보 멍청이라네. 맙소사! 한국불교가 언제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종단이 될까?

나는 한국불교의 애종 애교의 스님들이 지금 반(反)YS의 정서 만큼이나 자신들이 불교적으로 사는 데 그토록 열렬한 관심을 가져봤으면 한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정말 불교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 그 점을 반(反)YS의 열기만큼이나 슬퍼해 보았는가?

오늘날 이 승단에 정말 불교의 장래를 걱정할 자격자는 누구인가?

그는 의당 자기 자신이나 이 세상이 어떻게 불교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을까를 반(反)YS의 열기만큼이나 걱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든 거동은 병든 거동이요 자기 기만임을 알아야 한다.

결 의 문

최근 한국불교교화원의 한정섭 이사장을 모해하는 불순행위에 대하여 본 수습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한국불교교화원은 1988년 명칭만 존재하던 법인체를 현 이사장인 한정섭 법사가 태고종에서 인수하여 삼보를 외호하며 생활불교·대중불교의 포교도량으로 발전시켜 왔을 뿐아니라 중앙회관을 건립 명실상부한 불교 단체로 우뚝설 수 있게되어 90여개의 등록 사찰과 3백여명의 포교사·법사등 수백명의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포교·전법에 매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현이사장 한정섭법사의 불교 포교의 원력과 회원 불자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불사라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중앙회관을 건축하면서 많은 부채가 발생하였으나 한정섭이사장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부채가 어느정도 정리되어 본 법인이 불교 포교를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약해야할 지금 그동안 교화원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때는 눈길도 주지않고 있던 일부 이사들이 부채정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단합하여 한정섭 이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증거없이 허무맹랑하게 날조된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본 법인의 화합을 해치고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등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하여 본 사태를 부처님 법안에서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지난 1995년 1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수습대책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창교씨는 본 수습대책위원회가 결의 권고한 사항을 묵살하고 세속 법정으로 본 사태를 비화시켰다. 실로 이는 불자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배불 행위로서, 이러한 배불행위를 더이상 좌시 할 수 없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 째 : 수습대책위원회는 지난 1996년 1월 13일 정창교(혹석동 도림사 주지)씨에게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1995년 10월 이전의 화합 상태로 되돌아갈 것을 결의하여 권고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창교씨등은 이를 무시하고 이사장의 인격을 훼손할 뿐아니라 사교집단 운운하는 등 교화원을 모독하는 내용의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실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총의에 의해 결성된 본 수습대책위원회를 불법단체 운운하는 것은 교화원 간부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정창교씨는 모든 소를 취하하고 부처님과 2천만 불자 앞에 깊이 참회하고 교화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둘 째 : 정창교씨를 내세워 선동하며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백남귀(불교여래원장) 이정숙(법화홍통원장) 이병돈(용천사 주지) 배정길(신월동 청소년독서실관장)씨 등은 심사숙고하고 참회하며 스스로 자중하기를 권면하는 바이다.

셋 째 : 이외윤씨는 화합의 승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불미한 사태를 원만히 수습해야 할 처지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방관 또는 오히려 조장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아 왔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총재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자퇴하여야 한다.

넷 째 : 이정명씨(안산 유마정사 주지)는 정기총회 석상에 참석하여 감사보고까지하고 나서 정기총회를 불법집회라 하며 감사 명의의 문서로 감독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고발한 행위는 비록 이 문서가 정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교화원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외적으로 교화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상·하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이러한 월권행위는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윤재씨는 스스로 참회하고 감사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 법인 김병회 상임이사는 본 법인체의 재산 내역을(중앙회관·도림사 등) 철저히 조사하고 운영실태를 수습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여섯째 : 한정섭 이사장의 문제는 본안의 판결에서 진·부가 가려진후 총회의결 사항이므로 논외로 한다.

본 수습대책위원회는 한국불교교화원의 구성원으로써 또한 교화원의 핵심체인 포교사·법사회의 임원으로써 신성한 승가의 화합을 해치는 자들의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상기와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상기의 결의 사항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수습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불기 2540년 3월 3일

법사 한국불교교화원 수습 대책 위원회
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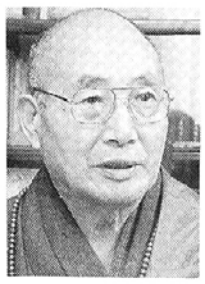
위원장 석 성 륜 〈포교사법사회 총회장〉

위원백 운 월〈포 교 사 회 장〉 위원양 성 운〈경 기 지 부 장〉
위원주 명 식〈법 사 회 장〉 위원김 부 권〈부산·경남지부장〉
위원도 현〈포 교 사 회 부 회 장〉 위원박 기 동〈대 구 지 부 장〉
위원박 정 자〈법 사 회 부 회 장〉 위원박 희 서〈영 주 지 부 장〉
위원유 상 호〈포 교 사·법 사 회 감 사〉 위원양 병 석〈충 청 지 부 장〉
위원박 정 기〈포 교 사·법 사 회 감 사〉 위원송 여 섭〈호 남 지 부 장〉
위원허 기 림〈포교사·법사회사무국장〉 위원이 동 성〈강 원 지 부 장〉
위원최 운 선〈서 울 지 부 장〉

"지혜·자비 나투는 종단위상 확립"

해동종 초대종정 최 석 봉 스님

"종도들 스스로의 인격완성을 통해 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교화해야지요" 해동종 초대종정으로 추대된 최석봉스님(평택 청룡사주지)은 화합과 협조를 통해 종도들을 인간다운 인간, 불자다운 불자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네가 먹있는 인생을 살려거든 물질 명예 인간들에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출가당시 은사의 말씀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다는 석봉스님은 청룡사에 삼보연수원을 설립하여 20여년간 도제양성에 심혈을 기우려 왔다.

"일불제자이면서도 종단이 난립돼 있는 것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어긋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교가 제나름대로 제구실 할 수 있도록 종단들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조계종 양분이후 여러종단을 거치면서 일부스님들의 사리사욕이 종무행정을 마비시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해동종도 흩어져있는 각 사찰을 종단으로 한데모아 불교의 소기목적인 중생제도에 한 몫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창종의미가 있다는 스님은 법인설립이 마무리되는 이달내로 창종식을 거행하고 종단협의회도 가입하여 불교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동종은 현재 각 시도별 종무원을 개설중이며 1백50여 사암이 등록신청을 마무리했다.

석봉스님은 △1942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출가 △용주사강원 수료 △1977년 원효종 총무부장 △92년 선교종 사정원장을 역임했다.

김원우기자

"안락한 여생보낼 공간위해 최선"

성라실버타운 개원 법 성 스님

"노인끼리 모여서 건강하고 보람찬 생활을 영위하자는 것이 성라노인마을이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노인을 위한 노인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이죠."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을 설립, 그동안 무의탁노인을 위한 무료양로원을 운영하며 실버타운 건설을 발원한 법성스님이 지난달 28일 성라실버타운 개원으로 원만성취 했다.

스님은 성라실버타운을 "이승에서 내생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실버타운에는 노인들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이 있으면 고치고, 법문을 통해 마음돌리는 법도 배우며,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성라실버타운은 총 3개동(양로원 A·B동, 복지동) 건평 1913평 총 96세대 규모를 갖춘 불교종합복지센터로 유료로 운영된다. 때문에 무의탁 노인이 아니더라도 시설비에 해당하는 입주금만 내면 누구나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현대식 의료시스템도입, 물리치료실 클리닉센터 운영, 영양식단 조성, 큰스님초청 법회, 교양강좌 상설화 등이 성라실버타운만의 특징. 법성스님은 "사회구조가 급격히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 소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지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죠. 노후보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시점에서 성라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여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4·11총선 교계인사 동정


◇김윤환


◇권익현


◇배종무


◇김태호


◇서석재


◇강경식


◇곽정출


◇이준우


◇이문옥


◇김영일


◇김규칠


◇박찬주


◇김윤환


◇장기표


◇여익구


◇추미애

신한국당

▲김윤환(정각회 회원) △구미을 △경북대 △10·11·13·14대 의원 △신한국당대표의원 △지구당 위원장(現)

▲권익현(정각회 회장) △산청·함양 △육사 △한일의원연맹 회장, 11·12·14대 의원 △당고문(現)

▲김태호(전 불교방송 사장) △울산 중 △서울대 △12·13대 의원, 내무부 장관

▲서석재(조계사신도회 명예회장) △사하 갑 △동아대 △11·12·13·14대 의원, 총무처장관 △지구당 위원장(現)

▲강경식(정각회 회원) △부산 동래을 △서울대 △12·14대 의원, 대통령비서실장 △지구당위원장(現)

▲김정수(정각회 회원) △부산 부산진을 △부산대 △11·12·13·14대 의원, 보사부장관 △지구당위원장(現)

▲정재문(정각회 회원) △부산 부산진갑 △버클리대 △대한상의 감사, 12·13·14대 의원 △지구당위원장

▲최승렬(보명사 신도회장) △서초 갑 △서울대 △조선일보 편집국장, 12·14대 의원 △서울시장

▲김영일(정각회 회원) △김해 △서울대 △대통령 사정수석비서관, 14대 의원 △지구당위원장(現)

▲김윤환(정각회 회원) △부산 해운대 기장갑 △동아대 △13·14대 의원, 당 조직위원장 △지구당위원장(現)

민주당

▲이준우(부산 거사림회 총무부회장) △영천 △건국대 법학과 졸업 △1983년 한국포교사대학 제5기 졸업, 대불청 이사, 대불련 부산지부 상임법사, 오덕보현회 회장

▲이문옥(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 △노원을 △성균관대 △1959년 보통고시합격

▲여익구(민중불교운동연합 초대의장) △군포 △동국대 사학과 졸업(25년만에)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 초대의장 △1993년 연꽃마을 이사 △1994년 군포광명의원 소장

▲장기표(부산 태종사에서 출가 1975년) △등작갑 △서울법대 졸업

▲김종복(불교사회문화협의회 사무총장) △영양 봉화·울진 △불교승가학원 졸업, 동국대 불교대학원 수료 △전국청년승니연합회 사무총장 △보문학원 상무이사

국민회의

▲배종무(대불련 목포대지회 전 지도교수) △전남 무안 △서울대사범대졸 △목포대 초대총장 역임

▲임복진(종교특위불교담당 부위원장, 정각회 부회장) △광주 남구 △육사·국방대학원졸 △김대중통재안보특보 정책위 부의장

▲박찬주(대불련 66학번) △전남 보성·화순 △광주일고 전남대 △사법고시 14회, 서울고등법원 판사

▲추미애(불교신도회 부회장) △서울 광진을 △한양대 △춘천·인천 지방 법원판사, 김제 선거관리위원장 △국민회의 부대변인

자유민주연합

▲김용채(자민련불교신도회 회장) △노원 을 △조선대 △정무장관, 자민련부총재, 7·9·12·13대 국회의원 △국회정각회 고문

무소속

▲이용택(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 △대구 달서갑 △대구농고, 단국대 법학과, 고려대 경영대학원, 대구대학 명예이사

▲이종구(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 위원회 발기인) △대구 동갑 △경북고, 육사, 국방대학원, 한양대 행정대학원 △2군사령관, 국방부장관

▲도왕스님 △강진·완도 △완도수산고 중퇴 △72년 서울 금어사 태영스님 은사로 출가, 광명시 대왕사 주지, 한국불교임제반야종 총무원장

▲곽정출(신한국당 불교신도회장 역임) △부산 서구 △서울대 법대 △중앙일보 기자, 11·12·14대 국회의원, 한일의원연맹 부간사장

▲김규칠(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회원) △창원을 △서울대 △KBS이사, 행정쇄신위원

▲박영린(불교인권위원회 대구지부장) △대구 남구 △계명대, 이바디여행사 대표이사

교 차 로



정각원서 '참선' 주제 설법



진제스님(해운정사 금모선원 조실)은 오는 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참선의 길(돈오돈수 돈오점수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법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총회



지선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대표)은 지난달 22일 보광사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새불교운동승가회 수련회



진관스님(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 상임의장)은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춘계수련회를 오는 8~9일 양일간 법주사에서 개최한다.

청주 예술회관서 효도잔치

원명스님(월리사 주지)은 지난달 24일 청주 예술문화회관에서 1천5백여명의 노인들을 초청, 제4회 효도잔치를 거행했다.

종실회 새 회장에



정우스님(금강사 주지)는 지난달 26일 조계종 종단개혁실천회 회의에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날 종실회는 부회장에 원행(삼화사 주지), 보선(대흥사 부주지)스님을 선출했다.

한·티 교류협 사무실 열어



홍선스님(흥국사 주지, 한·티불교교류협회 회장)은 지난 12일 마포구 성산동에 한·티불교교류협 사무실을 열었다.

스님은 앞으로 티벳불교문화원 개설과 티벳고승초청법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사무실 전화 (02)302-0144

日 중외일보 자료집 받아

송석구씨(동국대 총장)는 지난달 28일 일본 중외일보(사장 혼마쇼노스케)로부터 창간(1896년 10월)이후 신문기사 중에서 근현대의 한·일 양국의 불교관련자료를 비롯 양국의 국제적 관계자료까지 총망화해 마이크로 필름으로 저장한 사진, 기사자료 기자재 구입비를 전달받았다.



금선사 만등불사 회향

법안스님(금선사 주지)은 지난달 26일 목정굴복원 및 수월관세음보살 점안식 및 만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대학 개강법회서 특강



박완일씨(전 조계종 전국신도회장)는 지난달 31일 인천 부루나포교원 부설 불교대학 개강기념 법회에서 강연했다.

문화재보수공로 감사패



이인호씨(익산문화원장·사진위)와 전홍수씨(한국분화재보전 수리기능인 협회장)는 문화재 보수에 평생을 바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8일 문체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중고생 18명에 장학금

임선교씨(성남불교 산악회 회장)는 지난달 30일 성남불교회관에서 중·고교학생 18명에게 각 15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

SBS 문화기행 진행맡아

신영훈씨(불일미술관 관장)는 지난 1일부터 SBS 라디오 '신영훈의 문화기행(월~토 상오 6시)'의 진행을 맡고 있다.

요가도서 테이프 펴내

정강주씨(대불련 총동문회 구도국장, 요가협회 이사)는 일본 요가지도자 히로이께 아끼꼬씨가 쓴 글과 직접 실기를 보여주는 사진 및 단식에 대한 글을 첨부해 〈기적의 치유력 요가〉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발간했다.

'세종대왕 치적일반' 강연

김창수교수(동국대 국사교육과)는 오는 10일 오후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세종대왕 치적일반'에 대해 강연한다.

'사찰전통 건강법' 강의



김윤세씨(광제원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3시 부산일보대강당에서 '민간요법과 사찰전통의 건강법'에 대해 강의했다.

구산선문 사상역사 강의



이기선씨(불교조형연구소 소장)는 오는 19일 불일교양대학에서 실시하는 구산선문 답사의 강사로 동행, 구산선문의 역사등을 설명한다.

법회 안내

법륜왕사(02)934-8657
선지식 초청법회 매월 셋째주 토 오후7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참선부 매주 월·목요일 오후2시

보광사(0348)942-77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철야법회 매월 셋째주 토 저녁9시

수타사(053)781-8345
초하루·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성도암(051)809-0073
정기법회 매월1~3일(음)오전10시

용수암(051)505-6253
정기법회 매월1~3일(음)오전10시

은적사(053)653-9232
기도 및 108참회정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8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안일사(053)655-0221
기도정진법회 매월1일(음) ~7일간 오전10시
교양법회 매주 화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삼보사(02)352-6406
관음·금강 초3일 기도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방생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천도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인등기도 24일(음) 오전10시30분

화암사(0392)33-5827
통합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신흥사(0397)72-360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중암사(0398)591-6925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청년법회 첫째, 셋째주 금 오후7시
일반신도 백상화법회 매월 1·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24일(음) 오전10시

법웅사(0371)46-13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불련 매주 월 오후7시30분
청년회교리법회 첫째·둘째주 화 오후7시30분
군인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청년회 매주 목 오후8시
어린이·학생회 매주 토 오후2시

삼운사(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주 셋째주 일 오전11시, 매주 토 오후5시
정기법회 매월 21일
일반신도법회 토 오후8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게 시 판

▲자원봉사자 모집=삼전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타는 무료물리치료실에서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와 밑반찬 만들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421-6077

▲후원자 모집=개금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후원자를 모집한다.(051)893-5034

▲불교대학 신입생모집=봉원사 불교 교양대학은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내용은 불교학개론, 초급일어, 경전강독, 불교의식이론. (02)392-3007

▲열린문화교실=부천 석왕사청년회(회장 김시균)는 4월 한달동안 제3회 열린문화교실을 연다. 불교학교, 영화교실, 풍물교실로 나눠 실시하며 20일 내소사와 변산반도 일원으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032)668-0076

▲산행법회=금강산우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21일 4월 정기산행법회를 실시한다. 산행지는 계룡산 동학사, 갑사. 누구나 동참가능. (02)508-6912

▲모니터요원 모집=(사)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고졸이상 불자. (032)577-0266~7



조계종 원로회의 종무보고 받아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지난달 22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갖고 총무원 종무보고를 받았다.

이자리에서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전통사찰 경내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를 실현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혜암 승찬 원담 운경 비룡 응담 지종 석주 청하 도원 성수 벽암 도견스님이 참석했다.



경북 경산시 불교신도회 창립

경북 경산시 불교신도회가 지난달 22일 경산 영빈예식장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화산스님(보광원), 무자스님(경산시 사원연합회장), 초대 신도회장 정선경씨(협신건설·영빈예식장 대표)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이날 창립법회를 통해 경산시 신도회는 영향력있는 지역재가불교단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다.



천태종 서울지역 간부 단합법회

천태종 서울지역 간부단합법회 및 적사대회가 지난 22일 망우동 삼룡사(주지 경천)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운덕 총무원장 박형철 참의원장 김도원 총무부장과 각 부장스님 김유혁 중앙신도회장등 종단간부 5백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단합법회에 이어 윷놀이행사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종단 간부들의 우의를 증진했다.



외국인 노동자마을 경주문화답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월주) 산하 외국인노동자마을은 지난달 23일 1박2일 경주 일정으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문화답사를 실시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문화답사에서 참가자들은 불교유적지를 답사하고 한국과 한국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봉국사 기현스님 연묵전 성료

기현스님(봉국사) 연묵전이 3월 28일~4월 3일까지 백악예원에서 개최됐다.

한자한자 순수하고 생동감 넘치는 글씨로써 30여년 수행정진을 표현한 이번 연묵전 개막첫날인 28일에는 석주(조계종 원로) 현근(조계사 주지) 영담(석왕사 주지) 선관(봉국사 주지) 시현(조계종 문사부장)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신규자원봉사자 전문간병인 교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이 지난달 25일부터 총무원 1층 불교회관과 불교자원봉사자센터에서 96년도 신규자원봉사자 및 전문간병인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2백여명의 신규자원봉사자와 간병인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실무, 암의 증상 및 간호법, 임종준비 및 염습방법 등이 교육됐다. 간병인 교육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된다.

"구도하듯 年中 유물찾기"

산문밖의 禪

미술사학자 **진홍섭** 박사

삼복더위 들판에서 석비 실측
한겨울 찬바람 맞으며 탁본
산간오지서 지도들고 답사여행



지난 1966년 10월13일 경주 불국사 석가탑이 보수를 위해 해체됐을 때 진홍섭박사(78·전 문화재위원장)등 문화재 관계자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석가탑 2층 탑신부에 사리구멍이 있고 그 안의 금동사리함에서 사리병과 함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것이다. 그후 학자들의 연구를 거쳐 이 〈다라니경〉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로 확인됐고 국보 126호로 지정됐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끈으로 묶여 비단에 쌓인채 통풍이 잘 되는 사리합 맨위쪽에 있었지요. 해방후 처음으로 가장 귀중한 유물을 발견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화여대박물관장으로서 석가탑을 조사하는데 참여했던 진홍섭박사는 그날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한다. 진박사는 석가탑이 깨지고 훼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황수영 전동국대총장과 작고한 최순우 전국립중앙박물관장, 정영호 한국교원대박물관장 등과 함께 경주로 내려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도굴꾼들이 탑신을 들어 올리고 쑤셔서 탑이 기울고 사방에 돌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탑을 조사하기 위해 층별로 탑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사리와 경전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을 보고 한시름 놓았다고 한다.

진박사는 불상 석탑 등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학술조사를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물을 향해 달린다. 때로는 깊은 산속에서 때로는 황량한 벌판에서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할 선인들의 얼을 확인키 위해 추위와 더위, 외로움과 배고픔도 잊고 유물을 찾아 헤맨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인적이 끊어진 산간오지(山間奧地)에서 남루한 의복에 수염까지 텁수룩한 채 지도를 들고 답사여행을 펼치다 보면 간첩으로 오인받아 곤욕을 치루는 것은 예사였다.

그러나 그같은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의 보물찾기(?)라는 고행(苦行)도 귀중한 유물을 찾는 순간엔 환희심으로 바뀐다. 며칠 또는 몇달간의 피곤함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이다. 마치 수십년의 어려운 수행끝에 견성(見性)의 단계에 도달한 구도자가 하나의 집념아래 겪어온 고난의 과정은 그 순간을 위해 준비된 과정인 것처럼….

어렵게 유물을 마주한 순간부터는 모든 작업이 즐겁기만 하다. 작업중에는 삼매(三昧)에 빠져 해가 지는 줄도 모른다. 삼복의 무더위에도 넓은 들판에 서 있는 석비와 당간지주등을 실측조사 하고, 차가운 겨울날 부도와 석등을 조사할 때는 바람에 날리는 화선지를 어렵게 부쳐 탑영(塔影)을 진행하면서 섬세한 조각수법을 고찰하기도 했다. 그는 일생의 화두인 '불교미술사의 완성'을 위해 이러한 과정을 50여년간 묵묵히 되풀이했다.

우리나라 미술사학의 개척자 우현 고유섭(又玄 高裕燮: 1905~1944)선생의 제자로서 황수영 전동국대총장, 고 최순우 전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이른바 '개성학파'를 이루며 한국미술사 연구의 흐름을 이끌어 온 그는 1984년 20년간 봉직한 이대에서의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와 대외활동을 쉬지않는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85년, 93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심의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번이나 역임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엔 문화재위원장의 임기만료 석달을 남기고 경부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묵인한 비겁한 문화재행정에 항의하며 사표를 내기도 했다.

85년 우리나라 미술사와 관련된 자료를 총정리하는 〈한국미술사자료집성〉(전 9권·일지사 刊) 발간에 착수해 최근 4, 5권을 출간했으며, 지난해에는 국내의 석조미술을 처음으로 종합정리한 〈한국의 석조미술〉(문예출판사 刊)을 발간해 미술사학계 최대의 역작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쉽게 잡힐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이 학문이며 잡힌 것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잡고자 하던 실태가 아닌 것이 학문이어서, 학문이란 그만치 깊고 먼 것이고 자신이 안다는 것에 대한 냉혹한 비판과 질타가 따라야 합니다."

그의 엄격한 학문관은 스스로에 대한 계율처럼 들린다.

"학문의 길을 택한 후학들이 선인들이 보여준 역정(歷程)을 본받으면서 그 길을 따르려 함은 못속에 비친 달의 모습을 쫓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도'(以指指月)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어리석음 처럼 학문의 길은 멀고도 아득하기만 하다는 노학자의 겸손의 말이다. 도(道)를 찾는 스님들의 구도행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연찬(硏鑽)의 길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행(苦行)의 길이라는 것.

그의 엄격한 학문관은 고유섭선생의 삶과 가르침에 기인한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인들이 남긴 유물에서 선인들이 느끼고 있던 미의 실상을 찾으려며 '피로써 피를 씻는' 악전고투를 치른 분이 스승이었고, 그러한 악전고투의 과정에서 남긴 자취가 그에게 불멸의 교훈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지금에 남겨진, 또는 앞으로도 출현할 우리 문화유산은 그것이 불교문화재라고 하여 불자들만의 관심사도 아니며, 그 속에 정신의 소재와 미적인 표현능력이 여실할진대, 그것은 불교의 테두리를 떠나 우리 국토의 일부로서 온 국민의 애착과 관심이 요청되는 민족혼의 결정체입니다."

문화유산은 민족혼… '불교미술사 완성' 50년화두
"안다는 것에 냉혹한 비판과 질타가 필요합니다"

김재경 기자

참다운 수행방법을 일러주세요

문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대로 살아서는 안되는 것이고 무언가 삶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더우기 불자라면 삶이 곧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하는게 참다운 수행인가라는 질문을 하고보면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수행방법도 너무나 많은 것 같구요. 스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수행의 요체로 삼으십니까?

〈이영빈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답 우주 삼라만상이 죄다 부처의 나툼 아닌게 없으니 부처 중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두두물물의 형상계에는 깨달음과 미혹이 있지요. 수행문제는 미혹한 중생을 위한 것인데 나는 '일체 경계를 남김없이 주인공-부처자리에 되돌려 놓아라'고 합니다.

그러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그냥 믿어라, 믿어라 하는 맹목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바로 되돌아보고 가르침을 잘 받드는데서 나옵니다. 바른 믿음이야말로 수행의 첫걸음이자 근본입니다.

그러면 나란 무엇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확연하게 풀린다면 불법의 참맛을 알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를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니까 나야 그냥 나지 무엇이겠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로부터 정혈을 받아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건 육신의 나이지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나일 뿐입니다.

참고로 아기가 태어났을때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목수는 집을 지을때 어떤 집을 지을지 제 마음대로, 제가 설계한대로 짓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기의 심성이나 성격 등을 짐작하지도 못합니다. 부모의 생각대로 아기의 모습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냐는 의문이 나올 수 밖에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비밀을 짐작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얼핏 생각하기에 그 비밀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는 연방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항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나로 있을때 세상은 마땅치 않고 삶은 고(苦)가 됩니다.

반면에 가르침은 그런 나 아닌 참나를 말합니다. 그런데 참나라고 하면 금방 '또하나의 나'를 연상합니다. 하지만 '또하나의 나'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중생심입니다.

말하기 쉽게 앞의 나를 거짓 나, 뒤의 나를 참나라고 하지만 참나와 거짓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나의 근본이 참나요 둘이 아니다라고 해야 옳지요.

그러기에 생멸하는 중생심, 번뇌심, 삼독심을 나로 알지말고 그것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참나가 드러나게 해야한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짓나, 참나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가 주인공에 몰락 놓으라고 하니까 주인공을 무슨 이상한 '존재'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인공은 나의 근거이자 동시에 모든 것의 근거이기에 主人公이 아니라 주인이자 공한 主人空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 한 것은 主人空을 말함입니다. 이것 또한 이름이지만 말입니다.

산신 믿으면 가피 받는지요

문 사찰엘 가보면 산신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데 불자들 중에는 대웅전 참배는 그냥 건성이고 산신각을 더 선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피를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산신신앙을 부인하시는지, 인정하시는지요.

〈권정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답 부인한다, 인정한다는 것은 다 중생심의 말이지요. 구태여 따지려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속에 담겨진 뜻이지 형상은 아니라고 해야 하겠지요. 원리만 잘 안다면 그 속에도 부정할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 요는 기복적으로 믿기 때문에 탈입니다.

산이든 땅이든 모든게 다 생명이 있으니 거기다 산신, 지신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산신이 따로 있고 지신, 용왕신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지수화풍이 다 뭉쳐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보면 지·수·화·풍이지만 크게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보면 지신, 산신, 용왕신이나 크게는 다 하나거든요. 떼어놓고 보는 것은 '얼굴' 하지 않고 코, 눈, 입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눈 가는데 귀 가고 귀 가는데 눈 가지요. 어찌 산신따로 부처따로 이겠습니까?

부처는 전체입니다. 부처! 하니까 산신 용신 지신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부처는 얼굴, 지신은 코, 산신은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용법으로 보면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려 할 때도 있고 귀를 쫑긋 세워서 소리를 들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상 조성해 놓고 '부처는 전체다' 하면 될 것을 왜 그림 그림 쭉 그려놓고 예서 빌고 제서 빌어야 가피를 입는다, 마음이 편하다 합니까?

그건 다 그 사람이 산신을 생각하니까 산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장을 생각하니까 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귀신짓을 하면 귀신이 있는게 되고 귀신짓 안하면 없는 것이지요.

산신, 지신 찾을려면 왜 목신, 석신, 수신, 풍신은 안찾고 산신만이겠습니까?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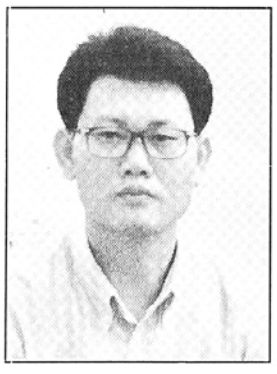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사람을 찾습니다. (지명수배)



이름

· 성 경 섭
· 당 40세
· 주민등록번호 571120-1702810

특징

· 키: 173 cm
· 경상도 억양 서울 말씨
· 안경착용(착용 안할수도 있슴)
· **현상금 : 2,000만원**

위사람은 특경법 위반 지명수배자임.

연락처 직통 (02) 3661 - 2256
(02) 3661 - 8903
가까운 경찰서 · 파출소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8기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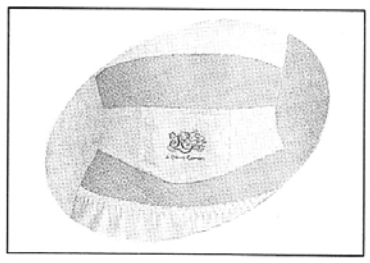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태징,요령,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원서접수 : 1996년3월18일~4월23일
■ 개강일시 : 1996년4월2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 옆 경동빌딩 3층
TEL: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儀式教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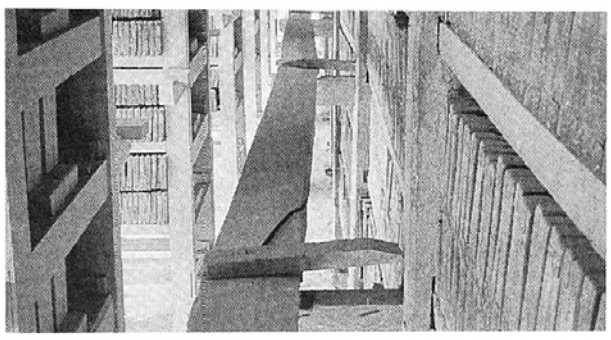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온습도 일정' 대장경 보존 비밀

해인사 학술조사단 2년 연구결과 밝혀

수다라장 연결구조·전통식 경판배열 복원 절실
인경작업 미생물 번식 위험…기와교체 신중해야

해인사대장경학술조사팀이 국내 최초로 대장경판을 보존과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 보존에 대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팔만대장경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서는 경판에 대한 세밀하고도 신중한 조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인사 대장경학술조사팀은 지난달 23~24일 이틀간 해인사에서 '해인사 대장경판 학술조사 결과회의'를 열고 지난 2년여 동안 국보 제32호와 제52호로 지정된 고려대장경판과 장경각 건물 등에 첨단장비를 동원해 실시한 판고 내부와 경판자체의 온·습도 변화, 통풍구조, 미생물 번식상태와 먼지의 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의 현재상태와 지속적인 보존방안을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경판의 배치 현황과 상태, 경판의 성상(性狀)과 보존 실태, 경판의 구성 수종(樹種), 생물학적 조사를 통한 공중 부유균의 분포와 경판 부식균의 생장특성, 경판의 마구리 금속 장식판 및 못의 성상 등 대장경판의 재질 및 현황이 비교적 정확히 파악됐으며, 대장경판 보존관리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착수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대장경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는 장경각 내의 온·습도 분포와 보존환경 조사에서는 경판전 안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2℃ 이내의 균일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일교차도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판고의 위치가 주변보다 습도가 높고 정밀한 통풍구조로 경판이 항상 일정한 습기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대장경이 7백년이 지난 지금도 원상태로 보존돼 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그러나 대장경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 장경각의 일부 구조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등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다라장, 법보전, 동사간고(東寺刊庫), 西사간고 등 4채의 판고 가운데 현재 관람객들이 가로질러 다니게 돼 있는 수다라장의 중앙통로를 없애고 내부공간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수다라장의 원래 구조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다라장을 양분시킨 중앙통로의 벽이 통풍을 막고, 관람객들이 드나들어 판고 내부에 흙먼지를 발생시켜 온도와 습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판에 미생물이 번식하는 요소가 되는 경판에 한지를 찍어내는 '인경(印經)'도 삼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으며, 판고의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해서 현대의 기와로 갈아끼우는 것도 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요즘 기와가 옛 기와에 비해 무게가 40~70% 정도 무거워 건물구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판배열의 방식도 원래대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경판들을 비스듬히 세워 경판 사이의 통풍을 막을 뿐 아니라 판가(板架)의 층별 통풍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인사 대장경 학술지도 위원을 맡고 있는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번 연구는 생물학, 임학, 공기역학, 기상학, 화학, 건축학 등 제반 관련학문의 상호공조와 교류에 의해 이루어진 총체적인 조사연구의 새로운 시도로 현대과학에 의한 고문화재의 보존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접근과 측정장비 시도는 세계보존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만한 작업이었다"고 평가했다.

한명우 기자

은해사 심검당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學道如初不變心
(학도여초불변심)
千魔萬難愈惺惺
(천마만난유성성)
直悟敲出虛空髓
(직적고출허공수)
拔脚金剛腦後釘
(발각금강자후정)
突出眼睛全體露
(돌출안청전체로)
山河大地是空華
(산하대지시공화)

도를 배우려는 뜻 처음과 변함이 없고
천만가지 어려움도 깨닫고 깨달았네
곧고 바른 진리 허공의 진수에서 오고

망상 끊고 '마음의 칼' 찾는 곳

금강을 뽑아 버리면 창마저 부러진다.
온몸 나투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니
산하대지가 바로 공화로다.

해설 팔공산 은해사(銀海寺)는 신라 제41대 헌덕왕 초년에 혜철국사가 창건한 절로 처음에는 그 지명을 따 해안사(海眼寺)라 했었다. 그뒤 고려 원종 11년에 홍진국사가 중건했으며 조선 명종 1년에 천교대사가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창한 뒤 인종의 태실을 봉하고 이름을 은해사로 고쳐 불렀다.

은해사는 오랜 세월동안 여러번의 화재로 사지(寺誌)는 물론 성보가 불탔으며 6·25때는 국민방위군 사건의 대참극이 벌어진 본거지가 되기도 했다. 최근들어 중창불사를 일으켜 당우를 새로 짓고 사격을 확대시켜 대가람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대웅전 주련의 내용은 이미 소개한(37호·95년 7월 19일자) 직지사 대웅전과 같다.

심검당은 글자그대로 마음의 칼을 찾는 곳이다. 마음의 칼이란 무엇인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는 선객들의 활달하고 치열한 구도정신을 이르는 말이 있거니와 심검당은 자신의 번뇌와 망상을 베고 진여의 실상을 찾는 곳이다.

은해사 심검당 주련의 내용은 퇴색되지 않은 초발심으로 천가지 만가지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성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면 곧고 바른 진리는 허공중의 진수에서 오고 금강을 뽑아 버리면 창마저 부러진다는 것이다. 그런 자리에서 맑은 눈으로 법계를 바라보면 산하대지 모두가 허공중의 꽃임을 툇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다. 허공중의 꽃이란 모든 형상의 실체가 망심으로 보이는 것일뿐 본래 실체는 없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 주련은 선정에 들어 깨우치고 모든 형상의 덧없음을 보라는 질책을 선객들에게 내리고 있다고 이해하면 무난할 듯하다.

〈안동 경안중 교사〉

"불교 근본정신은 남녀평등"

신성현교수 주장



◇신성현 교수

부처님은 과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서 대했을까. 사회에서 남녀 불평등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더구나 승단에서는 비구니스님들이 비구스님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율장은 궁극적으로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율장 가운데 남녀평등을 의심케 하는 사건들과 표현들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 불교는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신성현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는 최근 발간된 '불교학보' 제23집에 게재한 '율장에 나타난 남녀차별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불교의 근본정신에 맞지 않는 율장속의 남녀차별적 조항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신교수는 우선 율장에 나타난 남녀불평등의 사례로 아난이 불타를 설득해 여성을 출가하게 했다는 이유로 교단의 문책을 받은 사실과, '비록 1백세의 비구니일지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고…'라는 등의 '비구니 8중법'을 여성출가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신교수는 이같은 불평등적 요소는 △성차별이 보편화된 당시 사회질서속에서 불교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가섭 등 성차별의 인식을 떨치지 못한 비구들에 의해 경·율이 결집 △성차별적인 조항이 후세에 삽입됐을 가능성 △여성과 남성이 모두 출가할 경우 사회유지가 어려울 것을 고려했다는 점 등 당시 사회상과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교수는 불교가 남녀를 평등하게 간주했음은 △불교가 처음부터 계급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섰으며 △교단에서 출신성분을 개의치 않았다는 점과 △여성의 출가가 승인되고 초기불전에서 깨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 △대승불교에서 善男子와 善女人을 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불교가 남녀평등에 입각한 정신을 지녀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율장 성차별표현 당시 사회상 반영일뿐
교단 출신성분 안가리고 여성출가 인정

보각국사 일연碑 뒷면 탁본 첫 공개

정병삼교수, 124字·시주자 10명 새로 확인

보각국사 일연 碑의 뒷면(陰記) 탁본이 처음으로 공개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병삼교수(숙명여대 한국사학)는 〈한국학연구〉 최근호에 기고한 논문 '일연 비문의 단월'을 통해 간송문고(澗松文庫) 소장본인 '보각국사비첩(普覺國師碑帖)'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이와 함께 이 탁본을 토대로 관직과 이름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던 단월(檀越·재가신도를 일컫는 말) 6명을 새로 찾아냈다.

비의 음기는 음기를 짓게 된 배경 등을 적은 前文에 이어 분도들의 이름을 나열한 것으로 이번 탁본을 통해 1백24자의 새로운 글자와 승려를 포함한 시주자 10여명의 이름과 일연과 그 주변인물들과의 관계를 새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학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교수가 이번에 공개한 간송문고본 '보각국사비첩'은 가로 21.3㎝, 세로 30.5㎝ 크기의 책으로 비문의 탁본을 너비 2.5~3.0㎝의 길다란 조각으로 만들어 29.5㎝의 길이까지 나누어 붙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체 23면으로 1면에 7행씩 배열돼 있으며 1행에는 대체로 12자씩 들어 있다. 탁본에 실린 비의 앞면과 뒷면의 글자수는 모두 1천8백72자다.

현재 일연의 생애를 기록한 碑는 파손된채 일부분만 남아 있으며, 일연碑의 앞면은 전문이 밝혀진 상태이나 뒷면(음기)은 완전한 탁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정교수는 "아직까지 일연碑의 음기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번 탁본 공개를 계기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탁본들이 많이 나와 일연碑 음기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數의 명칭 불교용어서 유래

김병덕교수 밝혀

가장 큰수와 가장 작은수 등 우리 실제 數중 많은 수의 명칭이 불교용어에서 인용된 것으로 드러나 흥미를 끌고 있다.

김병덕교수(창원대 수학과)는 지난해부터 수학사(數學史)학회와 그 학술지에서 19세기 이전과 오늘날의 각종 자료를 일본, 중국 것과의 비교를 통해 가장 작은 數는 '청정(淸淨)'이며 가장 큰 數는 '무량수(無量數)'임을 밝혀냈다.

가장 큰 數인 무량수는 불교에서 온 말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으로 1에 0이 1백28개가 붙은 수. 그러나 현재는 1에 0이 68개가 붙은 수(10의 68승)를 무량수라고 부르며, 숫자를 부르는 방법이 18세기 이전과 19세기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무량수 바로 앞의 數를 차례로 보면 불가사의(不可思議)(10의 64승), 나유타(那由他·인도 수량의 단위로 극히 큰 數)(10의 60승), 아승지(阿僧祇)(10의 56승), 항하사(恒河沙·항하의 모래 수와 같이 많은)(10의 52승) 등으로 이들은 모두 불교용어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가장 작은 수는 정(淨)이라고 불렸으나 현재 가장 작은 수는 청정(淸淨)으로 소수점 이하에 0이 21개가 있는 數이며, 청정 바로 앞의 수들인 청(淸), 공(空), 허공(虛空), 허(虛), 육덕(六德), 찰나(刹那), 탄지(彈指·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짧은 시간), 수유(須臾·잠시, 잠깐의 뜻) 역시 경전에 나오는 불교용어가 그대로 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무량수 1에 '0' 68개 붙은 최대수

청 정 소숫점이하에 '0' 21개 최소수



◇무량사 미륵보살도는 조선시대 후기작품으로 미륵의 성스러움을 잘 승화시킨 괘불이다.

국내 最古 무량사 괘불탱화 향토유적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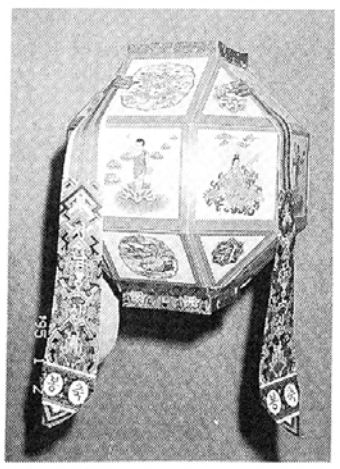
충남 부여군은 최근 무량사 괘불 탱화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괘불 탱화는 서기 1627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현존 괘불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길이 13.65m, 폭 7.5m에 본존불인 미륵불이 화면전체에 가득히 묘사된 구도를 띠고 있다.

국보 감은사탑 해체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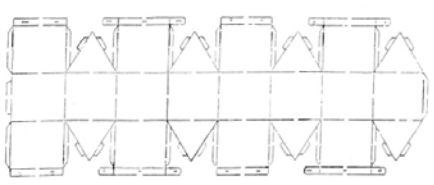
문화재 관리국은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경주 감은사지 감은사탑 2기가 노후화에 따른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4월말쯤 해체보수공사를 실시한다.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잡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펼친상태(골조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품목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벌등, 영기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번, 교패(불자의집, 교통안전기원패)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홍법기획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현대불교신서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편저 / 정가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저!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베어있는
쉬운 법화경.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 안내
매월(양력)1일 오전11시~12시까지
범어사 내원암에서
능가스님의 법화경 강의가 열립니다.
연락처 (051)508-5165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서
1.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李東炳역·釋能嘉감수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설한 경으로 일행삼매(一行三昧)를 통한 진리에의 도달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李東炳역·釋能嘉감수
물질에 찌든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편저
4. 육묘법문 李東炳역·釋能嘉감수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근 간
6. 반 야 경 근 간
* 대흥기획의 현대불교 신서는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

베다경전 뿌리둔 梵我一如 사상

보르헤스의 ⑨ 불교강의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② — 베단타학파 ㊦



◇베단타학파는 찬가·기도·명상·가영 등을 집대성한 베다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며 체계적 해석을 했다. 사진은 베다에서 춤의 주(主)로 칭송한 쉬바 나타라자가 탄다바 춤을 추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탄다바 춤은 영겁으로 순환하는 창조·유지·파괴를 나타내며 삶과 죽음의 균형을 의미한다.

우주 본체와 개인 본질 합일통해 해탈 이르러
인간의무 성실수행 중시… 창조론적 '神' 부정

"인간의 잘못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데 있다 욕망이 영혼을 얽어매게 되고 이로써 계속 윤회하게 된다"

인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그렇듯이, 불교도 베다의 사상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베다라는 말은 '지혜'를 뜻하며, 오랜 옛날부터 구전(口傳)되어 오다가 문자로 기록된 방대한 양의 경전들을 포함한다. 코란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며, 성경은 여러차례의 협의과정(結集)에 의하여 공인받은 책들만 묶은 것인데 비해, 인도에서 베다의 신성(神聖)함은 유사(有史) 이전부터 확립되어 온 것이다.

하나의 實在만 존재

베다는 찬가(讚歌), 기도, 주구(呪句), 연도(連禱), 주석, 명상, 제사, 가영(歌詠) 등을 집대성하고 있다. 그것은 신성(神性)의 작품으로, 하나의 세계가 소진될 때마다 브라만신(神)에게 계시된다. 브라만은 영원한 베다의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창조한다. 따라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실재로 '바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위'라는 베다의 말이 필요하다.

인도 육파철학(六派哲學)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인 베단타는 베다 경전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베단타는 '베다의 말미(末尾)' 또는 '베다의 심오한 경지'를 뜻한다. 베다의 마지막 부분인 이 베단타는 '우파니샤드(奧義書)'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름을 딴 베단타학파는 우파니샤드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해석을 하였다.

베단타는 종교적으로도 범신론(汎神論)적 다신교이며, 사상적으로는 일원론(一元論)이다. 사상적인 면에서 베단타는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스피노자(Spinoza) 그리고 쇼펜하우어(Schopenhauer)의 철학에 가깝다. 베단타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는 하나의 실재(實在)만 존재하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면 브라만(梵)이 되고 주관적으로 인식되면 아트만(我)이 된다. 그 실재는 비인격적이며 유일한 존재이다. 이 세계에도, 신에게도 복수성(複數性)은 존재치 않는다. 파르메니데스도 이 세계에는 다양성이 존재치 않는다고 말했다. 엘레아학파의 제논(Zenon)도 시간과 공간이 변화한다는 개념이 내부에서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역설을 만들어 냈었다. 상카라(Sankara, 8세기 베단타철학자)는 단지 하나의 사고주체(브라만)이 존재하고 그 본질은 영원한 현재라고 믿었다.

브라만은 주기적으로 우주를 파괴하고 재창조한다. 그러나 이 파괴와 창조는 본질적으로 마술적이며 환각적인 작용이다. 베다에 이미 기록되길, 신은 마야(Maya, 幻)의 마력을 빌어 외부세계를 창조하는 마법사라고 한다. 우주의 주기적인 창조와 파괴를 설명하기 위해 2가지 이유가 제시되었다. 한편으로 이 창조와 파괴의 주기성은 들숨과 날숨처럼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되고, 다른 한편 그것은 한가한 신성의 끝없는 장난으로 여겨진다. 헤라클리토스도 "시간은 주사위를 던지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그 아이는 무서운 힘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17세기 독일의 신비주의자 안젤루스 실레시우스(Angelus Silesius)는 "이 모든 것은 신성의 장난이다"고 했다.

세상의 거짓된 본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카라는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한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뱀으로 보이는 것이 실재로는 새끼줄이다. 그러나 그것이 뱀이든 새끼줄이든 실제로는 신(神)의 겉모습에 불과하다. 우리는 무지(無知) 때문에 새끼줄을 뱀으로 착각하고, 세계를 실재(實在)로 착각한다. 세계는 무지와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모두 본질의 겉면에 불과할 뿐이라고 상카라는 말한다. 마야(幻)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과 빛이 불의 속성인 것처럼, 마야는 신의 속성일 뿐이다. 신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한다면, 환상 따위는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우주는 거대한 환영(幻影)이며, 육체, 자아, 창조주로서의 신의 개념 등은 그 환영의 부분적인 모습일 뿐이다.

우주는 거대한 幻影

사물의 비실재성을 강조하는 베단타 철학은 결국 아트만(我)이 브라만(梵)을 철저히 인식하여 그와 합일함으로써 해탈에 이른다는 범아일여(梵我一如)를 가르친다. 베단타의 궁극적 가르침은 '네가 바로 브라만이다'로 귀결된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간은 비록 몸을 가지고 세상속에서 살지만 그것이 환영이란 것을 잊지 않는다. 신은 복된 자이며, 해방된 영혼 역시 그러하다. 이런 교설(敎說)들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베단타의 가르침은 '네가 그것이다(Tat twam asi)'와 '나는 브라만이다(Aham brdhmdsmi)'라는 유명한 두마디로 요약된다. 둘다 대우주의 본체(梵)와 개인의 본질(我)이 일체라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이 말들은 세계를 만들었다가 부수는 영원한 본질이 우리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류 전체가 파멸되어도 한 사람만 살아 남는다면, 우주는 그로 인해 다시 복원될 것이다.

베단타의 다른 철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의 근본적인 잘못은 자신과 육체를 동일시하여 감각적인 쾌락을 좇는 것이라고 한다. 그 욕망이 영혼을 세계에 얽어매게 되고, 이로서 계속 윤회하게 된다는 것이다. 베다가 알려주는 인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우리들은 창조주를 사랑해야지, 피조물을 사랑해서는 안된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현 정 〈고려상사 대표〉



'남을 수용하자' 인욕공부 첩경삼아
'자비의 전화' 상담 "봉사아닌 '나' 찾는 계기"

〈금강경〉에 '무주상 보시복덕은 불가사량'이라 했다. 바라는 바 없이 남을 위해 하는 일의 공덕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큼을 이르신 말이다.

자비의 전화에서 내담자의 전화에 응해 그들과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그들의 힘들어 하는 문제해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되는 이 일이야말로 '무주상보시'의 가장 큰 사례라 생각된다.

그것은 전화상담이 원래 얼굴도 이름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봉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굴도 이름도 내세우지 않고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경우란 전화상담 말고는 사실 그 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내세우지 않으려 해도 서로 얼굴을 맞대면 자연 그 공덕을 즉시 되돌려 받게 마련이니까.

저의 경우 오랫동안 하던 사업을 정리하며 이제 남은 세월에 무엇인가 부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의 일부라도 회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던 중,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원을 모집하는 안내를 보고 교육을 받은 뒤 전화상담을 시작한지 1년반 가량 됐다.



처음에는 내담자의 전화에 응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고 하소연도 듣는 일이 그들에게 봉사하는 일로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점점 그 생각이 바뀌어 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왜냐하면 전화상담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그 상담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더 돌이켜 보게 되고 마음을 구석구석 들여다 보며 반추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은 없는가?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음도 실감하게 되고, 나의 지금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며 음미하게 되면서 생활속의 참된 수행이 실천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자신과 남의 생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남에게 대는 잣대와 나에게 대는 잣대를 하나로 해서 치수를 재보면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다. 또 남을 비난하던 많은 일들이 나에게도 흔히 일어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되어 서로를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가짐도 갖게 되는 등 생활속의 참수행에 이 자비의 전화만큼 큰 스승도 없다고 생각한다.

자비의 전화의 제1 수칙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수용한다는 것이다.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전화를 받다 보면 수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남을 수용한다는 것보다 더 큰 덕목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육바라밀중 인욕바라밀을 키우는 첩경이기도 하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켜 나가고 수행하여 참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는가. 하지만 생활하는 불자로서 물질적인 여유가 없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도, 혹 육체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보람된 일 하면서 자기공부가 확실하게 되는 이 자비의 전화 상담을 여러 불자님들께 권하고 싶다. 내 경험은 이런 권유에 자신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상담원 선생님들의 숫자가 적은 편이어서, 동참하시는 분의 보람 또한 다른 활동에 비해 더욱 크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시대가 되었지만 오히려 정신적인 고뇌와 외로움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게 작금의 세태가 아닌가.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나마 마음놓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이웃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만 가는 것 같아 가슴아프다.

가장 효율적으로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고 마음공부 또한 확실히 할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이 자비의 전화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원한다.

이제는 우리 불자들도 움직이고 활동하는 참보살행을 해야할 때가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타종교의 몫으로만 돌리기에는 부끄러워 할 때 또한 된 것 같다.

나는 내가 누군가의 정신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벅찬 생각이 들 때마다 한편으로는 나 스스로 부끄럼이 없는 불자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불길처럼 솟아오른다. 그곳에서 나는 그림공부를 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깨·달·음·을·향·한
불교예절

"이 만큼 충실한 불교 입문서 보셨습니까?"

- 사찰에 들어서서 부터 나올 때까지 지켜야 할 기본 예절이 알기 쉽게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불자의 기본 예법 설명을 위해 자세하고도 다양한 130여 컷의 사진과 그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예절을 비롯하여 불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님에 대한 예절은 물론 사찰에서 당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권영한 지음
신A5/값 6,000원

우리의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마음은 그릇 속에 담긴 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는 수행에는 항상 몸을 단정히 하는 수행이 먼저 따라야 합니다.
불교에서 계율과 예절을 중요시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한권의 책이 초심자를 위해 불교예절의 길을 안내합니다. 어렵게만 알고 있던 불교 예절이 한층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조계종 선정 청소년 도서 5위"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완전한 불교 전서!!

불문(佛門)에 입문하셨으면
그곳의 예절을 아셔야 합니다.
《예불하는 마음의 자비를》은
불문에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권영한 지음
신A5/374면/값 15,000원

전국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우리 사찰의 벽화 이야기

"절에 가서 벽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벽화를 보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불교에 입문하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우리사찰의 벽화이야기

- 전국에 산재한 우리 사찰의 벽화들을 총망라하여 불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 주제별 13장의 쉬운 구성과 300여 장의 컬러 사진을 수록하여 불서의 생생한 사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권영한 지음
신A5/302면/값 10,000원

전원문화사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48-6 전화 (02)704-1626, 1628 FAX (02)718-2837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3〉

釋難文 (석난문) ①

非求蝸角利名也
비구와각리명야
爲生死也 爲衆生也
위생사야 위중생야
爲爵煩惱
위단번뇌

이끗과 명예를 놓고 부질없이 다투어 구하려 함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관문을 위하고(해결하고) 중생을 위하며 번뇌를 끊어

出三界海 續佛慧命也
출삼계해 속불혜명야
去聖時遙 佛法 大壞
거성시요 불법 대괴

삼계의 고해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함이니라.
성인(부처님)이 가신지 오래이라 불법이 크게 무너졌거늘

汝 敢望爲爾
여 감망위이
寶梁經 云 比丘 不修比丘法 大千 無 보량경 운 비구 불수비구법 대천 무
堕處
타처

네가 감히 바래어 이렇게 하겠느냐.
보량경에 이르기를, 비구가 비구법을

구부지삼승십이분교 주공공자지도

그러나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하되 진실로 삼승 12분교와 주공·공자의 도를 알지못하고

不明因果 不達己性
불명인과 부달기성
不知豚犢難難 不念信施難消
부지가색간난 불염신시난소

삼세 인과를 밝히지 못하며, 자기 성품을 요달하지 못하고,
곡식심어 거두는 그 어려움을 모르고, 신심어린 시주의 소화하기 어려움을 알지 못하며,

徒飮酒食肉 破齋犯戒
도음주식육 파재범계
行商坐賈 偸盜博奕
행상좌고 투간박혁

함부로 술마시고 고기먹고, 재를 올리지 않고 계율을 범하며,
부처님을 돌아다니며 팔고 앉아서 팔고, 간음하고 노름·장기바둑에 빠지고,

毁廢院舍 車蓋出入 奉養一己而已 悲夫
기유원사 거개출입 봉양일기이기 비부

이절 저절 기웃대며 보금자리 틀 궁

"출가하여 십과에 참예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을 백년 섬겨도 헛된 일이로다"

닦지 아니하면 삼천대천세계에 침뱉을 곳이 없다고 하고

通憒錄 云爲僧 不預十科 事佛 徒勞百載
통혜록 운위승 불예십과 사불 도로백재
爲之不難 得乎
위지불난 득호

통혜록(송고승전)에 이르되, 중이되어 십과에 참예하지 아니하면
부처님을 섬기되 백년을 섬겨도 헛된 일이라 하니
(스님이)되기 어려운 줄을 알겠느냐

以是觀之 予 濫厠僧倫 有媿於佛
이시관지 여 람치승륜 유태어불
況汝爲之耶
황여위지야

이로써 보건대 나도 외람되게 승륜(승단)에 끼어들어 부처님을 속인게 되거늘
하물며 네가 하려 하느냐.

然 出家爲僧
연 출가위승
苟不知三乘十二分教 周公孔子之道

리나 하고, 차타고 드나들며 제한몸 봉양할 따름이니 슬프도다

有六尺之身而無智慧 佛謂之痴僧
유육척지신이무지혜 불위지치승
有三寸舌而不能說法
유삼촌설이불능설법

여섯자 몸은 있으나 지혜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중이라 하고,
세치 혀는 있어도 설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佛謂之啞羊僧
불위지아양승
似僧非僧似俗非俗
사승비승사속비속
佛謂之鳥鼠僧亦曰禿居士
불위지조서승역왈독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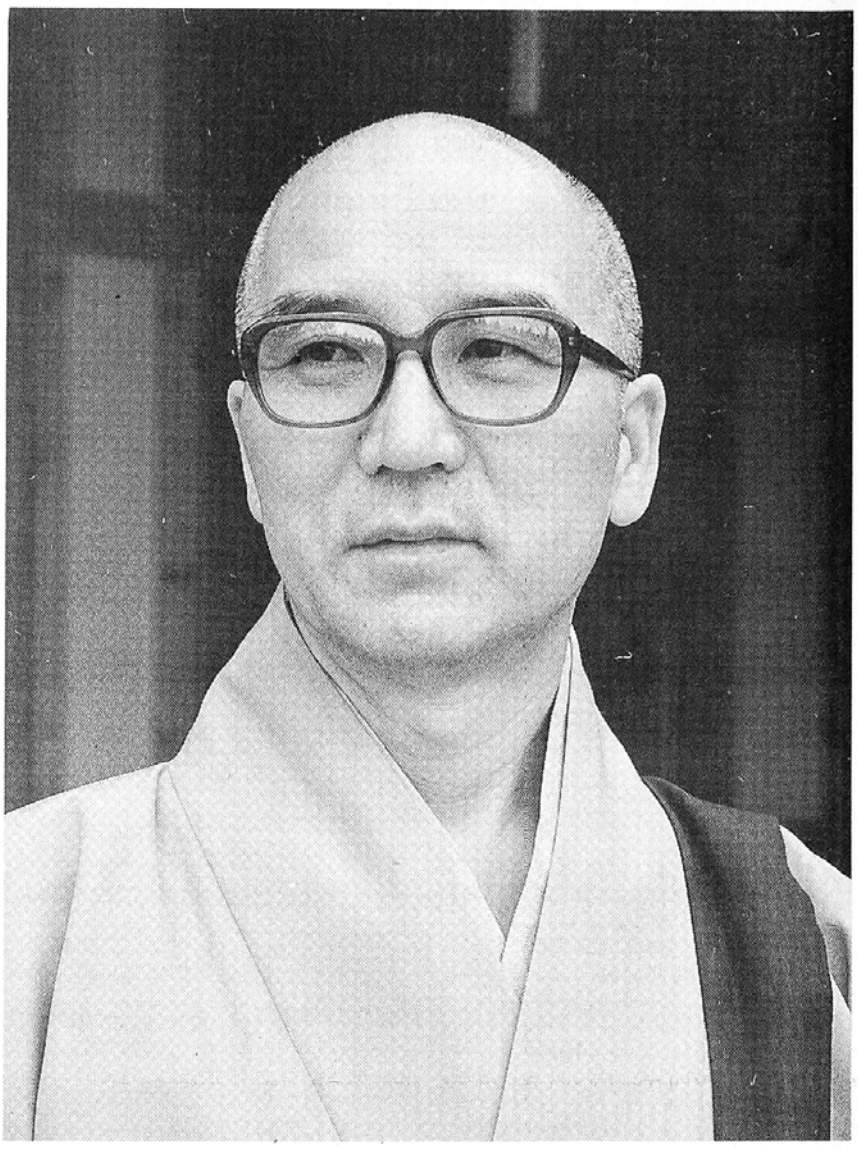
아양승(벙어리중) 이라하고
중같으면서 중이 아니고 속인 같으면서 속인도 아닌 것을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박쥐중 또는 대머리거사라 하셨다.

龍眼

★ 지상법석

"나를 양보하고 희생할때

진철스님 〈통도사 자비원 원장〉



약력
- 1940년 공주 生
- 1964년 공주 마곡사 입산
- 1971~1978년 마곡고등공민학교 교장
- 1979, 1983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역임
- 마곡사, 낙산사 주지 역임
- 강릉자비복지원 원장 역임
- 현재 통도사 선원 주석 중

요즘 산사에 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법당이나 대중방, 공양간이나 곳간을 가릴 것 없이 채워져 있는 자물통입니다.

70년대 이후 우리 사찰경제가 그 규모나 내용면에 있어서 많이 성장했다고들 합니다. 산사의 50이상 먹은 중진스님들 가운데는 "옛날에 이밥에 두부 부침과 김, 미역국을 먹는 큰 제가 들어 오는 날은 일년에 손꼽을 정도였는데 요즈음 젊은 수좌들은 너무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개탄과 우려의 소리를 자주 하곤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궁핍 속의 구도를 몸소 체험한 세대에 속합니다.

산중에는 그러한 내핍 생활속에서도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무슨 수행이 되겠는가'라는 노스님들의 꾸지람이 끊일 새 없었고, 비록 허기에 지친 수좌들이었지만 구도 열정에 타오르는 눈빛만은 중생세계를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결핵같은 몹쓸병에 걸릴라 치면 요즘처럼 고기도 먹고 보약도 지어 먹으면서 치료를 하기는커녕 감로수와 같은 공기를 탕제삼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나기도했습니다.

"허깨비 좇는 몸뚱이
머지않아 덧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들은 무엇을
해탈이라고 찾는가"

〈팔대인각경(八大人覺經)〉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염(念)하고, 가난에도 안주하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출가 수행자들의 집단인 우리 승가에서도 재정이 조금 넉넉해지는 듯 싶자 고급 음식에 고급 차, 고급업소 출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하물며 재가범부들로서는 선진국 진입을 구가하고 있는 현시대에 약간의 과소비와 향락추구가 무슨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쾌락을 향한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입제록〉으로 유명한 조주(趙州)선사는 수행자들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쾌락의 미망에 대해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은 이 꿈같고 허깨비같이 따라 다니는 몸뚱이를 잘못 알지 마라. 머지않아 덧없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대들은 이 세계속에서 무엇을 해탈이라고 찾는가? 그저 한 술 찾아 먹고 누더기 꿰매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선지식을 찾아 뵙도록 해야지 쾌락이나 좇아 그럭저럭 지내서는 안된다. 촌음(寸陰)을 아껴야 하니 생각생각 덧없이 흘러가 거칠게는 지수화풍 4대(四大)에, 미세하게는 생주이멸 4상(四相)에 조여들게 된다.'

불과 1백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썩어 흙으로 돌아갈 몸뚱이에 수백만원짜리 옷을 걸치고 수십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시시각각 붕괴되는 육신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느 가수의 대중가요에는 '맨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다'며 삶이 '수지맞는 장사'라고 했지만 가는 길에 걸치는 수의 마저도 몸뚱아리와 함께 썩어 흙으로 돌아가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라는 허망한 의복을 걸친 영성(靈性)의 광휘를 발견하여 무탐(無貪), 무욕(無欲)의 빛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 이제는 사랑이니 나눔이니 베품이니 하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불자들도 차츰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위한 기복과 공덕쌓기만이 아닌 참다운 보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점차 눈떠가고 있는 것같아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더불어 교계 전체로 볼 때에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영세민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찾아 보살피는 사회복지 사업에 점차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비록 타종교에 비해 늦은 감은 있으나 날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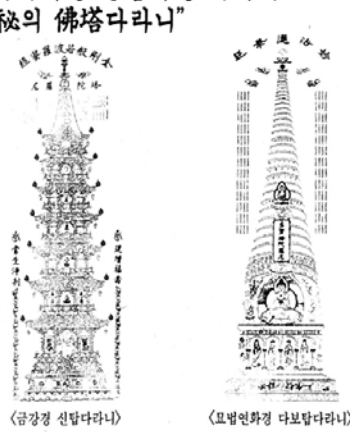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나눔과 보시의 차이입니다. 서구적 개념의 '나눔'이란 언제나 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줄것이 있단 말입니까.

구미의 산업혁명은 영국이나 미국 등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나라에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인간적 불행을 초래

"어려운 역경 속에서 佛事(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님께 알려드리는 귀중한 정보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神秘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 62cm × (세로) 160cm

■ 상담문의 : 대한불교 조계종 **보문포교원** (원장 각광)
부설 : 불교바라밀 건강연구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번지 (한신상가 5동 5층)
전화:(051) 864-3740

■ 책자신청 : ①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0335) 34-9490, 39-1906, 야간(0342) 706-3060

◎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주는 강력한 氣가 발산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서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파장되는 氣(기)의 흐름을 체크하여, 길흉화복을 관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관단하여 運을 좋게 변화시키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 등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책자를 일차로 금년에 1,000군데 사암에 보내드려 큰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오니 주소, 사찰명,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이 책자는 현재 사암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이 方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運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서 신도들의 나쁜 운세를 좋은 운세로 바꾸어줄 수 있으며
② 영가의 빙의상태, 관님과장의 방해를 확인하여, 영가의 빙의 및 관님과장을 천도, 차단하는 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며
③ 신도들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단하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해줄 수 있으며
④ 산소에 탈이 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산소를 잘못 써서 조상령이 천도되지 못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느 산소이든 그 산소 자리를 좋은 地氣가 넘치도록 하여 후손들이 발복하도록 해줄 수 있고
⑤ 집터나, 상가, 사무실 등에 좋은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도록 하여 만사형통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님은 다년간 경험을 해본결과로, 그 신비성이 확실함을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책자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사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역경을 겪고 있는 스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佛子들 대부분은 자신의 현재의 운세와 운명을 몹시 알고자 하며 또한 나름대로 간절한 염원과 소원들이 있어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방편을 스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탑다라니가 스님의 기도법력과 합해져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입니다.

불·교·계·유·일·의·종·합·학·술·정·보·잡·지

계간《多寶》는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합니다



계간 《多寶》는 창간호(1992. 3)부터 통권 16호(1995. 12)까지 4년간 발행된 집지를 4권으로 묶은 합본호를 보급합니다.

●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4호간) 20,000원
은행구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재) 대한불교진흥원
외환은행 189-13-02685-0 (재) 대한불교진흥원
우체국 012245-0090499-11 (재) 대한불교진흥원
농협 069-01-197161 (재) 대한불교진흥원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불교계의 주요 흐름을
읽으시려면
계간《多寶》를 보십시오

계간 多寶는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그 구체적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불교와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계간 多寶는 시론, 논단, 기획특집을 비롯하여
타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해외자료 및 주목받는
발굴자료 등 기획물이 풍부합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불자 여러분 곁에는
늘 多寶가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모시듯 선생님을 소중한 독자로 모시겠습니다.

• 발행 / 보급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 《多寶》
(전화) 02-719-1855 (FAX) 02-719-5052

지상법석

함께사는 세상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행하는 것은
보답이나 이름 알려지기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한 자비행 입니다"

이웃은 법계 영겁인연…더불어살면 절로 행복
富와 지식 사회 회향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삶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계층간의 극단적인 분열, 노(勞)와 사(使)간의 폭력적 대립, 좁힐 수 없는 빈부의 격차, 부녀자와 연소자에 대한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 취미의 통속화와 실직의 증대, 정신질환과 범죄증가, 노년기의 불안정, 산업재해, 주택 및 교통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산업발전의 대가로서는 너무 값비싼 것들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티트마스 교수는 산업화의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의 복지가 침해될 때 그러한 요인들을 '비복지(非福祉)'라고 칭하였으며 복지란 '개인과 사회가 받는 사회변동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는 산업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나 결함의 보상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란 항상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서구의 사회복지는 가진 사람 또는 국가의 자선사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자선 사업가들의 헌신적인 태도나 물질적 원조만으로는 산업화 과정이 결함과 파생되는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8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었고 국민생활의 기본적 의식욕구가 어느 정도 총족되었음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장에 기여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배분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위화감을 조장케한 일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라 함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서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보(布)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삶에게 베푸는 시(施)를 말합니다. 특히 보시는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삼는 보살행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행함은 이웃의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며, 모든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열반에 들어 유무(有無)를 단절하고자 함이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무엇보다 상(相)을 내지 않는 '무주상(無住相)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행함에 보답을 바라고 하지 않으며, 사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선명(善名)을 밖에 유포하기 위함도 아니며… 오로지 타인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며 자기의 연민심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시란 대가를 바라지도 상을 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현상중의 하나는 이 숭고한 보시마저 자신의 것들만을 위한 '복전(福田)'으로 삼거나 자신이 일상에서 저지른 업보에 대한 면죄부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쩍새 마을 사건을 지켜보면서 나는 커다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슬프게 했던 것은 사건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불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당장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은 장애인 원생들이었습니다. 비리를 제보하고 폭로한 언론사의 입장이야 당연히 일력의 비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원생들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게 하고자 함이었겠지만 오히려 결과는 그들을 더욱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 넣고야 만 것입니다.

당장 매달 들어오던 후원금이 뚝 끊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관청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잠잠했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고개를 드는가 하면 원생들의 손발이 되어 주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서 찾아와 떡도 주고 웃음도 나눠 주던 위로 방문 행렬도 어젯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당시 소쩍새 마을의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자 여러분께 한가지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쩍새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에 여러분들이 내는 후원금이 과연 자신의 진정한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권해서, 그냥 불쌍해 보여서, 스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혹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점을 그들에게 베품으로 해서 위안을 얻겠다는 마음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래 불자들의 보시행이 너무 재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후원금은 들어와도 실제 장애인들의 수발을 들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눈과 귀가 되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집착·탐욕 악순환에 갇혀
보살행 등한시하면
일만석 공양·일만번 절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재물없이 하는 일곱가지 보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보시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결에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불자로 나아가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안시(眼施)'인데 눈을 자비롭게 뜨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안열색시(和顔悅色施)'로서 얼굴을 평화롭게 하고 기쁨을 머금은 기색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찡그리는 얼굴을 지으면 그 자체만으로 남에게 해를주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지으면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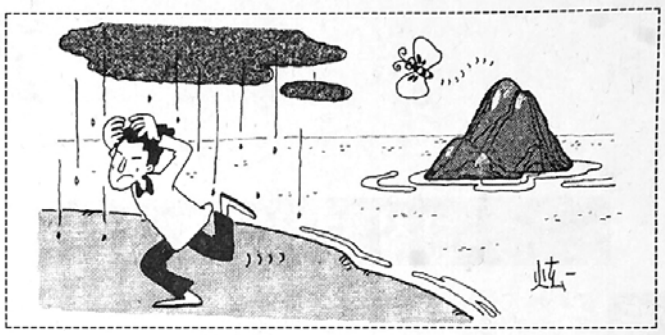
셋째는 '언사시(言辭施)'인데 말로 남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근심스런 말을 들으면 자기의 운명이 어두워질 것으로 믿고, 반대로 희망적이고 기쁜 말을 들으면 앞날이 희망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넷째는 '신시(身施)'이니 몸으로 하는 보시입니다. 다섯째는 '심시(心施)'로서 곧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잘살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 살아야 하며 남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나의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생존경쟁이 치열한 때일수록 남을 밟고 일어서기 보다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희생하는, 함께 살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심시가 있는 곳에는 다툼이나 시기, 질투, 열등의식 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는 '상좌시(上座施)'로서 말그대로 자리를 내어 주라는 뜻입니다. 즉 내것이고 내가 차지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고 함께 나누어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간혹 법회때 보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또는 지나가다 부딪쳤다고 해서 불자들끼리 법회중에도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보살행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방사시(房舍施)'로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에게 거처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富)를 세상을 향해 회향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없이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고 죽음이 있는 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계, 재물과 사랑은 끝이 없는 집착과 탐욕의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한 보시행의 보살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일만석의 공양미와 일만번의 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겐 또한 나누어 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주법계의 영겁인연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64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①

들어가는 말

언젠가 한 종교인이 불교의 윤회설과 연기설에 의문을 품고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지만 달 위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까?"라며 "돼지와 사람이 같다는 뜻입니까?"하고 질문을 던진적이 있다. 지진이 크게 나서 수십만이 죽어도 지진의 영향을 받는 곳만 받을 뿐인데, 달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지구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분명히 돼지와 사람은 다른 것인데 어떻게 다른 것끼리 서로 바뀔 수 있겠는가? 따라서 윤회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연기설은 적당히 가감해서 해석할 것이지 글자그대로 모든 것이 서로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을 이 질문은 담고 있다. 상식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한라산에 사는 나비 한마리의 날개짓이 몇개월 후 서울에 폭우를 몰고 내버렸을 것이다.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고 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성자 마호멧이 세상에 내려 왔을 때 아랍인들은 마호멧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단순 명쾌한 증거를 요구하였다. "네가 진정 신의 사도라면 저 달을 둘로 쪼개어 봐라.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너를 위해 저 달을 쪼개면 네 말을 믿겠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쟁이니까 이 칼로 네 목을 치겠다" 이에 절망한 마호멧이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신이여 어찌 하리이까"하고 괴로움을 호소했을 때 마호멧의 손을 따라 발하늘을 쳐다보던 사람들은 달이 둘로 갈라진 것을 보았다고 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마호멧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그뿐이지.

종교에 불교 도교 유교와 같은 깨달음의 종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같은 믿음의 종교가 있듯이 사물을 보고 진리를 찾는 방법에도 두가지가 있다. 깨달

불교 깨달음통해 진리 꿰뚫는 종교
관찰보다 직관중시 초과학적 세계

음을 통해 직관으로 진리를 꿰뚫어보는 방법과 세밀한 관찰과 검증을 통해 법칙을 찾아내고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다. 종교적 성자가 대개 전자의 방법을 취한다면 자연과학자는 주로 후자의 방법을 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뜻에서 자연과학은 아랍인의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콜리학은 날카로운 칼이다. 모든 자연현상, 천문학적 현상이든 과학적 현상이든 심지어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마저도 물질적인 것이라면 정확히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

필자소개



- 1968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 73년 서울대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
- 75~79년 와싱턴대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 과정이수(소립자 물리학이론)
- 79년 충남대학교 교수
- 87~88년 독일 홈볼트대 교환교수
- 94~95년 미국 브라운대 교환교수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제주지사	전화	064-55-9800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55-002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시는 불자님들께 그동안 이자임 결혼 연구원을 뜨겁게 성원해 주신 사랑에 보답드리는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96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본회비 20만원의 등록회비를 무료로 실시하고 사무실 전화요금과 상담비 명목으로 적은 비용으로 불자님 가정에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좋은 만남 될때까지 책임감있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성혼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주선하여 계속 추진해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초혼남녀 :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재혼남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통)

♥ 학력 :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고졸은 특별상담)
(여) - 고졸 · 대졸이상

♥ 연령 : 남녀 (23세~ 70세 까지)

■ 초재혼 : 여(국졸,중졸만 - 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분 : 정신장애, 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행복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특별상담)
- 여 : 학력 제한 없음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대학,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콜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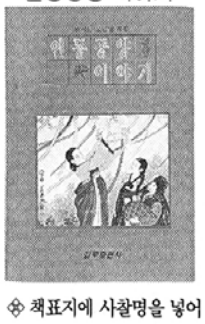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心)
농협온라인구좌 :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제1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 식순

제2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3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정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불 공양의 공덕
2. 등불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운거사의 등공양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암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 하시기 바랍니다.

※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 법보시자, 법회 안내 등을 추가로 할애, 인쇄하여 드립니다.
◎ 초파일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특가 / 1권당 1,300원
크기 / 신국판 × 64페이지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온라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 738-8682

고은 불교대하소설

다시 떠돌다가

두령의 어이없는 피살로 말미암아 그 강도집단은 불과 20명 미만이지만 그것마저 상삼오오로 갈라져야 하였다. 두령을 제거하면 바로 부두령 아래 대원들이 하나로 뭉쳐 알았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특히 두령이 맡고 있는 합두를 부두령이 맡으려 하는데 그때 불이를 담당한 사람이 "안됩니다. 이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됩니다"라고 외치며 합두를 불이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두령은 합두에 대한 아심 때문에 두령을 죽였던 셈인가. 몸론 그런 여색에 관련된 동기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두령은 강도집단 본부의 직속이어서 그의 임무에는 두령을 감시하는 일이 남몰래 주어진 것이다.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두령은 사실인즉 그들의 본부 세력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사막 일대의 여러 오아시스에서 별도의 인심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71

그들 오아시스 주민들과 그가 뜻을 합치면 강도집단의 본부는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판에 두령은 아름다운 합두를 포로라는 이름으로 매우 극진하게 예우하는 것'내 부두령의 속이 뒤집힌 것이 틀림없다. 처음에 두 손을 묶었던 것까지 풀어주었으며 두령과 합두는 차츰 오랜 사이처럼 정다운 말을 주고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간밤의 두령회의에서는 합두를 내보내지 않고 합석시키기까지 하였다.

"어찌 믿을 수 없는 계집을 우리 회합에 끼게 한단 말이오?"라는 그의 항의는 끝내 단검을 빼는 사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부두령은 내가 너희들을 거느린다고 가슴팍을 펴 위엄을 부렸으나 그때 불이의 담당인 사람과 그를 따르는 대원 7명이 부두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그들은 이 집단 가운데서도 정예였다. 그러므로 부두령은 당황하였다. 부두령의 그런 당황은 그에게 쏠리던 대원들을 서너패로 갈라서게 하였다.

"나는 남로(南路)로 돌아가겠소."

"우리는 여기에서 모래 속의 보물이나 뒤지겠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불이의 담당이 그때 외쳤다.

"여러분이 여기서 서로 갈라지면 여러분은 곧 해골이 될 수 밖에 없오. 하늘에는 이제 솔개가 있오. 우리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따르시오. 나는 두령의 뜻에 따라 본래의 목적지로 갈 것이오."

그러자 서너사람으로 한 패거리가 되어 그들끼리 오던 길로 낙타머리를 돌렸다가 "제기랄 묘고산(묘姑山)의 신인(神人)이 되지 못할 바에는 애당초의 길로 가는 것이 옳겠지…"라고 불이의 담당에게 가담하였다.

그래서 7명에 4명이 더하여 11명이 되자 나머지 두어 패거리도 여기에 기울어졌다.

"하하하 헛수고를 했어! 칼을 품었다고 칼을 마구 써서는 않되지. 안되구말구."

라고 어떤 마흔살짜리 대원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때 부두령이 단검을 뽑아 마흔살짜리에게 던지려하자 만화가 두손을 묶인채 그 부두령의 팔을 쳐 단검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몇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부두령을 포위하였다. 불이의 담당이 다가갔다.

"이 사람을 굳이 우리의 신성한 칼로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낙타만 데리고 떠나면 되겠지… 이런 천당을 독차지하고 있도록 남겨두고 말이야."

이 말은 명령이나 다름 없었다. 불이의 담당은 그때서야 세사람의 포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라도 하는 것처럼 이름을 밝혔다.

"내 스물다섯개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알려주겠오. 도리(忉利)라 하오."

그러자 마흔살짜리가 "도리 두령!"하고 불렀다. 나머지 대원들도 뒤이어 "도리 두령!"을 외쳤다. 이렇게 되자 새 두령은 불이를 태우고 왔던 불교와 함께 해박한 담당이 된 것이다.

이름이 스물다섯개나 된다는 것은 수미산의 우주안을 이루고 있는 남섬부주 동승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 지옥축생 아귀 수라 사천왕 그리고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범왕천 무상천 나한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등을 아우르는 뜻인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들은 부두령을 그가 먹을 3일분의 물과 전병만을 주어서 사막 한 가운데 남겨두었다. 부두령은 이제까지의 장부다운 기상이나 누구보다 강렬한 사선을 가진 의지 따위를 다 내버린채 굵은 눈물 방울을 뚝뚝 떨구고 있다가 고개를 떨군채 주저앉은 그대로 움직일줄 몰랐다.

떠나는 대원 하나가 외쳤다.

"살려 달라고 애원해 보시지!"

그러나 부두령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사막의 어딘가에 몸헤있는 화석이나 해골 그리고 옛 유적 따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그를 남겨두고 떠난 강도집단의 대원들은 낙타들의 굶은 걸음걸이에도 불구하고 사막의 신기루로 지평선 위에 명료하게 나타나는 바다 위의 여러 섬이 잘 보일 수 있는 거리까지 나아갔다.

한 걸음이 만리의 시작 아니던가.

이제 만화 합두 불이는 다같이 포박에서 풀려 손발이 자유로웠다. 합두에게는 부두령이 타던 성능 좋은 낙타를 타게 하였다. 나머지 두 사람도 짐 실은 낙타의 짐을 나누어 싣는 대신 만화와 불이도 낙타를 배당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사람도 자연스럽게 그 북이한 사막의 강도집단에 편입된 셈이었다. 아니 이 집단의 대원들도 거의 이렇게 시작한 것이다.

역시 마흔살짜리가 걸쭉걸쭉 말을 함으로써 바람이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수상한 고요로 차있는 사막의 행렬에 안정을 유지시켜 주었다.

"아! 이 사막을 건너가면 물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이 귀하게 되겠지… 술이 귀한 것 이상으로 술잔이 귀하게 되겠지… 서돌궐(西突厥) 포도주보다 그 포도주를 담을 술잔말이지… 기련산(祈連山)의 백옥(白玉)중에는 노산옥(老山玉) 신산옥(新山玉) 하류옥(河流玉)의 그 투명한 옥으로 만든 술잔이 있어 이 놈으로 한잔 저놈으로 한잔 마시다가 낮과 밤을 알 수 없게 되고 말지… 아 술이 귀하게 되겠지…."

"언제 영감이 그렇게 호강해보았단 말이오? 공연히 들은 풍월로 허풍치지 마시오."

"무엇이? 허풍이라고? 말 위에서 뜯는 비파 잔 비우기를 재촉하네(欲催琵琶馬上催)… 이런 경지를 자네가 알리 없겠지… 어디 그런인가… 취하여 모래밭에 쓰러져도 그대 웃지 말게(醉臥沙場君莫笑)… 옛부터 싸움터에 나간 뒤 몇이나 돌아왔던가(古來征戰幾人回)…."

"어이쿠, 풍월 읊기로는 저 양주사(涼州詞)를 지은 목객을 따를수 없겠네… 그런데 말 위의 술은커녕 낙타 모는 도둑이 되었으니 그 신세가 가관이로다."

"에끼… 네 놈의 신세가 가관이로다."

"하하."

"하하하"

이렇게 가는 판인데 다시 사나운 바람이 몰려오는 것이었다. 모래바람은 아무리 인간들이 제 땅이라고 다니는 일에 대한 회피할 수 없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자연의 폭력 자체를 보여주는 것인지 모른다.

그들의 낙타행렬은 마치 모래를 뒤집어 쓴 것처럼 모래바람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새로 이루어지는 사구에 그들이 송두리채 매몰되어버릴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열은 움직이기를 멈추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붙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늬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절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열이 움짝달싹하지 않은 채 멈추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붙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늬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절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대열이 움짝달싹하지 않은 채 멈추고 철저한 수동(受動)의 자세로 모래바람을 맞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낙타 위에서도 말 한 마디 나올 줄 몰랐다. 숨도 제대로 내쉴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런 극한적인 모래바람 속에서 말이나 문자 따위는 방금까지 그들에게 붙어있었다가 그 어디에도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불이는 이런 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도량이라고 여겨졌다. 그들의 순정적이기까지 했던 사바세계 무늬도 도량에서 누릴 수 없었던 처절한 도량이 바로 이곳임을 이곳의 이 놀라운 절대절명의 모래바람 가운데서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다. 과연 큰 충격은 전생의 일까지 확연하게 비추어주는 힘을 과시하였다. 그것은 마치 규모가 큰 번개가 캄캄한 먹구름 장 밑의 세상을 한 순간을 통해서 하얗게 드러내는 것과도 같았다.



새두령의 강도집단에 소속된 만화 합두 불이는 다같이 포박에서 풀려 손발이 자유로웠다 합두에게는 부두령이 타던 성능좋은 낙타를 타게 하였고 만화와 불이도 낙타를 배당받았다

불이에게 극한의 모래바람 속은 도량이었다…불현듯 전생이 확연해졌다

사구가 약 1백미터 높이 직경 3백미터 짜리로 생겨나서 모래바람이 일기 전까지 내다보였던 앞이 꽉 막혀버렸다.

이번에는 만화가 아주 갑에 질린 악한 짐승이 맹수 앞에서 아주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는 것처럼 뒤를 돌아다 보았다.

"으음!"

바로 그들 강도집단의 뒤에도 앞에 만들어져 있는 사구보다 더 큰 것으로 이제까지 왔던 곳을 알아볼 수 없게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다행하게도 그들은 앞과 뒤의 사구 사이에 안전하게 보존된 셈이었다. 하지만 그런 다행도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새로운 사구에 의해서 불행으로 바뀌어질지 모른다.

"음!"

만화는 입 속의 신음을 뱉아냈다. 그러자 그의 입 속은 벌써 모래가 반줌이나 스며들어갔다. 그것을 뱉아냈다. 그렇게 입을 열고 모래를 뱉아내는 순간 모래가 다시 그 입속으로 들어갔다.

만화의 옆에 있던 짐은 대원이 만화의 등짝을 탁 쳤다. 붉은 천으로 얼굴을 거의 가린 것 자체가 이 사막에서의 두려운 대상을 과시하는 강도로서의 협박도 뜻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같은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지책이기도 하였다.

얼마나 지나갔을까. 낙타는 숫제 짐만 싣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다른 낙타도 그렇게 앉아있었다.

낙타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았다. 시간과 공간 따위에는 이미 오래전에 절망해버린 나머지 그것들에게 한오라기의 집착도 하지 않는데서 오는 그런 둔탁한 체념뿐이었다.

얼마나 지나갔을까.

문득 사나운 모래바람이 힘을 갑자기 줄였다. 얼굴에 쏟아대는 모래의 힘이 한결 약해진 것이다.

불이가 탄 낙타가 울음소리를 냈다.

"모래의 신께서 지나가셨도다!"라고 누군가가 말하였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인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취도와 벗지 않은 내용은 게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응양오행 건강 지압법
강심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 (02)279-2715 팩스 : (02)275-3739

조립식 건물(주택)
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건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 · 아스팔트 · 쉉글
전화 (053) 742 - 7855
051 - 717 - 7792
011 - 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연꽃 일어화 기다(병풍, 액자, 족자용)
거송 동양화 화실
거송 철학원(운명 조언)
서울시 용산구 청파 1가동 140 - 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진품 바락 맞춘 대주나무(도장, 부적재료) 진품 식별법 및 진품 공개!!

명당자리 당대에 금시 발복지로서 사찰 · 사암에 적지임
용산면 부동리 주변의 산세는 청룡이 구비치고 청룡 백호와 현무주작이 일시에 호응하여 금방이라도 발복할 듯이 기세를 만들었고 약수는 석반 약 80M 지하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신선의 대도량으로 기도처 및 수련원으로 적합
주소 :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동리 423번지
대지 : 414평, 건평 60평(청기와 양옥집)
가격 : 약 8천만원 (협상 가능함)
연락처 서울 02-821-6622 주인 직접

권대승생활불교강좌권
제 3기 개강 4월 15일
1. 새불의식, 새불공 올바른 구별시식 등
2. 풍수지리, 주택 건물 감정, 묘지 쓰는 법
3. 5순 6기 사주학, 정생궁합운세, 길흉법
4. 묵운동 심신 수련(월~금 오전 6:30~7:40)
• 강좌기간 : 각반 3개월 선착순 30명
수강대상 : 불교지도자로 활동하실 분 취미나 전공하실 분, 스님 등
강좌시간 : 금, 토요일(4시반, 7시반~9시)
• 위 치 : 서초 3동 1552-10 서초역에서 2분 (변호사 회관 - 홍부네 슈퍼 - 정우 이발관 뒤)
신청상담 및 최근한 문제감정
대한불교 대승종 종무원 포교회관 內
접수문의 02)523 - 0241, 0243

신비의 신라 범종 개발
창업 8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일러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주조소 및 연락주소지
聖鐘社 대표 元光植(현나)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당 · 경장
• 제월사대웅전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좌 목선탑
• 충청불일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양산법룡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아산보문사 대웅전 수미단 용좌
• 포천약장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백림사 목탁 종도 그외 다수 시공
대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6
호 출 012-210-1401
趙貪玉 합장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따로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입회(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학은회(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진원졸업목표 ➡(영 · 수)「비디오7명교사」 현별제공 (선착45명)
불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다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짐을 가고가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산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혜운빌딩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PC불교통신으로 백년가약"

'구리님과 들꽃님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온라인 메시지가 연일 게시판에 등장한 후 지난 16일 있었던 결혼식장의 현장스케치가 여울이에 의해 올라왔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설악산 일대의 사찰로 신혼여행을 떠난 동안에는 온갖 부러움과 상상의 메시지들이 등장했고 여행을 잘 다녀왔다는 신혼부부의 경과보고와 축하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인사말을 끝으로 천리안 불교동호회 제1호 커플탄생의 막이 내렸다.



◇ 지난 16일 천리안불교동호회 회원으로 화촉을 밝힌 여성혁씨와 정진희씨가 동호회 회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부케를 던지고 있다.

신행활동 함께하며 건전한 불자가정 꾸며

여성혁·정진희 커플등 세쌍 탄생…예비쌍도 다수

이것은 천리안 불교동호회 작년 부시삽으로 활동했던 여성혁(일명 구리) 씨와 회원 정진희(일명 들꽃)씨가 천불동 불교동호회 활동을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어 대표시삽 박수호(여울)씨의 사회로 여러 불교동호회 회원과 하객들의 축하로 결혼하게 된 경과이다.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 PC통신을 통한 불교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컴퓨터가 신세대 첨단 포교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동호회활동을 통해 부부의 인연을 맺어 불자가정을 이루는 커플이 늘어가고 있다.

컴퓨터 불교동호회 회원으로 처음으로 첫 웨딩마치를 올린 쌍은 지난 93년 초대 하이텔 불교동호회 대표시삽이었던 서동호씨와 정선희씨 부부. 그후 작년에는 지역모임 갓바위의 운영을 맡고 있던 유치호씨와 김옥란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 범현스님을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PC통신을 통한 이들 커플들은 대부분 대화방을 이용, 그들의 생각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면서 친해지다가 전국모임이나 정기모임에서 상상만 해왔던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게된다.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전자메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고 같은 소모임활동을 해나가기도 한다. 천불동 제1호 부부 정진희씨는 "불교에 관심은 많았으나 직접 사찰에 찾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 불교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동호회 활동은 생활속에서 불교를 느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심자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늦은 밤 한글자 한글자 화면에 떠오르는 문자를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의 전달은 새로운 경험이며 상대방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것이 PC를 통한 데이트가 갖는 매력이라고 말했다. 또 회원들의 결혼식날은 따로 일정을 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한명 한명 모이게 되고 서로 얼굴도 모른채 대화만 나눠왔던 회원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이렇듯 첨단매체를 적극 이용 활용하는 이들 커플들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불교동호회에서 인연을 맺은 커플이 아니더라도 일반 PC대화방에서 만나 상대방을 불교동호회에 가입시키기도 하고 신행활동에 소극적인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끌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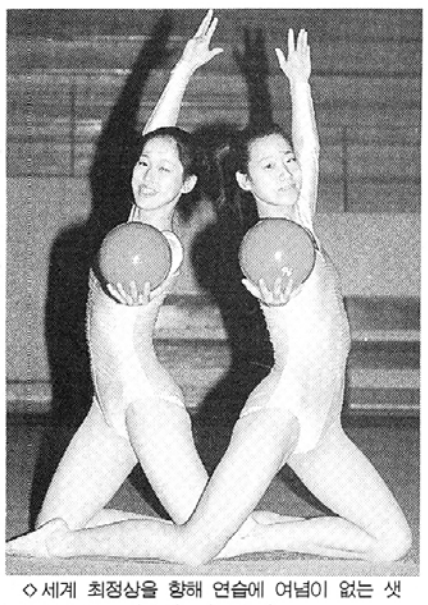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회원들 사이에도 두세쌍 정도 결혼이 진행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 대표시삽을 맡고 있는 오상룡(상주대학교 교수)씨는 동호회 회원들간의 커플탄생은 운영진측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일로써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고 글로써 서로 교감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불자가정을 이룰수 있다"며 "회원들의 건전한 만남과 사귐으로 동호회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수미 기자

"우아한 율동 맑은 불심에서"

리듬체조 샛별 진선여고 백자영 · 강보영 양



◇ 세계 최정상을 향해 연습에 여념이 없는 샛별스타 백지영(왼쪽), 강보영 양.

"때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 일단 음악이 시작되면 모든걸 잊게됩니다."

곱고 해맑은 얼굴만큼이나 고운 심성을 지닌 백자영 강보영양(이하 진선여고 1년)이 최근 한국리듬체조계의 샛별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해 진각종립 진선여고에 나란히 입학한 이들은 오는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96세계리듬체조선수권대회 단체선발전에서도 똑같이 선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두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리본과 볼을 이용 뛰어오르기, 제자리돌기, 도움짚기 등 하나하나의 완벽한 동작과 호흡맞추기를 위해 하루 7시간의 반복된 강훈을 말없이 이겨내고 있다. 1분에서 1분 3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음악의 템포에 따라 유연하고 힘있는 몸짓을 쉼없이 연출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균형을 유지하는 연기를 펼쳐야하는 만큼 체조선수에게 있어 세밀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두 선수는 힘든 훈련이 반복되는 요즘 교내법당을 찾아 명상에 잠기곤 한다. 그래서인지 휴식시간이나 운동후에도 항상 명상에 잠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조용한 법당에서 명상을 하면 새로운 동작 연출과 집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일단 체조복을 입으면 눈에 불꽃을 튀기는 라이벌이지만 평소에는 둘도 없는 단짝이다 "보영이는요. 몸이 저보다 부드러워서 유연성이 뛰어나고 밸런스도 좋아요." "자영이는 연기에 힘이 있어요. 점프력이 좋고 표현력이 저보다 월등해요." 평상복을 갈아입고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훈련 틈틈이 교내법당 찾아 명상잠겨
"6월 세계대회서 좋은 성적 얻어야죠"

보통의 여학생으로 돌아오면 서로를 아끼고 칭찬해 주기 바쁘다.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박희순 국가대표코치는 "아직 어린 나이라 성숙미가 다소 떨어지지만 유연하고 순발력과 힘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한국의 리듬체조를 짊어질 기둥들이다"고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1백여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선수권대회의 영광을 그리며 법당을 찾는 이들의 얼굴에서 환한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엿볼 수 있다.

김중근 기자

만화 法句經

* 올바름의 장 *
질투와 인색과
간교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이 향 원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짐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행 잔고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비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험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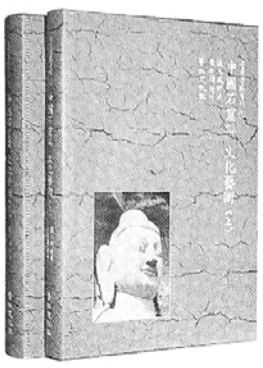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중국 불교석굴 "책으로 답사"

화보·해설 수록 1300년 중국조각 흐름 '한눈에'

철저한 고증통해 정리…불교미술사 이해 '도움'

운강 용문 등 중국의 대표적인 석굴을 비롯해 이제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18개 성(省) 140여 곳의 석굴과 마애조상을 망라한 본격적인 중국 석굴 연구서가 용인대 배진달 교수에 의해 번역됐다.

중국 용문석굴연구소 온옥성(溫玉成)교수가 중국석굴에 담긴 불교사상과 조각미·문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석굴과 문화예술(中國石窟與文化藝術)〉(경인문화사 刊) 상(하설)·하권(도판)은 그간 국내에 화보집 형태로 소개된 중국석굴을 학술적인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어 불교미술사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석굴 연구에 새 지평을 연 저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책은 아직 초보적인 연구 단계에 있는 국내 석굴 연구자들은 물론 불교미술관련 학자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불교석굴은 3세기부터 16세기까지 1천3백여 년에 걸쳐 조성되어, 불교사회 조각 건축 복식 등 모든 분야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

이 책은 또한 그간 중·소형 석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자가 출간되지 않아 대규모 석굴군과의 연계성 및 대형 석굴군과의 연계성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에서 나와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중국의 가장 서북쪽에 있는 최성 대서구(大西溝)석굴, 서남쪽에 있는 강파 창룡(昌龍)석굴, 동북쪽에 있는 창무(彰武)석굴, 남쪽에 있는 의산 백룡동(白龍洞)석굴과 내몽고 백안고(百眼窯) 등 상당수 석굴은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석굴들이다.

저자는 가능한 많은 내용을 수록한다는 이같은 입장에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참조, 실제답사를 통한 확인작업으로 내용에 충실을 기했다. 또한 석굴사원을 지역별, 시대별로 정리해 불교조각의 내용과 의미, 역사적 배경 등을 풍부하게 담았다. 30여년간의 연구경험을 쌓은 불교고고학자인 저자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석굴의 조형적인 면은 물론, 다양한 석굴예술에 반영되어 있는 종교 사상 예술 및 민속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

이밖에 원저의 도판과 함께 배진달교수가 보완한 4백33점의 생생한 칼라 도판과 부록인 '중국석굴 연대표', '중국불교조각사 연구논저 목록'도 눈길을 끈다. 특히 원저에 없는 주제·시대·인물별 '논저목록'은 중국 불교조각 연구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홍익대 김리나교수(미술사학과)는 이 책에 대해 "중국 석굴조각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한국의 불교미술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 입문서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재경 기자



◇ 중국 감숙성 천수(天水) 맥적산(麥積山)석굴 4호굴 제7감 정벽 및 우벽의 불좌상, 제자상, 보살상.

"한자한자 원뜻 살리려 노력"

'아비달마순정리론' 첫 번역 명성스님

"〈아비달마순정리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연구가 없으면서 감히 번역에 손을 대어 부끄럽지만 한자한자에 담긴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눈밝은 분들의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최근 〈아비달마순정리론(順正理論)〉(동국역경원 刊)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 운문승가대학장 명성스님(운문사 주지·66)은 "까다롭고 어려운 논서의 번역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고 말한다.

전 80권 2만5천송(頌), 80만언(言)으로 구성된 방대한 〈순정리론〉의 20권 분량을 1차로 번역, 한글대장경 제178권으로 펴낸 스님은 올해 안에 22권을 더 번역해 출간할 예정이다.

〈순정리론〉은 〈아비달마구사론(俱舍論)〉의 학설을 반박한 것으로 북인도 가습미라국 중현(衆賢)이 지었고 당 고종 영휘 5년(654)에 현장이 번역했다. 불멸 후 9백년 경 건타라국에 출생,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 출가한 세친(世親)이 〈대비바사론〉의 깊은 뜻을 요달하고 〈아비달마구사론〉을 지은데 대해 중현논사가 〈구사박론(俱舍論)〉 2만5천송을 지어 구사론을 반박한 것이 바로 〈순정리론〉이다.

명성스님은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선암사, 서울 청룡사, 청도 운문사 강원의 강사를 거쳐 운문승가대 학장을 맡으며 강의와 역경, 사찰 경영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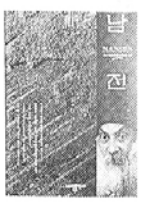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三譯起信論(우진스님 편집)=진제스님과 실라난타(實叉難陀)스님이 번역한 〈기신론(起信論)〉과, 진제스님의 번역본을 하께다(Yoshito S. Hakeda)씨가 영역해 콜롬비아대 출판부에서 발행한 영역본을 함께 실었다. 승가대학(강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목판본 〈해동소(疏)〉를 부록으로 담았다.

〈부다가야 1만5백원〉

▲몽산법어(현담 편역)=중국 평강(平江) 휴휴암(休休庵)에 머물던 원말(元末)의 고승 몽산(蒙山)화상의 법어를 해석했다. 고려 보제존자 나옹 혜근(懶翁慧勤)의 〈시각오선인(示覺悟禪人)법어〉등 5편의 글을 부록으로 실었다.

〈수선출판사 5천원〉

▲길 위에서 길을 묻다(심석구 저)=명찰에 남아있는 고승의 향취와 정감어린 이야기를 찾아가는 이색적인 답사기. 소설형식을 적절히 가미해 더욱 흥미를 더한다.

〈태일 5천5백원〉

▲살아있는 인도의 영혼을 찾아서(박지명 저)=인도와 히말라야에 대한 정확한 안내서인 동시에 인도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있는 실질적인 명상과 수행의 지침서. 인도의 여러 성지와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성자들에 대한 얘기를 동서남북으로 나눠 썼다. 수행자들의 초월적인 영감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가르침도 실었다.

〈깨침의 소리 8천원〉

▲남전(라즈니쉬 저·손민규 역)=사팀을 쓰고 소를 치며,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며 선풍을 떨친 남전 보원(南泉普願; 748~834)의 법어를 쉽게 강의했다.

〈태일 5천5백원〉

출판소식

설일체유부 계율서 3권 번역

부파불교의 일파인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의 계율을 엿볼 수 있는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 外〉와 〈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목득가 外〉 〈근본살바다부율섭 外〉 등 3권이 한글대장경 제187권, 189권, 190권으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에서 번역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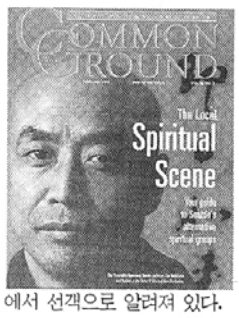
〈근본설일체유부필추니비나야〉는 비구니들이 출가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근본설일체유부니타나목득가〉는 부처님이 계율을 설하게 된 인연과 한 일을 설명하고 있다.

80권 화엄변상도 'CD 한장에'

도서출판 열린불교(대표 이영근)는 최근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80권본 〈대방광불화엄경〉의 변상도(전 80장)를 1장의 CD에 담아 보급하기로 했다.

열린불교는 이 CD를 자체 디자인 자료로 활용키 위해 개발했으나 모든 디자인 업체나 출판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10만원에 보급하고 있다. (02)739-0108

육조사 주지 현웅스님 美 명상잡지 표지모델



美 캘리포니아 육조사(미국, 버클리)주지 현웅스님이 명상 전문잡지 〈Common Ground of Puget Sound〉 96년 2월호에 표지모델로 실려 화제가 되고 있다.

현웅스님은 지난 4년간 버클리대를 중심으로한 참선지도등 포교활동으로 미국사회에서 선객으로 알려져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기저·편자	출판사
1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냄
2	기도	일타	효림
3	능엄경 주해	운허	동국역경원
4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5	연선도인	백운	우리출판사
6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비	민족사
7	업보	혜범	밀알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화
9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타	효림
10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최병용	고려원미디어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불교학개론 강의실 J301

윤 창 화 〈민족사 대표〉

현대의 그 어떤 책도 고전이 갖고 있는 간결하고 그윽한 맛을 뛰어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나온 책도 때론 고전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대적 사고를 반영하며 미래를 지향하는 뜻밖의 책도 있다.

장휘옥(章輝玉) 선생의 〈불교학개론 강의실 J301〉. 필자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은 이 책이 출판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조금만 관심있어도 습관적으로 책을 사야 하는 직업적인 버릇도 있었지만, 우선은 저자에 대한 평소의 관심 때문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 불교와는 거리가 먼 부산대 화학과 출신이었다. 그후 동국대 불교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석사과정을 거쳐 일본으로 유학,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을 때, 출판을 하는 나로서는 저자의 학문세계에 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가졌었다. 이책이 출판된 것은 아마 저자가 귀국한지 3년쯤 되었을까.

그런데 사실 이 책이 나왔을때 불교학계에서는 대체로 달갑지 않은 시각이었다. "학자가 논문은 쓰지않고 좀 벌스러운 스타일의 개론서를 썼다"는 것과 그리고 그 벌스러운 스타일이 '조금은 비위에 거슬리는 듯한 느낌이 부가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필자는 추측한다. 필자 역시 이 핑계 저 핑계로 독파하기를 미루다가 지난해 봄 어느날 저녁 이 책을 읽었을 때, 뜻밖에도 저자의 해박하고도 맹쾌한 해석에 새벽까지 이 책을 읽었던 일은 나로서는 참으로 희귀한 일의 하나였다.

이 책은 불교 입문서로서 대학 교양학부 학생들에게 강의한 것을 그대로 정리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퍽 현장감이 있는 반면 체계적으로 서술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 책에 대하여 역설하는 까닭은,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몇가지의 특성-최소한 현재까지는-때문이다.

첫째 이 책은 한자화 된 난해한 불교용어-때론 심오하고도 포괄적이긴 하지만-를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저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최소한은 원래부터 불교와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어느정도는 생이지지(生而知之)한 것이 아닐까' 하는, 즉 나와는 먼거리에 있다고 느껴왔던 불교를 누구나 연구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심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자 자신도 원래는 불교와는 거리가 먼 화학과 출신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불교는 웬지 생소하고 난해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저자 자신에 대한 자기 이야기와 불교를 공부하게 된 동기를 사이사이에 설명하여 지루한 감 없이 '다음 장을 넘기면 또 어떤 말이 나올까' 몹시 궁금해진다는 것이다. 불교교리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그렇게 해석하는 저 선생은 누굴까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이책을 손에 놓지 않고 끝까지 읽게 만들고 있다.

불교교리 쉽고 명쾌한 해석

강의노트 정리 '현장감 생생'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석불 이야기 그 첫번째

10여여년간 남산의 돌부처 찾기로 세월을 보낸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남산 돌부처 순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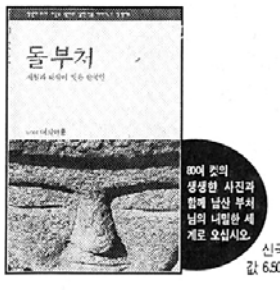
'세월과 바람이 빚은 한국인'

돌 부 처



남산의 한 골짜기에서 홀연히 맞닥뜨린 돌부처의 미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친숙한 얼굴
돌부처.
때로는 근심어린 얼굴로
때로는 잔잔한 미소로,
세상사에 찌든 채
자신조차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알 수 없는 편안함으로 다가서는 돌부처.
돌연 마음 밑바닥까지 투명해짐을 느낄 때
천년의 세월은
지금 이 순간으로 우리 앞에 다가 온다.



신국판 256쪽
값 6,500원

출판사 여시아문 전화 : 737 - 8881



정신과 의사 이근후 박사의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

경주남산 석불 이야기 '돌부처'의 모태가 된 남산 석불이 경주와 울산으로 갑니다.

지난 해 12월에 열렸던(서울 세종문화회관 제 3전시실) 「아, 그 미소, 구원의 미소여!」 경주 남산 석불 사진전에서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보여 주셨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경주와 울산에서 각각 7일간 전시회를 엽니다. 와서 보시고 우리 문화의 숨결을 느끼십시오.

■ 전시일정

경 주
▶ '96 3월 22일 ~ 3월 28일 경주 현대 호텔 특별 전시실

울 산
▶ '96 3월 29일 ~ 4월 4일 울산 한마음 회관

*현지 전시실에서 '돌부처'를 특별 판매합니다.


◇지원스님


◇지범스님


◇진송남씨


◇김태곤씨

"대중가슴 적시는 불음가요"

누구나 따라 부르며 자연스럽게 불교사상 심취

지원스님 남국인 진송남씨 '큰사랑' 곧 발표
김태곤씨 경쾌한 멜로디 '야단법석…' 준비

수덕사의 여승, 송학사, 타타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님이시여, 탁발승의 노래….

이 곡들은 크게 히트한 노래이면서 아직도 사람들 입에 불려지고 있는 불교 소재의 대중가요. 불교를 널리 대중에 포교하기 위한 여러 방편중 노래만큼 광범위하게, 또 쉽게 대중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방편도 드물다. '찬불가' 하면 엄숙하고 재미가 적으며, 불자들만이 부르는 노래라는 선입견이 있다. 이러한 선입견을 배제시키고 보다 대중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편으로 불교 대중가요, 즉 불음가요의 확산을 꼽는다.

"현대는 매스컴시대입니다. 우리 불교계에도 불교방송 불교TV가 있고 현재 각 민방과 30여개의 케이블TV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중 하나가 불음가요의 보급입니다."

'큰사랑'이란 타이틀로 이달 중순 불음가요 CD와 테이프를 낼 예정인 지원스님(삼보사 주지). '효'를 주제로 해 스님이 직접 작사했고 '신사동 그사람' '비내리는 영동교' 등 트로트 가요의 황제로 불리는 작곡가 남국인씨가 작곡을, 불자 가수 진송남씨가 노래를 맡았다. 지원스님은 모든것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현대에 있어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만큼 실효있고 호응이 좋은 방편도 드물다는 생각으로 불음가요를 준비하고 있다.

김태곤씨도 이달말 '나무석가모니불' 등 기존에 크게 호응을 받은 곡과 신곡 등을 합쳐 '야단법석 불음가요' 카세트 테이프를 낸다. 운전하면서도 흥얼거릴수 있고 손뼉치면서도 부를 수 있는 가요를 통해서 부처님말씀을 대중에 전파하고자 한다는 김씨는 "불음가요를 통해 불교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가 불교사상을 전파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여러번 느꼈다"고 말한다.

지난해 다섯번째 찬불가요집을 선보인 지범스님(제주 극락사 주지)은 요즘도 각 법회등 행사장에서 기타를 치며 불음가요를 부른다. "장시간 법문이 신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3분 불음가요에 압축된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는 스님은 "인간의 불성을 자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진정한 불음가요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심진·도신 스님 등 노래로 포교하는 스님들이 국악과 접목된 불음가요 음반을 내며 일반인들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좁혀놓으며 불음가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불음보급회'를 통해 불교음악을 확산시킨 조영근씨, 가사를 바꾼 '노래가사 바꿔부르기'를 유행시킨 송춘희법사 등도 불음가요 확산의 공로자이다.

음미할수록 생각케 하는 불교사상이 담긴 가사, 쉽게 안 잊혀지는 좋은 멜로디 등을 갖춘 불음가요가 크게 히트해 '일등 포교사'가 될 날은 언제일까.

이경숙 기자

수안스님 선서화 '자비나들이'

대만서 장애어린이돕기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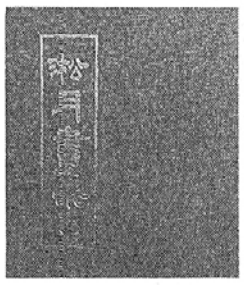
각 불사 및 불우이웃을 위한 기금마련전에 작품을 쾌척해온 수안스님(통도사 축서암 주지)이 바다를 건너 자비행을 넓힌다.

대만 신체장애자 어린이를 위한 수안스님 초청특별전이 오는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타이페이시 태평양기금회관에서 개최된다. 문수·보현 동자, 소나무, 학 등 십장생을 주요소재로 한 이번 전시에는 스님의 선서화 50여 작품이 전시된다.

수안스님은 "세계적으로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동양화 특히 선화에 대한 관심 또한 대단하다"며 "한점 한점 기도로 그려진 작품들이 대만의 신체장애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수안스님

송월스님 서화수행 40년 칠순기념 작품집 출간


40여년을 서화로써 수행의 방편을 삼아온 송월스님(해인사)이 칠순기념 서화집을 펴냈다. 글씨와 사군자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스님은 그간 개인전 9회, 한국서화가협회전 등 각종 초대전 등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미국 샌프라시스코 아시아 박물관에 서화 2점을 기증하기도 했다. 〈송월서화집〉은 상권은 각 휘호 및 현액서를 모은 서집(書集), 하권은 사군자 연꽃 달마등 그림을 모은 화집(畵集)이다. 이번 서화집은 스님의 수십년간 정진해온 수행의 결정체라 할 만큼 평생의 대표작들을 모았다.

불심시심 〈48〉

어느 산으로 가나

運水搬柴久 (운수반시구)	물 긷고 나무하기 오래였으니
勞筋苦骨頻 (노근고골빈)	괴로운 근육 뼈마다 쑤시겠지
砧傭經一朧 (침용경일랍)	방아찧기로 지낸 한 해이고
柴役過三春 (시역과삼춘)	마굿간 청소도 세 해 봄이었지
此夕還辭我 (차석환사아)	오늘 밤 나와 이별하고서
何山欲訪人 (하산욕방인)	어느 산에 누구를 찾아 가나
途中善爲去 (도중선위거)	나그네길 조심조심 가거라
臨別倍傷心 (임별배상심)	이별에 다다라 갑절되는 상심

위 시는 백곡선사께서 해심(海心)이라는 사미승에게 준 시이다. 3~4년을 같이 있다가 떠나가는가 보다. 선사를 모시면서 사미승으로서의 궂은 일을 다해왔던 처지였던 것 같다. 일상생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먹거리를 장만하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쉽게 여기고 꺼려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상사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갖 출가한 사미승에게 수련과정으로 맡겨지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이 사미승도 이러한 일상사를 익힘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수행을 쌓았다.

그런데 오늘 다른 수도장으로 가려고 떠난다. 정든 노스님은 보내기가 매우 섭섭한 것이다. 떠나보내려 하니 그동안 노고스러웠던 일이 안타까이 여겨지는 것이다. 스승으로서의 심정이 아니라 어버이로서 자식을 떠나 보내는 안타까움이다. 물 길어오고 나무해 나르기가 이상의 삶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직책으로 맡겨지면 그 또한 고역이다. 그 일을 해 내느라 너의 근육이나 뼈마디가 얼마나 고단했겠느냐고 안타까이 여기는 스승의 자상함이다.

어찌 그것뿐이랴. 먹거리를 장만하느라 방아찧기에 어깨는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 고된 일도 한 해를 견뎌내었구나. 그뿐이랴. 마굿간의 궂은 일도 너의 몫이지 않았느냐, 이 모든 괴로운 일을 용하게도 참아냈거늘 이제 왜 어디로 가려하느냐. 떠나보내려는 이 순간 그저 마음이 상할 뿐이다. 끝 구에서 배나 상하는 마음이라 표현해 전편에 배어 있는 애정을 한 말로 다하고 있다.

이 시는 이별을 둔 사제간의 정을 담담하게 표현한 깔끔한 시이다. 함께 있었던 몇해의 일을 열거하는 수법이지만 그 자체로 두 사람의 정이 흠뻑 배어 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물 긷고 나무하는 것이 일상의 선이라 하듯이 이 시는 이러한 면에서 일상의 선을 노래했다 할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지난해 5월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개최된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모습.

"동심에 비친 부처님세계는…"

5월5일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대회'
월간 '불광' 주최 … 목아불교박물관서

어린이날과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전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가 펼쳐진다. 오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개최될 그림대회는 올해가 두번째로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와 인솔교사, 부모등 1천 5백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이 보는 부처님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어린이들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부처님을 새겨준다는 취지에서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대상 금상 은상 특별상 등 푸짐한 상이 마련된다. 또한 당일 대회 후에는 부모와 자녀 지도교사 등 참가자 전체가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사물놀이, 목아불교박물관장 박찬수씨의 작품시현, 불자만화가 이정문씨의 사인회, 영화상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전국적인 불교 어린이 행사가 드문 교계현실에서 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포교와 어린이들의 미술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회 대회때 참가했지만 임상못해 아쉬웠다는 박정인양(서울 중평초등학교 3년)은 "절에 갈 때마다 부처님을 유심히 살펴 보게 되고 그동안 그림연습을 많이 해왔다"며 "올해도 꼭 그리기대회에 참가해 부처님 모습을 잘 그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가문의 (02)420-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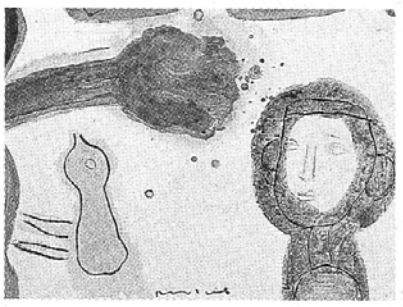
문화소식

최규일 전각·도각전

전각가 최규일씨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전시장에서 열 한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각작품뿐 아니라 최규일씨가 직접 전시장에서 전각과 도각 그리고 묵(墨)드로잉의 작업실현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는다.

이목일 기획초대전

꽃, 새, 해, 달, 동물, 물고기 등 한국적인 풍토성을 바탕으로 '향수'와 '그리움'을 형상화해온 이목일씨가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기획초대전을 갖고 있다. 오는 6일까지 갖는 초대전에는 '야반삼경'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제와 같다' 등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사랑 정 그리움 순수성 등 우리주변에서 잊혀져가는 여러가지 기억들을 따뜻하게 그려낸 5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 이목일 作 '깨달은 자의 모습은 어제와 같다'.

선운사로 문학기행

두레문화기행(회장 김재일)은 문학의 해를 맞아 매월 한차례씩 유명문학작품의 고향을 찾는 '명작의 고향을 찾아서' 행사를 갖는다. 제1차는 4월 2일 〈질마재 신화〉의 시인 서정주의 생가와 고창 선운사를 찾는다. 동백꽃이 흐드러질 남녘 선운사로의 문학기행의 인솔은 김재일씨가 맡는다. 한편 제2차 문학기행은 5월 7일 조병화시인의 〈밤의 이야기〉 무대인 경기 안성과 칠장사에서 갖는다. 참가비 2만8천원. (02) 712-5812

목아박물관 문화학교

목아불교박물관(관장 박찬수)은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도시와 지방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여주지역에서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교육의 장인 목아박물관 문화학교는 △한국의 불상(강우방) △한국의 불탑(정영호) △고려불화(홍윤식) △팔만대장경(김상영) △미안마의 불교(윤열수) △불교목공예(박찬수) 등 교수와 관련 전문가들의 불교미술과 문화재등에 관한 알찬 강의로 꾸며진다. 또한 익산 미륵사지 유적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백제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도 갖는다. 강의시간 매주 토 오후 2~4시. 문의 (0337)85-9952~4.

사진작가 38명 '집합'

삼성포토갤러리 개관 1주년 기념 사진전 '사진은 사진이다'에 불자 작가 육명심 조문호 홍순태씨를 비롯 다양한 연령층의 사진작가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02)528-6615.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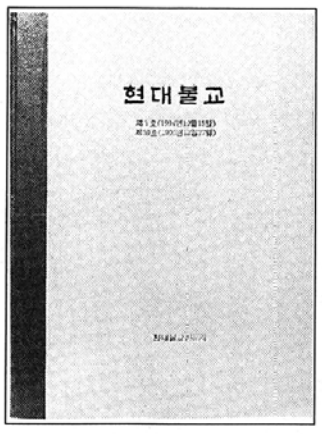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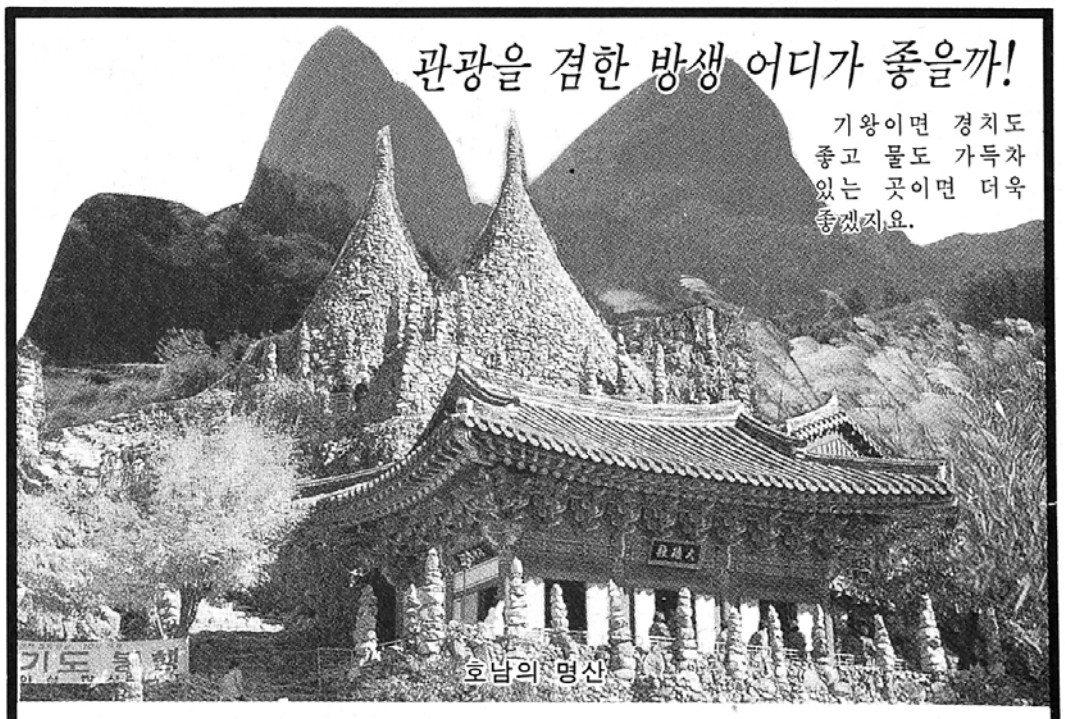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02)737-8881 팩스:(02)737-0697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주)현대불교 신문사 (代)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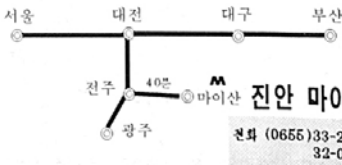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0303
32-0652,0072



◇삼중스님으로부터 법복을 수여받고 있는 양동수 법사.

사형수 법사 양동수씨 첫 법회

"부처님 가피로 새 생명 진리 전하는 삶으로 회향"

사형수로 4년, 무기수로 17년을 복역하다가 모범재소자로 출소한 양동수씨(본지 2월7일자 15면)가 지난달 22일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에서 어머니의 영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사로서의 첫 법회를 가졌다.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양동수씨는 삼중스님으로부터 법복을 수여받고, 나락(奈落)같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사형수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법사로 거듭나 대중앞에 섰다.

"대법원 재판 결과가 원심대로 사형으로 확정되었을 때 저는 어머님께 수의를 한벌 지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아무 말씀없이 바라보시더군요. 그렇게 불효막급했던 제가 이 자리에 법복을 입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교도소 담벼락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을 하루같이 항상 첫 번째로 저를 면회온 어머니가 아들의 죄업을 자신이 조금이라도 씻겠다는 생각으로 인근 동네 청소나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삼중스님께 듣고부터 저는 자신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양씨는 어머니의 이같은 지극정성과 삼중스님의 '모친이 자연사할 때까지만 사형집행을 보류해 달라'는 법무부장관 앞으로 낸 탄원서에 힘입어 마침내 지난 78년 12월 무기로 감형되기에 이른다. 이후 양씨는 삼중스님의 지도하에 교도소를 참회와 수행의 장소로 생각하고 불교공부에 더욱더 매진하게 되었다 한다.

양씨는 마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92년, 어머니가 자신의 면허증과 인감도장, 안경이 든 주머니를 손에 꼭 쥐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불효에 절망하기도 했으나 아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불교통신대학에 수강, 8개월만에 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정화하고 남도 정화합니다"

이날 양법사는 "진실된 기도는 자신을 정화할 뿐만아니라 타인도 정화합니다. 따라서 불자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고 일상의 삶을 항상 부처님 법에 맞게끔 생활해야 합니다"라고 법회를 마감하면서 수감당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쓴 '佛'자 두점과 얼마전 현대그룹에서 강연한 대가로 받은 강연료를 참석한 최고령 보살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박병근 기자

천태종 한·중·일 교류 확대

5월 국청사서 지자대사 추모 법요식
10월 日서 '한반도 통일기원' 대법회
난민·기아돕기 세계구호사업도 참여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천태종이 올해부터 우호교류를 확대키로 해 아시아 평화와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 국청사 조사당 건립이후 관계모색에 관심을 기울여 온 3개국 천태종은 △4월 일본천태종의 한국 천태종 방문 △5월 중국 천태산 지자대사 원적 1400주년 추모법요식 △10월 일본 히에산 한반도 남북통일기원 지자대사 추모법회등의 행사를 통해 이제까지 일반승려 개인차원의 교류에서 각국 종단차원으로 확대돼 교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천태종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와 부산 삼광사를 방문키로 했다. 일본 천태종 수뇌부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방문단에는 일본 천태종 종무총장(총무원장) 스기다니기준, 총본산 집행(주지) 고바야시 류조등 6명의 대표가 참가할 예정이며 해외 구호사업등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5월에는 중국 천태산 국청사에서 지자대사 원적 1400주년 추모법요식이 한, 중, 일 3국의 종단관계자및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5년전부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기획해온 이 행사는 일본 천태종 주관으로 일제의 남경대학살을 참회하는 위령재도 계획하고 있어 아시아 민간외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 천태종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대사 추모법회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며 한국 천태종 관계자및 국악관현악단과 극단을 대거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10월 1일 대법회는 중국 불교협회 조박초회장의 "한반도의 통일 없이는 아시아 평화는 없다"는 제의에 따라 '한반도의 남북통일'을 주제로 열리며 한국 국악관현악단 공연도 펼쳐진다. 또 한·중·일 평화선언과, 각기 다른 형상을 띠고 있는 3개국 부처님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의 불상을 조성 봉안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천태종 총무부장 도원스님은 "올해는 3개국의 천태종이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난민, 기아등 세계구호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아시아 민간외교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환경보존 실천 수륙영산재

태고종(총무원장 혜초)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평택시 평택호반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선암사 강원 육성 후원 손길 이어져

태고종 선암사강원에 대한 태고종도들의 후원이 발을 잇고 있다.

지난달 11일 화성 법흥사(주지 혜성)에서 586컴퓨터와 금일봉을 전달한데 이어 12일에도 청원 백련사(주지 삼명)에서 사무기기 마련을 위한 보시금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부터 선암사강원 불서보내기운동과 함께 후원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선암사 강원에는 30여 학인스님들이 공부중이다.

원융종 창종 15년 법회

원융종(총무원장 일공)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이태원 캐피탈호텔 대연회장에서 국태민안 창종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일공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불교의 전통을 바로잡고 총화불교의 구현자로 포교활동에 매진했던 15년이었다"고 회고하고 "앞으로 원융무애의 사상을 펴는데 거종적인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혜초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지하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삼론종 종정 대산스님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구독신청: 737-0693

목탁소리

종교전문대학원 '유감'

김 원 우
〈취재1부 기자〉

'모든 길은 교육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모든 사상과 가치체계를 교육이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그만큼 교육제도는 보편적, 합리적,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다종교국가에서 일부 특정종교의 성직자를 양성키 위해 정부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누가보나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교육개혁안 내용중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 발표로 불거져 나온 교계의 거센 반발이후 수차례에 걸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백지화하겠다'는 호언은 불자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 입맛이 씁쓸하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고한 종교전문대학원제도는 명칭만 '성직자양성'에서 '종교'로 변경됐을 뿐 내용상은 그대로이며 폐지는 고사하고 교계위와 대학정책관실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양상은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을 도입하지 않겠다며 법률상 당초 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근거를 두지않기로 하는대신, 새로 도입되는 단설대학원제도에 설치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종교활동 간섭, 개입, 규제의 조항을 벗어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이는 성직이나 신학이라는 용어를 통한 명문규정을 하지않으면서 목회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혼선을 초래한다. 또 선거를 앞두고 빠져나가기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든 다종교가 헌법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종교의 성직자는 정부가 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교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기획 취지가 기독교계의 무자질 목사의 난립에 대한 정화의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특정종교인 기독교계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불보듯 환하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스리랑카 난민을 위한 의류 1천8백점을 보시한 국제반아자비회 캐나다지회 회원들.

스리랑카 난민에 온정 답지

加국제반야자비회등 의류·성금 전달

불교국가인 스리랑카 난민을 돕는 국경을 넘어선 자비실천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제반야자비회 캐나다지회와 한·스리랑카 불교복지협회가 그곳으로 경제적으로 낙후한 스리랑카에 의류, 학용품, 성금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

미국 유투에 본부를 둔 반야자비회(회주 양일·화선)의 캐나다 지회(지회장 최광석)는 지난 11일 캐나다내 한국사찰과 미국 필과 원각사 등에서 수집한 의류 1천8백여점을 스리랑카에 기증했다.

이 의류들은 스리랑카 경찰국 주관으로 난민들에게 지급된다. 국제 반야자비회는 인도 라닥 지역에 보낼 의류 6천여점도 수집해 다음달 보낼 계획이다.

또 한·스리랑카 불교복지협회(회장 백흥수)도 94년 1월부터 6차례에 걸쳐 5백6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지난 2월에도 학용품 4상자와 의류 35상자를 기증했다.

이들 단체들의 교류와 지원은 스리랑카에서 불교아동복지, 승가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양국간의 불교교류 활성화등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구촌 불교

中·日 불교도 모여 평화기원 법회

'중·일우호 평화기원 대법회'가 중국불교협회와 일본의 중외일보사 공동주최로 지난달 5일부터 4일간 중국 광제사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는 중국불교협회가 2차대전 51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의 많은 희생자를 초래한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열렸다. 또한 중·일 양국 불교계의 우호를 다지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일본 불교도를 초청했다.

전쟁종결 51년 후 각종파별 추모 위령법회를 봉행한 것은 있었으나 일본의 전종파가 모두 모여 중·일 양국 불교도 법회를 봉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희생자를 위한 천도재와 평화기원 법회가 봉행된 후 히로시마의 정토진종 본원사파 교전사의 고선스님이 '우호평화선언문'을 낭독했고, 조취대학 명예교수인 토오야마교수의 '평화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연도 있었다.

美서 45일간 티벳독립위한 행진

워싱톤 D.C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출발하여 뉴욕의 UN 본부 앞까지 4백80Km를 평화행진하게 되는 '티벳독립을 위한 행진'이 티벳의 독립을 지원하는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행진은 4월 25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하루 8시간 정도를 도보한 후 티벳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이번 행진의 참가자들은 티벳독립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정부의 비합법적인 판첸라마 승인을 거부하고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게드윤라마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UN이 티벳망명정부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해 줄 것을 탄원할 계획이다.

대중불교 (4월호)

부처님 말씀 ■ 5
독자의 소리 ■ 8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 선소설가 백운 스님 / ·18
쇠북소리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세상/ 김중배 · 10
내일을 여는 목소리 ■ 종단의 사각지대, 종무원을 아십니까?/ ·73
대중불교시사 ■ 불교계, 북한수재민돕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12

특집 ■ 말(言)
신 (神)의 어원/ 서정범 ·28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유동호 ·40
말과 생각/ 김광삼 ·42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허경 ·44

기획 ■
개혁사찰 변모상 (1)/ 개혁사찰 무엇이 변하고 있나 ·68
젊은불자 발언대 ■수행력이 있어야 밝은 미래 열린다/ 이종현 ·82

불교교리산책 ■ 유식(3)유식의 식(識)/ 성승서 ·15
명상칼럼(3)화합(和合)의 삼요 (三要)/ 용타 ·24
수행으로 가는 길 ■ 순간순간 깨어있는 삶/ 이제열 · 26
선화일편 ■ 백의 관음이 계신 금강산 (金剛山)/ 설산 ·30
신행상담 ■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상덕 ·81

에세이 보살불교(마지막회) ■
약사여래의 두 협시, 일광보살·월광보살/ 일지 ·19
해외불교석학연전(4)■ 아난다 그루게(Ananda W, Guruge) / 정희수 ·84
일본을 개척한 위대한 한극인(8) ■
소아 대신의 불심은 깊어만 가고/ 홍윤기 ·94
불교와 민속(15) ■ 사당과 걸립패/ 김종대 · 102

칼라화보
월성스님의 동심의 노래(3)/ 월성 ·53
구산선문(7) ■
사자산문 법흥사/ 김희균·김성철 ·54
한국의 서정 ■
함평 고막다리/ 김성철 ·60

포교의 현장 ■
성도절날 거리에서 꽃공양 올린 연화정사/ ·65
환생의 나라, 티벳 ■ 라싸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김선정 ·90
수행길의 이런 도반/ 마지막회 ■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부터/ 효림 ·98
포교당 일기 ■ 방생도 유행에 맞추어/ 원욱 ·62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 자은깃이 아름답다/ 성낙진 ·104
오늘을 사는 불자들 ■ 추선희/한인수/이남재/ 노숙이 ·82
봉주우르, 길상입니다 ■ 잠시 귀국해서/ 지묵 ·104
컴퓨터 배우기 하나, 둘, 셋 ■ 정보의 바다 인터넷으로!/ 김응철 ·106
건강 ■ 소아자폐증과 억간산/ 해월 ·105

마을속의 불교현장 ■
땅끝마을에 울리는 '서산대사 진법군고' / ·98
시 ■ 밤섬노을/ 김진경 ·61
한 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봄맞이/ 이경향 ·108
You are 독존(獨尊)/ 권경희 ·109
나와 노신(魯迅)과 고양이/ 나희덕 ·111

만화 ■ 임제의현 스님의 깨달음(2)/ 윤승운 ·112
신간안내 ■ ·117
대중불교 전국소식 ■ ·121
감사합니다 ·124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할 길을 일러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숭 뚝, 체면치레 뚝!

이향봉 스님 장편 구도 소설

사람의 길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누구도 나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도 말고, 탓도 말며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거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 · · ·
한번뿐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습용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향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절찬 판매중
값7,000원/345면/신국판 양장본

도서출판 밀알 TEL529O14O~5 · FAX5792312

성직자대학원 명칭만 바꾼다

"내용은 그대로"… 교계 백지화요구 거세질듯

정부가 최근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종교전문대학원으로 명칭만 변경한 채 종교인을 양성키로 하는 등 '눈가리고 아웅 식'의 탁상행정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지난달 26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밝힌 종교전문대학원제도의 시행내용은 '성직자' 대신 '종교인'으로 '성직자양성'은 '종교인양성'으로 명칭만 변경한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영수 문체부장관등 일부장관들이 성직자양성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종교전문대학원제도로 바꿔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관련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같은날인 2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전화를 통해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제도를 추진일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의 서명범 서기관은 "공식적으로 폐지다 백지화 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종교전문대학원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망국적 선교정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김원우 기자〉

지역주의 타파대회

부산·광주등 불자유권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전남의 4개 지역 유권자대회가 지난달 23일 대구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4개지역 공명선거실천 시민단체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시구불교청년회, 불교자비원, 원불교부산교구, 불교인권위원회 대구지부, 원불교 대구청년회, 대구 불교산악회, 대한불교대불회,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원불교 광주·전남대교구청년연합회등 불교단체가 다수 참여한 이날 유권자대회는 △배타적 지역주의 극복 △정책대결의 선거실현을 촉구하는 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행사를 마친 유권자들은 중앙초등학교에서 중앙파출소까지 공명선거 다지기 대행진을 벌였다.

불자연합 파라미타 초대총재 성타스님

청소년 불자연합파라미타는 지난달 25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파라미타 정관(안)을 심의 확정하는 한편 초대 총재로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계종 10기 행자교육원 개원

274명 참여 22일간… 외국인도 4명

불조혜명을 이어나갈 행자교육을 위한 제10기 행자교육원 개원 고불식이 지난달 26일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만덕전에서 거행됐다.

이날 고불식에는 총무원교육원장 원산스님, 유나 보성스님, 직지사 부주지 법성스님, 석성우스님 등 30여명의 교육관계자들과 행자교육생 2백74명(남행자145 여행자129)이 참석했다. 91년 8월 해인사에서 처음 창설된후 10기째 맞는 행자교육원은 4월16일까지 총 22일간의 교육을 받는다.

이번 행자교육원에 입방한 행자는 종법에 의해 만15세부터 3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20대가 1백29명으로 가장 많고 40대도 17명이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88명으로 고학력자가 많은 편이다. 한편 외국인행자는 폴란드출신의 로갈스키(Rogalski 화계사) 행자를 비롯 모두 4명이 입방했다.

지역노인 위로잔치

대한중석 석불회

대구직장불교단체의 하나인 대한중석 불교석불회(회장 김동목) 창립1주년 기념법회 및 가창면 경로잔치가 지난달 24일 대중금속공고 강당에서 가창면 거주노인 3백여명과 직장불교협의회 가족 1백여명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석불회는 돌잔치를 겸한 경로잔치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이발소 운영과 불자연예인 공연 그리고 불교병원 의우회의 도움을 얻은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구독신청: 737-0693

승가대 안암동서 정규대 추진

대책위·운영협 김포—안성이전 여전히 불씨

중앙승가대 대책위와 운영협의회(교수 학생 동문 교직원대표, 개운사 봉은사주지, 수행관장으로 구성)는 지난달 25, 26일 각각 모임을 갖고, 현재 중앙승가대학이 위치해 있는 안암동 캠퍼스에서 정규대 승격을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설립기준령제정(안)입법예고에 근거한 것으로 안암동 캠퍼스가 교사면적이 73평 부족한 점만 제외하고는 교지면적, 교원수, 재정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부족한 교사면적은 교사의 신축 또는 증축, 학생수 감원모집등으로 가능, 정규대승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책위와 운영협은 학사 이전부지의 안성과 김포 선정을 놓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찰의 불씨를 여전히 안고 있다.

"금융기관 직장법회 활발"

조계종 포교분과위 직장·직능법회 현황조사

서울 31곳 '최다'… 교직등 전문직 '뚜렷'

전국의 직장·직능법회는 1백84곳(직장 131, 직능 5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위원장 지홍)가 월간 〈대중불교〉에 의뢰해 실시한 직장·직능법회 현황파악을 통해 밝혀졌다. 〈관련기사 3면〉

이 조사는 월간 〈대중불교〉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91년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와 전국기자망과 직장·직능법회 담당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장법회는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은 31곳에 이어 경남 23, 부산 19, 대구 17, 광주 7 등의 순서였으며, 업종별로는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공무원 기업체 대학의 순이었다. 91년 조사에서 직장법회는 95곳과 비교해 늘고있는 추세다.

직능법회는 교수·교사·의사·약사·교통통신원 등으로 다양한 직업분포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교분과위원장 지홍스님은 △종단차원의 직장·직능법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과 △청장년불교 조직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직장·직능법회가 유명무실해지거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장례식장 융자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교계 운영방안 검토 필요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장례식장 설치 활성화를 앞당기는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발표돼 불교계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법인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 장례식장 신축사업자에게 연리 8.2%, 5년 거치 7년 상환의 조건으로 1개소당 5억원, 병원 장례식장 증축 희망자에게는 3억원까지를 지원한다는 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침은 전통사찰관리법, 사찰재산관리법 등의 불교계 재산관련법 등에 의해 담보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찰과 법인의 경우 애로점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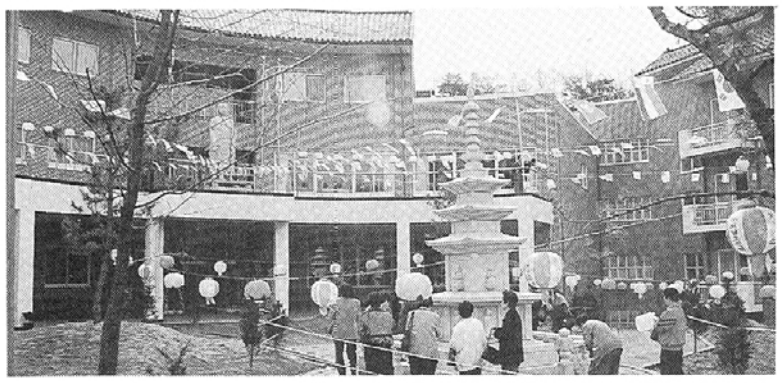
이에대해 조계종 복지재단 이용권국장은 "뜻있는 신도의 참여를 유도한 후 사찰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운영의 미를 살려 융자조건을 갖춘다면 충분히 불교계에서도 장례식장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은 불교계의 복지사업 참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활용방법에 따라 사찰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석왕사 봉은사 등 운영규모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국의 각 사찰에서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발연 자체해산 종회활성화 위해

조계종 종책개발연구회(회장 장윤)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단화합과 종회 활성화를 위해 동회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회장 장윤스님은 "종단현안 문제해결과 종책개발을 위해 종회의원 중심으로 종발연을 결성했으나 종회분열이라는 오해가 있어 자체 해산한다"고 밝혔다.



성라실버타운 준공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이사장 법성스님)은 지난달 28일 경기 가평군 삼면 봉수리 3만7천5백평의 부지에 유료 안양원(安養院) 성라실버타운을 건립하고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법회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가평=김재경 기자〉

북한동포돕기 '자비의 쌀' 모금

초파일 맞아 범종단차원 전개… 5월말 전달예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한주민들에게 자비의 쌀이 보내진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지난달 22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북한동포 돕기 자비의 쌀 모금을 범종단차원으로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날 각 종단 대표자들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종단별로 자비의 쌀 모금법회를 개최하고 봉축행사장에 모금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비의 쌀은 5월 31일 대한적십자사 또는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한다.

종단협은 또한 이사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가이드북 및 CD-ROM을 제작하기로 했다. 가이드북 및 CD-ROM에는 한국불교소개, 한국의 유명사찰 등이 수록된다.

불교계 큰일꾼 모임

불기협, 13일 동국대서

교계 신문과 잡지 방송 출판에 종사하는 젊은 불자들로 구성된 '불교계 큰일꾼 모임'(공동대표 하춘생·김학주)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동국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젊은 불자들간의 우의와 지혜를 나누는 계기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한국불교기자협회 회원을 비롯 불교방송과 불교TV 기자, PD, 출판편집자 등 1백여명이 참가한다.

한편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달 25일자로 '불기협회보' 복간호(제4호)를 발행했다. 불기협은 회보를 격월간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발행한다.

미주 70여 한국사찰연합회 발족

북한포교·승가대 건립등 추진… 회장 대원스님

미주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사찰들의 구심체가 될 미주한국불교사원총연합회가 지난달 19일 하와이 대원사에서 발족됐다.

연합회는 이날 창립과 함께 LA·뉴욕 등지에 민족사원과 승가대 건립, 미주불자와 북한불자의 종교차원의 교류추진(금년 6월이나 10월), 금강산 신계사와 나진 선봉지역 칠보산 개심사 복원, 원산해변에 통일과 민족안위기원대불조성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원스님

미주지역 70여 한국사찰이 포교역량 강화와 정보교류, 유대강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연합회는 △민족화합 기원 △평화 평등 자비의 사상을 근본으로 인종, 계층, 집단이익을 초월한 보살도 실천 △동서문화 조화와 민족문화창달 기여 등의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채택했다.

또 연합회는 정관제정에 이어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및 상임위원 등 임원을 선출했다. 고문에는 행원(LA 달마사), 법인(뉴욕 원각사)스님이 추대됐으며 자문위원에는 양일(캐나다 대각사), 설조(샌프란시스코 여래사), 도안(LA 관음사), 현호(LA 고려사)스님, 회장에는 대원스님(하와이 대원사)이 선임됐다. 또 부회장에는 현일스님(오렌지카운티 법왕사), 도법스님(보스턴 문수사), 사무총장에는 송원스님(샌프란시스코 불광사), 사무차장에는 도현스님(하와이 대선사) 길상스님(뉴욕 정명사) 등이 각각 선임됐다.

마음 집착에서 오는 고통

내게 고통을 주는 대상은 없습니다. 실체도 없습니다. 고통이란 자기 마음의 집착이나 저항에서 옵니다. 모든 것은 찰나도 쉬지않고 동아가는데 그것을 고정되게 보려는 생각(저항)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교성지순례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별 기획상품을 마련하였사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원합니다.

—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合掌—

대만 성지순례 3박4일
4월 25일출발 모집중(확정)

특별기획 1 중국 티벳 네팔 9일
- ●일 정 : 서울—상해(1)—성도(1)—라사(1)—장체—시가체(1)—라사(2)—카트만두(1)—기내(1)—서울
- ●동참금 : 230만원
- ●기 간 : (1차) 3월 17일—3월 25일
  (2차) 5월 12일—5월 20일
  (3차) 6월 23일—7월 1일

특별기획 2 중국 불교유적지 13일
- ●일 정 : 서울—상해(1)—계림(2)—서안(1)—낙양(2)—용문석굴—소림사—정주(1)—태원—오대산(1)—대동(1)—운강석굴—북경(2)—서울
- ●동참금 : 180만원
- ●기 간 : (1차) 3월 23일—4월 4일
  (2차) 4월 22일—5월 4일
  (3차) 5월 27일—6월 8일

특별기획 3 중국 불교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상해—보타산(2)—낙가산—영파(1)—천태산—항주(1)—구화산(2)—소주(1)—상해(1)—서울
- ●동참금 : 135만원
- ●기 간 : (1차) 4월 8일—4월 16일
  (2차) 5월 25일—6월 2일
  (3차) 6월 20일—6월 28일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 출발·상담환영 (일정조정 가능)

인도 성지순례 9일
- ●일 정 : 서울—델리—아그라—바라나시—부다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발람푸르—기원 정사—델리—서울
- ●동참금 : 150만원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 ●일 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플론나루아—시기리야—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 ●동참금 : 118만원

대만 성지순례 5일
- ●일 정 :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 ●동참금 : 65만원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5일
- ●일 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보로부드르—자카르타—서울
- ●동참금 : 95만원

미얀마 태국 성지순례 8일
- ●일 정 : 서울—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페구—양곤—방콕—서울
- ●동참금 : 145만원

건강백세 ⑨

입

혀의 건강상태는 주로 설태(舌苔)로 나타나는데 색깔과 두께, 농담에 따라 진단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적색, 백색, 황색, 청색, 흑색의 색조와 심장소장, 폐장대장, 비장위장, 간장담낭, 신장방광의 병변현상을 연관시켜 진단하고 치료의 요체로 삼았었다. 특히 흑태는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서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충치나 염증 소화불량 입냄새 主因
'오리피 언어장애 특효說' 검증 안돼

구취(口臭)는 치아, 잇몸(치주)에 충치나 염증이 있을 때나 위장에 질환 특히 소화불량시에도 나며, 축농증 또는 폐농양 등 분비물에 의한 악취일 수도 있어 구별이 필요하다. 중풍의 주요증상 가운데 언어장애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뇌의 언어중추가 뇌일혈이나 뇌혈전에 의한 저해로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장애가 되는 혈병(血餠=피떡)이 제거 되거나 손상조직이 회복되어야 좋아질 수 있는데 약간 회복된 후에도 상당기간 꾸준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완전에 가깝게 회복된다.

언어는 일종의 습관이므로 장시간 사용치 않으면 둔해지고 많은 단어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요법으로 '오리피를 먹거나 특히 혀(舌)를 먹으면 특효'라는 검증되지 않은 속설이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물오리의 사냥도 문제지만 고가로 수탈당하는 환자들의 처지도 딱하기만 하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물오리의 청혈효과가 뇌혈관 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언어장애를 도와준다면 이론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발상자체가 '오리는 소리를 강하게 지르는 동물이므로 피나 특히 혀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지극히 비과학적이며 장기요법의 이론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리고기의 청혈효과를 기대하고 장복(長服)하면 어느정도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장사치들이 얘기하는 대로 금방 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생피를 먹는데서 오는 세균감염이나 복용중 피가 엉기어 생길 수 있는 질식이 우려된다고 본다.

윤 율 상 〈한의학 박사〉

한마음의 등불 ②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아들 먹이지 못해도 다른 환자들을 챙기고 청소도 기독교 독서대부터…"

상원이를 첫번째 환자로 이름을 올리고 팥과 오색실을 가지고 와서 베개속에 넣고 물도 못먹는 아이 입에다 팥을 넣어 주었습니다.

상원이는 몸이 괴로워도 하루에 한번은 법당에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절을 올리는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부처님께 뭐라고 기도드렸니?"하고 물었더니 "엄마, 난 이렇게 그냥 죽을 수 없어. 부처님한테 살려 달라고 했어."

"그래, 상원아 넌 꼭 이겨낼거야."

우리 모자는 서로 껴안고 한없이 또 울었습니다. 병원에 있다보면 봉사자들이 많이 옵니다. 병원법당에서도 자원봉사자 불자님들이 환자들에게 불교도서와 교양서적을 도서카를 이용해서 병실마다 돌려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스님과 함께 전·의경환자에게 합장주를 보시할 때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다보심 보살님! 유방암이셨다가 완쾌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픈환자의 심정을 헤아리셨나 봅니다. 저희 병실에 들어 오시면 활짝 웃으시며 상원이 손을 잡고 권안하게 얘기 하십니다.

"이런 병은 감기와 같아. 누구에게나 올수 있단다. 우리도 지금의 병고를 잘 극복하면 정상인보다 더 오래 70~80세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 힘내" 손을 흔들며 나가는 다보심 보살님을 바라보는 상원이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도착하면 법당에서 기도 한 후 병실에 올라가서 밤새 무엇을 토했나, 아무일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휴게실에 나와서 기독교 독서대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불교도서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병실에 입원한 백혈병 아이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차도 마시며 하루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병이 더 깊어지면서 상원이는 먹지를 못했습니다. 지장기도를 하면서 나 스스로 손이 약사 여래불 손이 되어 제 아들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구멍 뚫린 곳이다 몸의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온 전신이 땀에 흠뻑 젖도록 참회를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상원이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오면 귀에서 코에서 목에서 짙은 색깔의 이물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힘이 생겼습니다. 온몸으로 병이 퍼져서 눈도 잘 안보이고 귀도 잘 안들리고 그랬는데도 제게는 차도가 보였어요. 주위 분들은 살 가망이 없다고 마지막 준비나 하라고 얘기들을 했지만 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 의사·간호사선생님 손이
> 약사여래불 손이 되어
> 아들을 낫게해 주세요

상원이가 변을 못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였습니다. 스님께서 병실에 오셨다가 상원이의 딱한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는지 두분의 수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외국 수녀님이 셨는데 말기환자만 전문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변을 보게 해 주는 기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위 간호사나 환자들한테 스님께서 보내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멋있으시다고 오래 오래 화제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담을 헐고 오직 상원이를 위해서 헌신해주시는 스님의 자비하신 마음에 우리 모자는 촉촉히 젖었습니다.

병원에서 생활하다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봅니다. 젊은 아들 병간호를 하다 먼저 가시는 아버지, 전날 같은 차를 타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왔는데 다음날 안보이셔서 물어보면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 살아가는 일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옆 병실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까닭없이 사람도 안타 엘레베이터가 2층 영안실 입구에서 3번씩 열려 마음 속으로 잘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아깝고 젊은 나이에 사랑스런 아들들이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 아무것도 못먹는다고 휠체어 타고 와서 빨리 완쾌되라고 격려해주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리운 얼굴로 대전 국군묘지에서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슬픈 일도 많았지만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가 좋아진 의술로 건강을 되찾은 경우도 많습니다.

청 정 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그림 · 이준석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⑳

♦ Bhagavat : 'The man who given to women, to strong drink, and to dice, wastes whatever he has gained,—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5)
"여자, 술,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탕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eighth loser ; tell us the nin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6)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He who, not satisfied with his own wife, is seen with harlots and the wives of others,—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7)
"자기 안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나 남의 아내와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 Deity : 'We know this to be so, this is the ninth loser ; tell us the tenth, O Bhagavat, w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8)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입니다. 스승님, 열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 Bhagavat : 'The man who past his youth, brings home a woman with breasts like the timbaru fruit, and for jealousy of her cannot sleep,—that is the cause (of loss) to the losing (man).' (109)
"한창때를 지난 남자가 탄발 열매처럼 불룩한 젖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집안으로 데려오고, 그녀를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파멸의 문이다."

*dice (n) 도박, 주사위
*harlot 매춘부
*satisfied (a) 만족한, 흡족한
*jealousy (n) 질투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싯다르타 ⑯
헤르만 헤세 作



그림 · 심민섭

싯다르타는 이미 젊은 고을을 떠나 어느 숲 속을 방황하고있었다. 숲을 관류하는 큰 강가에 이르른 싯다르타는 오래전 자신을 건네준 뱃사공을 생각하고 그를 찾았다. 사공은 그 강나루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 역시 몹시 늙어 있었다. 그는 싯다르타를 알아 보았다. 사공은 싯다르타를 안내해 방과 물을 권했다. 뱃사공의 이름은 바스데바였다.

싯다르타는 바스데바의오두막에 머물며 사공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부처의 제자인 승려들이 몰려와 강을 건네 주기를 간청했다. 그들은 새존께서 위독하여 머지않아 현신으로서의 숨을 거두고 해탈의 경지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싯다르타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현인이며 스승인 그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이 가까와진 부처를 찾아가고 그 소문을 들은 카말라도 간단한 복장으로 어린 아들 싯다르타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바스데바의 나루터 근처에 왔을때 아이는 좀 쉬어 가자고 졸랐다. 카말라도 피로하였으므로 길가에 포근히 앉아 쉬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어머니의 옷자락 밑에서 달아나는 뱀을 보았다. 바스데바가 이들의 비명을 들었다. 싯다르타 부자는 이렇게 슬픈 만남으로 상봉했지만 함께 사는 동안 아들은 매우 버릇이 없었다. 기어이 아들은 배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싯다르타는 그 배가 강건너 언덕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 했다. 그는 도망 친 것이다. 아들로인한 상처는 컸다. 싯다르타는 그리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을 건넜다. 고을에가서 아들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싯다르타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새겨 보았다. 아버지도 자기가 지금 아들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당한게 아니었던가. 그것은 하나의 희극 기이하고 어리석은 희극 되풀이이며 숙명적인 윤회가 아니고 무엇이냐. 강물은 웃었다. 싯다르타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그 자신과 육친들과 자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물은 환급히 흘러 갔다. 싯다르타가 그 강물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을때

고통과 웃음을 둘로 보지 않을 때 완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통의 소리와 웃음의 소리를 구분하여 듣지 않게 되었을때 그의 영혼이 어느 한 소리에 얽메이지 않고 자아를 어느 한 소리에 몰입함이 없이 그 전체를 오옴이란 완성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을때 바스데바는 떠나갔다.

고빈다는 다시 순례의 길에 올랐고 강가에 이르러 늙은 뱃사공에게 강을 건네 주기를 간청 했으나 그 늙은 뱃사공 싯다르타를 알아 보지 못했다.

"자네는 하나의 가르침을 갖고 있나. 하나의 믿음과 지혜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 자네의 생활과 행동에 도움을 받는가"

"참녀가 오랫동안 나의 스승이 된 적도 있고 상인이 노름꾼이 순례중인 한 불제자가 스승이 되기도 하였네. 하지만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여기 이 강물이네. 그리고 나의 선임자인 바스데바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웠네. 그는 단순한 사람으로 사색가는 아니었네 부처 고타마처럼 필연적인 것을 알고 있었네. 그는 완성자이며 성인이었네." (끝)

생활 속의 불교 ⑱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야 한다



불 법을 자기의 살림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 기준으로 해석하고 단정지으려 해서도 안 된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자가 아니라 가르침을 왜곡 전파하는 훼불자요, 외도일 뿐이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배우겠다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보잘것 없는 알음알이에 기대어 불법을 왜곡하는 이가 있다.

부 처님의 말씀을 따라 배우는 것은 해탈에 이르고자 함이다. 빗나간 자의식과 열반 사이의 드넓은 간격을 좁혀 마침내 피안에 이르고자 함이다. 그러나 자신이 건너편 저 언덕에 이르려 하지 않고 언덕을 제 쪽으로 끌어 당기고자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모하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가 하면 정진하기를 포기하고 마치 피안에 도달한 양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기망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안은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을 뿐이다. 어떤 사람의 희망, 거짓, 왜곡, 강요 따위와는 무관하게 거기에 있을 뿐이다.

스 스로 불자라면서 믿음의 대가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일이 잘 되게 해 달라, 돈을 벌게 해 달라, 건강하게 해 달라, 기도하고 빌고 호소한다. 헌금하고 시주하고 공양물 바치며 갈구·애원한다. 한쪽에선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고 부추기고 강요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아무리 많고 거창하다 해도 불법과는 무관하다. 비록 불법의 이름으로 했다 해도 그건 공염불이다.

설 사 부처님이 계셔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행위를 본다고 하자. 도대체 부처님을 위해 무엇을 바쳤고 무슨 희생을 했단 말인가. 본래 '내것'이란 없다고 가르치신 부처님이시니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친 게 없으며 아무것도 희생한 것은 없이 다만 시끄럽게 애걸했을 뿐이다. 나를 한번 돌보아 달라고 떼를 썼을 뿐이다. 제 아무리 손짓하고 목청을 높여 부른다 해도 건너편 언덕이 내게 다가오지 않듯이 부처님은 내 곁에 오지 않고 거기 그렇게 계실 뿐이다.

내 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 건너 가야 한다. 보시·지계·인욕·정진의 배를 타고 선정·반야의 다리를 건너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통행증을 구입해야 한다. 면죄부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표가 아니라, 오로지 내 몸 살림에 집착하는 자의식, 내 의식 살림에 얽매인 자의식의 죽음이라는 표를 사야만 한다. 피안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그것뿐이다. 그밖에는 어떤 통행증도 무용지물이다.

자 의식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관념의 죽음이다. 관념의 죽음은 좀처럼 수용키 어려운 자아 부정의 처절한 작업을 요구한다. 아상·아만을 깡그리 부서 버리는 일 - 이제 더 이상 '나' '나의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할 때까지 내가 나를 부정해야 한다. 티끌 같은 찌꺼기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의식의 설거지,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

그 것이 어렵거든 반대로 자의식을 확장하라.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타인까지 확장하고 나아가 일체의 유정물·무정물까지 넓혀 가라. 일체 만물이 모두 다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자비의 손길을 뻗쳐라. 그래서 마침내 전체와 하나가 되라. '나'는 사라지고 보살의 대자대비로 하나되는 순간까지 확장하라. 그것 또한 나의 죽음과 다르지 않다. 자아 부정과 자아 확장은 그렇게 '죽음'에서 만난다. 죽어야 건너리라, 죽음으로써 이르리라.

협찬 : 한 나 리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禪茶一如의 즐거움
茶園 녹수청산
주소: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736-3782

현대불교

법공양판 (수덕사) 18~19면
방송 · 연예 20면

천년 염화미소 청소년 꿈 키운다

현대불교신문 전국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동참자 명단(3월 27일 현재)


◇보광스님


◇성운스님


◇자우스님


◇백운스님


◇리선행법사

◇은평구사암연합회(회장 성운): 은평구내 중·고교 전체(22구좌)
◇해인승가대학 동문회(회장 보광): 종립학교(10구좌)
◇자우스님(금강사 주지): 은석국교(1구좌)
◇편백운스님(춘천 석왕사 주지): 춘천고(1구좌)
◇리선행법사(조계종 상임포교사): 원주여고(1구좌)

곡선 · 조형미 탁월…미술실기에 적합

미륵보살반가상 어떤 국보인가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함께 국내 최대(높이 93.5㎝)의 금동 반가상(半跏像)이다. 제78호 반가상이 직선적이고 날카로우며 장식적이고 기교적이라면, 이작품은 풍요 원만한 지체(肢體)와 간소 명랑한 표현양식이 오히려 감각적인 육체를 통해 생동하는 미를 볼 수 있다.

머리에는 조그맣고 둥근 삼산관(三山冠)을 쓰고 얼굴은 거의 원에 가까울 정도로 풍만한데, 눈은 가늘고 눈썹은 아름다운 호선(弧線)을 그리며 눈두덩과 입가에 미소를 풍기고 있다. 길게 늘여진 귓불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상반신은 전라(全裸)의 모습이며, 몸에는 목에 2줄로 표현된 목걸이가 걸려 있을 뿐 아무 장식이 없다. 왼다리는 늘어뜨리고 그위 무릎위에 오른발을 얹었으며 오른 무릎은 활짝 펴져 착실하고 사실적인 조형을 보여 주고 있다.

간결 섬세한 몸체 '생동미'
불상 예술의 세계적 걸작

왼손으로는 오른발 발목을 잡았고 오른팔은 팔꿈치를 오른 무릎에 대고 검지와 장지를 볼에 대고 있는데 두 손 손가락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 아랫몸을 덮은 하상(下裳)은 매우 얇아서 자연스럽고 충실하게 아랫몸을 표현하고 있다. 머리 뒤에 붙어 있는 긴 꼭지는 광배를 붙였던 자리로 보인다. 온몸에는 도금한 위에 칠금(漆金)을 올렸던 듯 금빛이 은은하다.

일본 국보 1호라는 광륭사의 목조반가사유상은 이 불상과 동형의 불상인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불상 출토지에 대해서는 경주 오릉(五陵) 또는 충청도 벽촌 등의 설이 구구했고, 소속 국가도 한때 백제로 되기도 했으나 신라의 제작설이라는 설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진홍섭 전 문화재위원장은 "전체의 균형이 아름답고 금색 또한 은은하여 한국 금동불상의 대표적 걸작이다"고 평가했다.

김재경 기자

미술교육적 가치

그동안 서양식 일변도로 흘러온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은 아그리빠, 비너스, 줄리앙 등의 석고모형을 데생의 기초소재로 이용해왔다.

우리 문화재의 하나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을 데생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국대 손연칠교수(미술학과)는 "우리 것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미륵반가상 외에도 석굴암 본존불 등 더 많은 불교미술품을 데생용으로 개발해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연칠교수


◇박찬갑씨

'부드러움 추구' 동양 기법 익힐 기회
"우리의 것 이해" 주체성 확립에 기여

손교수는 오래전 동국대 입시에서 금강역사투상 데생을 실시했지만 중도에 흐지부지돼 버린 적이 있다면서 미륵반가상의 적극적인 보급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각가 박찬갑씨도 "자기발견의 시대에 미의 주체로서 자기를 찾는 일에 늦은 감이 있지만 미륵반가상의 데생훈련을 통해 우리의 조형미를 몸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미륵반가상의 보급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우리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본질을 이해 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구의 직선적인 미술기법과 비교해 모난 것을 지양하고 곡선적인 부드러움을 추구해 온 동양의 기법을 익힐 수 있어, 기존의 교육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방문선씨(동국대 대학원)는 "불교미술을 전공하는 저도 아그리빠 데생으로 미술의 기초를 익혔다. 미륵반가상의 데생으로 불교미술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보다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미술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반가워 했다.

이은자 기자



데생용 석고 모형 제작 기술지원 범종사 김 철 오 회장

"민족얼 고취시키는 계기되길"

78년 '한국미술 5천년전' 원형 살려 이종각교수 조각

"석굴암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재인 미륵반가상(국보 83호)을 일반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시험보는 대상으로서 늘 가까이서 대하게 된데니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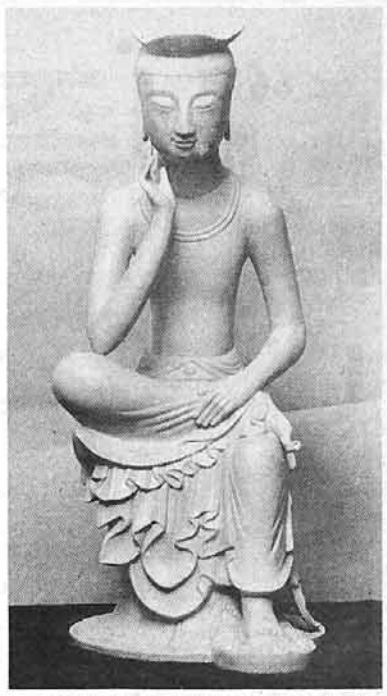
미륵보살반가상 석고모형 보급에 있어 모형제작 기술을 지원하는 범종사 김철오 회장(53). 지난 78년 '한국미술 5천년전'이 일본과 미국에서 열렸을 때 한국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문화재로서 미륵보살반가상이 선정돼 외국에 기증하기 위해 모형을 만들었다. 경희대 이종각 교수가 조각을 맡았고 범종사가 그 비용을 댔다.

보급용 반가상은 학생들 데생용으로 적당하게 원형높이 93.5㎝를 55㎝로 축소해 석고와 같은 성질을 가지면서 더 가볍고 잘 파손되지 않는 FRP로 만든다.

지난 70년 범종사를 설립한 김회장은 26년간 각 사찰 범종을 만들어 봉안해 왔다. 대표적인 작품이 불국사 통일대종, 화암사, 낙산사, 보문사 등의 종이며 76년 우리나라가 미국 독립 2백주년을 기념해 기증한 '우정의 종'도 만들었다. 범종제작에 아직까지도 구리와 주석의 청동을 사용하여 은은한 전통 종소리재현에 노력하고 있다는 김철오 회장은 "해방전후만 해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이 불교종립학교였는데 이제는 타 종교에 비해 1백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면서 "데생용 미륵반가상 보급이 불교계가 교육에 관심갖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경숙 기자

중·고교에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보냅시다


◇원형을 60%로 축소해 데생용으로 조성한 석고 미륵반가상.

현대불교신문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기위해 미술교육의 기초과정인 데생용 미륵반가상석고모형을 보급합니다.

왜 미륵반가상인가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은 국보 제83호(국립중앙박물관 소장·높이 93.5㎝)로 그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는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따라서 조상의 얼이 담긴 미륵반가상을 우리의 중고생들이 데생하므로써 한국적 미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사유의 폭을 넓히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급 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각 1점씩 총 4,568점.
◇중 학 교: 2,738개교
◇고등학교: 1,830개교

어떻게 추진되나

◇모형제작: 석고보다 견고한 FRP로 축소 제작(원형 높이 93.5㎝를 높이 55㎝ 폭 35㎝로)
◇기술지원: 범종사 (대표 김철오)
◇예 산: 1점에 10만원씩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보급방법: 직접 방문 기증·화물수송·수용학교 직접 수령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출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온리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정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심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수 덕 사

법공양 페이지

* …… 현대불교신문은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과 공동으로
* …… 제작하는 법공양면을 펴내고 있습니다. 법공양면은 본
* …… 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존의 지면(주16면)
* …… 과는 별도로,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이 스스로 제
* …… 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선종본찰 대가람 위풍 되찾는다"



◇한국선종의 총가이자 찬란한 백제문화의 본산인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국내 유수의 수선도량(修禪道場)으로 많은 후학들을 배출해 오고 있다.





◇방장 원담스님 휘호 〈心光無邊〉

불교는 나 자신이 나를 깨닫는 법이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들에겐 '나'를 찾을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필요없고 형식이 필요없습니다. 비록 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어느 처마 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란 존재는 어디에나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나'를 찾기 위해 정진할 수 있습니다.

경허스님의 '세계일화' 맥이은 총림

국보 대웅전 뛰어난 목조건물…삼층석탑·미륵불입상등 성보 보존

연혁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 남쪽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수덕사는 백제 제29대 법왕 元년(599) 지명(智明)법사가 창건하고 □國때까지 혜현(惠顯)이 三論을, 숭제(崇濟)가 법화경을 강론하던 고찰중의 고찰이다. 신라 통일후 원효대사가 중수 수도하고 고려때는 나옹화상이, 또 근세에는 한국 선불교 중흥조 경허스님이, 특히 만공선사가 주석하면서 선풍을 크게 떨친 국내 유수의 수선도량(修禪道場)이다.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동시에 우리나라 4대총림의 하나인 덕숭총림으로 많은 수좌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수덕사는 수선도량의 이름에 걸맞게 경허, 만공스님을 비롯해 수월, 혜월, 청담, 경산, 금오, 효봉스님 등 이름높은 선사들을 배출하며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혜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며 해인사 방장)을 비롯 전세계 20개국 1백60여곳에 선원을 개설 경허스님의 '世界一花' 사상을 펼치고 있는 숭산스님(화계사 조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등이 덕숭문중 출신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화기 여류시인으로 한때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김일엽스님이 견성암에서 주석해 후학들을 지도했다. 견성암은 오늘날 비구니스님들이 수도하며 공부하는 강원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당우 현존하는 당우로는 국보 제49호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명부전을 비롯한 백련당, 청련당, 조인정사, 범종각, 영령각, 북각, 소림초당, 향운각, 진영각, 일주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대웅전은 1308년(충렬왕 34)에 건립한 건물로 그 형태가 장중하고 세부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견실, 치밀한 수법으로 우리나라 고건축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목조건물중 하나로 건축사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1937년 대웅전 해체수리공사중 발견된 수덕사 벽화는 섬세한 구성과 정교한 묘사, 능란한 필치 등 고려시대 사원벽화의 우수한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벽화는 건립당시의 것으로 건물의 결구사이에 생긴 작은 공간을 이용한 장엄용 벽화들로 주악공양비천도·수화도·야화도·금용도·오선도 등이 있었으나 살몸은 6·25때 파괴되고 현재는 당시 임천이 그린 모사도의 일부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일주문은 도톰하게 깎은 돌기둥 두개에 기와지붕을 얹고 있으며, '덕숭산수덕사(德崇山修德寺)'라고 쓴 현판과 지붕의 처마에는 붉은 여의주를 문 용이 조각돼 있다. 또 범종각에는 1973년에 조성된 무게 6천5백근의 종이 봉안돼 있다.

산내암자 산내 암자로는 역대 수많은 고승대덕들의 수도처였던 정혜사를 비롯, 견성암, 선수암(禪修庵), 환희대(歡喜臺), 금선대, 구례암, 극락암, 청승당, 전월사(轉月舍) 등이 있으며, 금선대에는 진영각(眞影閣)이 있고 진영각 안에는 만공스님의 영정과 유품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특히 참선도량으로 개창돼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수도하던 곳으로 유명한 정혜사는 전아(典雅)하고 전망이 뛰어나며 법당인 관음전을 비롯 수도본전(修道本殿)인 능인선원·산신각·불유각·요사 등 고색과 무게가 함께 깃들여 있는 당우가 일품이다.

소장성보 소장 성보로는 대웅전 앞마당에 있는 삼층석탑(충남도 유형문화재 103호)을 비롯해 정혜사로 오르는 중간 지점에 있는 미륵불입상과 만공탑 등이 있다.

삼층석탑은 높이 4m의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기단과 탑신 및 상륜 일부가 잘 남아 있어 당시의 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명 여래탑으로 부르기도 한다.

미륵불입상은 만공스님이 건립한 높이 25척의 석불로 머리에 이중의 갓을 쓰고 있으며, 만공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만공탑은 구형(球形)의 둥근 돌이 올려져 있는 특이한 부도로 유명하다.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집으로 그 형태가 장중하고 아름다우며 우리나라 고건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목조건물 중 하나다.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잘 갖춘 탑으로 탑신부의 체감율이 정연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만공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만공탑은 구형의 둥근 돌이 올려져 있는 특이한 형태로 수덕사의 새 상징이 됐다.

삶을 나눕시다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같은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색에 얽매이는 마음을 내지 말며, 또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느낌이나 법에 얽매이는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마음이 머무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일으킬지니라. (금강경)

(사)생명나눔실천회는 1994년 3월 27일 생명공양실천본부로 발족하여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장기기증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현대 의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이식은 어떠한 치료법으로도 소생할 수 없는 환자의 장기를 정상 장기로 대체하는 치료법입니다.

생명나눔실천은 헌혈이나 장기기증을 통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보시함으로써 고통속에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불교에서 벌이는 대승보살행이며, 건강한 육신과 자비로운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비실천행입니다.

이사장 法長 합장

1. 헌혈

혈액은 생명의 원천이며, 수혈 수요의 증가로 지속적인 혈액이 절대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되며 16세에서 65세의 건강한 남여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2. 사후 각막 기증

각막은 안구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 투명한 막으로 5세 이상 80세 미만은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며 사후 6시간 이내에 연락을 해야 이식이 가능합니다.

3. 뇌사시 장기 기증

뇌사란 뇌의 기능을 상실하여 호흡정지와 함께 곧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건강한 장기를 이식해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4. 사후 시신 기증

시신 기증은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아무 조건없이 몸을 내놓는 것으로 의학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5. 생전시 신장 기증

신장 기증은 건강한 사람의 두 개의 신장 중에 한 개를 신부전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며 , 기증자는 25세 이상 5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6. 골수 기증

환자의 비정상적인 골수조직 대신 건강한 기증자의 골반뼈에서 채취한 골수를 이식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기증신청 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신청서류안내

· 장기 기증 등을 신청하실 분
신청서(본회 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1부, 증명사진 2장을 보내주시면 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 수혜자(신장)등록을 신청하실 분
신청서(본회 양식) 1부, 조직검사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금주 : (사) 생명 나눔 실천회
농 협 : 053 - 17 - 001346
우 체 국 : 010579 - 0057699 - 11
신한은행 : 324 - 05 - 007605
국민은행 : 006 - 01 - 0770 - 038

■상담문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빌딩 501호
전화 : (02) 734 - 8050/1 , 전송 : (02) 734 - 8052

사단법인 생 명 나 눔 실 천 회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공양 페이지

수 덕 사



◇수덕사 종합중창불사 조감도. 새롭게 건축되는 건물들이 덕숭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위용을 갖추고 대웅전을 외호하고 있다. 중창불사는 불교문화를 새롭게 꽃 피운다는 시각에서 시작한 만큼 전문가와 학계의 철저한 자문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수덕사의 황하루 개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연경관에 맞춰 개축될 황하루에는 蓮池 등의 조경조형물 이외에도 2백40여평에 이르는 '근역성보관'이 지하 1층에 자리잡게 된다.

황하루 개축등 중창불사 '한창'

성보전시관 건립 삼존불등 5백여점 소장 예정

장학사업등 인재양성 '앞장'…유치원위탁운영도

한국불교의 큰 스님 만공선사를 정점으로 기라성 같은 인재를 배출한 덕숭문중의 본찰 수덕사. 일주문을 지나 산허리 돌아서면 청련당과 그 추녀 밑에 걸린 수덕사 삼층석탑이 눈에 들어온다.

경내를 향해 계속 외길을 따라가면 왼편으로 한창 공사중인 황하루가 보인다. 선종본찰이 다시 면모를 일신하고 위용을 드높이고 있는 그 현장이다. 불과 93년까지만 해도 백련당과 건물은 비가 새기도 하고, 요사채의 흙벽이 허물어지는 등 대가람으로서의 면모가 훼손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덕사는 지난 93년 법장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덕숭문중 본찰'의 재모습을 되찾는다는 발원으로 대대적인 종합중창불사를 시작했다. 이번 불사는 전체적인 모습은 대웅전을 비롯한 사찰건축물이 덕숭산세와 조화를 이루며, 모든 건물이 위용을 갖추고 대웅전을 외호하도록 조성됐다.

그래서 백련당과 청련당의 축대를 대웅전 전면 축대와 동일하게 해 대웅전 양쪽으로 배치했다. 또한 현재 황하루를 해체해 한계단 낮추어 복원하는 불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5백40여평인 황하루 아래 연못을 80평으로 축소, 원래의 자연경관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조인정사는 법종각 위치로 옮겨졌으며 조인정사터에는 고증을 통해 사리탑을 세우고 법종각은 법고각과 합쳐 단일건물 사물각으로 개축했다.

총 1백억 이상의 예산으로 착수한 수덕사 중창불사는 문화재 전문가를 비롯해 역사·미술 등 관련 학계의 고증과 철저한 자문을 통해 단순한 건조물이 아니라 역사와 불교문화를 고증해 낸다는 이념에 입각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불사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황하루 지하에 2백40여평 규모로 들어설 성보전시관. '근역 성보관'이라 이름 붙여진 성보전시관 건립을 위해 이미 지방정부로부터 5억의 예산을 확보한 수덕사는 찬란한 백제문화재와 역대 선승들의 유품전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보전시관이 완공되면 고려시대 삼존불상과 향로, 불상, 만공스님의 거문고 등 보물급을 비롯해 경허스님의 병풍, 개심사 목향로 등 모두 4백~5백여점이 전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중인 수화도·야회도 등 오불도(五佛圖)를 옮겨와 전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황하루 주변에 연지(蓮池)·불이문·요사채 등을 새로 신축한다.

무엇보다 수덕사가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최근 3년간의 소송 끝에 사하촌(寺下村) 상가지역 5만9천여평을 되찾았다. 따라서 사찰입구에 즐비하게 널려있는 상가건물을 정비해 일주문을 더 아래 쪽으로 옮기고 기존 일주문 자리에는 천왕문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수덕사는 건축불사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등 인재양성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현재 동국대 4명 승가대 27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학대상자 폭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장학 수여대상자를 확대해 종비생과 함께 다른 학문 전공자라도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재가불자라면 누구든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수덕사는 서산에 있는 서광유치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충남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시설을 갖춘 유치원으로 지역사회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유치원 운영을 계기로 수덕사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포교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펼쳐 미래 불교의 든든한 동량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태국을 방문한 법장스님은 태국의 법왕청을 방문, 양국간의 불교문화 교류 및 현지교민 법적지위보장 등을 논의하고 우호적인 협정을 맺었다.

인터뷰 주지 법장스님



◇경허·만공스님 사상연구회 발족과 만공장학회를 복원하겠다는 주지 법장스님.

"덕숭문중 원찰 위용회복 대중에 더 가까이 갈 터"

망실토지 6만평 환수…복지활동 적극나서

"수덕사 주지에 취임하면서 한국불교의 선맥을 계승하는 종가집의 위풍을 재조명하고 인재불사에 진력하겠다고 나름대로 최선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덕숭문중 본찰'의 위용을 찾기 위한 중창불사와 수덕사 망실토지 환수, 인재불사 등을 일으켜 온 주지 법장스님은 지난 4년을 이렇게 표현했다.

실제로 법장스님이 그동안 해온 일은 사하촌 개발로 인한 13건의 송사사건 해결과 백련당 중창불사, 대웅전 좌·우측 보수, 도량 확장불사, 5만9천여평의 망실토지 환수 등 선종본찰 수덕사 중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덕사가 차츰 옛 가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는 황하루 개축과 성보전시관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각을 넓혀 불교가 대중생활속에 자리잡을 수 있는 사회활동에 더 진력 할 생각입니다."

수덕사의 중흥이 곧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생각으로 법장스님은 현대에 걸맞는 승가상 확립을 통해 불교가 대중생활 깊숙히 자리잡을 수 있는 다양한 포교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강조했다. 대중에게 친근히 다가가지 않고는 불교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장스님의 지론이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사회부장, 종회 사무처장, 동국대 감사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스님은 현재 동국대 이사이며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회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며, 한·태불교협회를 창립, 한국불교를 해외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 종무행정과 법률, 교육에 두루 해박한 지식을 갖춘 스님답게 불교의 사회복지와 인재불사,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허·만공스님 사상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국불교 법맥을 계승하고 만공장학회를 부활시켜 보다 적극적인 인재불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탑린공원을 조성해 한국 장의문화에 기여함은 물론 승단과 사찰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법장스님은 경허·만공스님의 사상적, 문학적, 예술적 연구는 불교의 학문체계와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만공장학회 역시 다변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불사를 위해서 꼭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탑린공원 조성 역시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불교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사업으로 불교가 대중속에 친숙히 파고들 포교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신심·원력·사심없는 마음'

법장스님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며, '이 소신대로 행할 때 모든 일이 부처님 뜻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불기 2540년 덕숭총림 수덕사

만공 큰스님 다례및 보살계 수계법회 동참안내문

원력이 있는곳에 가피가 있고
가피가 있는곳에 원만성취가 있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호서제일의 백제불교 요람이며 근대불교의 산맥을 진작하시고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루신 경허·만공 대선사의 혜맥(慧脈)을 이어 내려오는 선지종찰입니다. 금번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는 만공 큰스님의 탄신 115주년을 맞이하여 다례를 올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여법히 수행하는 방편문이며 윤회고(輪回苦)를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수덕사 보살계 수계 대법회에 수회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시고 현세의 고통을 넘어 이고득락의 열반도(涅槃道)를 이루는 제기가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불기 2540년 3월 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

덕 숭 총 림 수 덕 사

주지 김 법 장 합장

■덕숭총림 수덕사 보살계 수계대법회

■일 시 : 불기 2540년 4월24일 오전 11시(음력 3월7일)
■장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덕숭총림 수덕사
■보살계 동참금 : 3만원
■접수처 : 수덕사 종무소 전화 ☎(0458)37-6565, 0071
FAX(0458)37-0072
수덕사 서울포교당 서천사 (02)682-5055
■예산, 서산, 당진, 태안, 홍성소재 각 사찰 종무소로 문의바람■

■천일기도 회향 및 입제 만등불사 권선문

덕숭총림 수덕사에서는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고 불자님의 업장소멸과 만복운흥을 발원하는 긴 3년간의 천일기도를 아래일자에 회향하고 다시 천일기도를 입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참하신 많은 불자님과 함께 깊이 경하(慶賀)드리면서 그 뜻을 찬탄하고 밝게 조명하기 위하여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수회동참 하시어 밝은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40년 4월24일 오전 11시(음력 3월7일)
■천일기도발원기간 : 1996년 음력 3월 7일부터
1999년 음력 3월 7일까지
■천일기도 동참금 : 1만원
■만등불사 동참금 : 1인 1등 오천원
■우편접수 : 우체국 계좌번호 311472-0009068(수덕사)

수덕사명부전 지장보살 개금불사 회향 점안식

수덕사 명부전 지장보살 개금불사를 원만히 회향 점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디즈니 만화영화 '인어공주'의 화면. 자막에 마녀주문이 수리수리 마수리로 번역돼 있다.

어린이 프로에 판치는 '불교왜곡'

만화영화 '수리 수리…' 천수경 진언이 마술 주문 둔갑

뽀뽀뽀 '심청전' 코너서 스님 대신 무속 도사로 대체

'수리수리 마수리' 천수경의 앞머리에 나오는 구업을 맑히는 불교 진언이다. 이 진언이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에서 마녀등 사악한 사람들이 쓰는 주문으로 도용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불교 이미지를 심어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얼마전 이헌석씨(동대문구 회기동, 회사원)는 집에서 네살바기 딸과 디즈니 만화영화 인어공주 비디오를 보던중 깜짝 놀랐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만화영화속에 등장하는 마녀가 외우는 주문이 바로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한글 자막으로 나왔기 때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수리수리 마수리 라고 또렷이 나타난 자막을 보자 어린아이들에게 이 좋은 불교 진언이 왜곡돼 나쁜 사람들이 쓰는 주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자로서 걱정스러웠다"고 이씨는 말했다.

얼마전 방송된 MBC-TV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는 효녀 심청 이야기에서 개울에 빠진 심청의 아버지를 구해주는 스님을 정체불명의 도사로 대체했다. 방송이나 영화에서 이야기를 각색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만 심청전은 전래되어온 옛 이야기로 전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스님을 도사로 바꿀 당위성이 없는데도 굳이 바꿔서 연출한다는 것이 의아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안순진씨(정각여성대학 학장)는 "불교적인 내용을 일부러 삭제하려는 저의가 있는 듯 했다"고 분노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방송·광고 모니터 요원인 배연파씨는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가 만화영화에서 나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기 전 쓰이는 주문의 전용물처럼 어린이들에게 고정 인식되어버린다면 큰일"이라면서 "어릴 적에 본 것은 어른이 돼서도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볼 때 이러한 왜곡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불교를 잘못 인식시킬 수도 있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대로 인식해 버린다는 특성상 사소한 점이라도 이러한 왜곡은 어린이들의 잠재의식속에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이나 비디오 등 영상매체의 막강한 위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불자들의 지적이다.

"어린 시청자들에게 그릇된 불교인식 심어줄 우려"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또 하나의 만화영화인 알라딘의 모험에서도 마법사가 알라딘을 해치려고 주문을 외우는 장면에서 '수리수리 마수리'가 그대로 자막에 나온다.

이같은 불교왜곡 외에도 방송에 있어 불교적인 소재나 내용을 축소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은자 기자

스님·전문가등 진행맡아
불교방송 봄철 프로개편


◇덕신스님


◇김형균씨

불교방송은 1일부터 개편된 봄철 프로그램에 전문가와 스님등 새로운 진행자를 투입했다.

먼저 평범한 사람들의 숨은 신행이야기로 엮어가는 주간프로그램 '우리도 부처님같이'는 불지사 김형균실장이 진행하게 되며 일요기획 '맑고 향기롭게'는 진명스님(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이 진행한다.

또 '전정봉의 열린 경제'는 경제학 박사인 전정봉교수(연세대)가, 매일밤 12시부터 방송되는 '살며 생각하며'는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이 각각 맡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불교음악의 총체적인 모습을 담아낼 기획프로그램 '불교음악순례'는 김학주PD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

불교TV 영상물 美 수출길 트여

ATW사와 프로그램 계약 5월부터 공급

불교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해외진출 서막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지난 26일 불교TV(대표이사 태응)는 미국 현지내 국내영상물 공급업체인 ATW사(대표 노승진)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ATW사와의 계약체결로 인해 불교TV서 만든 프로그램은 미국 본토는 물론 알래스카와 하와이지역에 공급된다.

프로그램 공급 개시는 계약 발효시점인 오는 5월 1일부터이며 계약기간은 2년간인 98년 4월 30일까지로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는 한 쌍방간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ATW사는 '퀴즈 이뤄꼬' '김병조의 스타쇼' '경전공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불교TV와 함께 ATW사와 계약을 체결한 국내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동아TV, m-net 등 총 6개 업체다.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5천여 관중들은 광주불교방송 개국 1주년을 노래와 합성으로 축하했다.

광주BBS 개국 1돌 기념 가요축제 성황

불교광주방송(사장 이상진)은 지난 26일 광주 구동실내체육관에서 5천여관중이 참가한 가운데 'BBS 가요축제'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가수 남진, 방실이, 편승엽, 김영배, 현숙등이 정겨운 트로트무대를 꾸몄으며, 신세대 가수 녹색지대, 노이즈, 어스 등이 출연해 불교광주방송 1주년의 기쁨을 한껏 돋궜다.

한편 이날 가요축제에는 현고스님(송광사 주지)이 참석, 불교광주방송의 1주년을 격려했다.

불교TV 김병조 이야기 쇼

'젊은불자 잡기' PC방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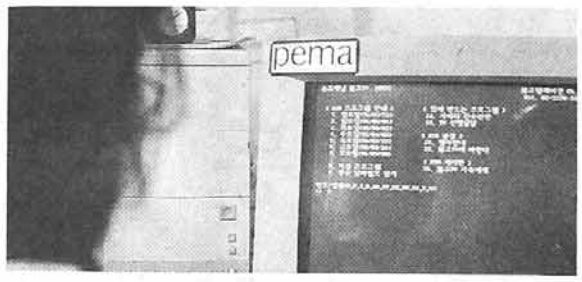
다양한 시청자 욕구 수렴위해 하이텔에 개설

지난해 6월 하이텔에 불교TV PC방을 개설한 불교TV가 오는 중순경에 보다 적극적인 PC통신 활용을 도모키 위해 인기 프로그램인 '김병조의 이야기쇼' 코너를 PC방에 올린다.

불교TV는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불교TV를 슬로건으로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코너를 PC방에 마련, 그동안 프로그램 'TV신행상담'과 '자비의 천수천안'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과 시청소감등 방송참여를 유도해 왔다. 이밖에도 불교TV PC방은 [btn 광장]코너를 마련, 각종 행사 안내로 불자들에게 정보 제공도 하고 있고, [btn 게시판]에서는 불교TV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아왔으며, [btn 프로그램 안내] 코너에서 주요 프로그램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TV PC방은 그동안 시청자 방송참여보다는 홍보쪽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불교TV PC방에 마련된 [함께하는 프로그램]의 TV신행상담 경우 "주 시청자가 컴퓨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노년층이어서 PC방 이용이 활발하지 못해 프로그램 홍보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김민석PD의 말이다.

따라서 이번 김병조의 이야기쇼 코너 신설을 계기로 PC통신을 이용하는 젊은 불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방안이다.



◇하이텔에 개설된 불교TV PC방. 함께하는 불교TV에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담당 나성근 PD는 "불자들이 만나고 싶은 스님과 스타, 소재, 주제 선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송제작에 반영하고 보다 생생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계획"라고 밝혔다.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PC통신을 통한 불자들의 불교TV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요구는 불교TV의 미래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미 공중파 방송에서는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PC통신에 방송사 및 프로그램 관련 메뉴를 만들고 방송제작과 시청자 방송 참여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따라서 불교TV PC방 개설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방송의 제작영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교TV PC방은 하이텔에서 GO BTN으로 들어가면 된다. 〈은〉

장애인 등불돼줄 자비손길은…

'사랑의 소리방송' 불자 자원봉사 참여 기다려

1백만 장애인들의 진정한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첫 전파를 띄운 '사랑의 소리방송'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KBS라디오 표준FM 97.3MHz의 이면을 이용해 전파를 내보내는 SCA방식으로 방송되고 있는 사랑의 소리방송은 하루 12시간 장애인과 노년층을 위한 정보와 교양, 오락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현재 사랑의 소리방송에는 장애인문인협회 회장이면서 활발한 불교활동을 하고 있는 방귀희씨와 불교TV 구성작가 이계원씨등 순수자원봉사자들이 개국초부터 방송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사랑의 소리방송 편성제작 박재권본부장은 "사랑의 소리방송은 종교를 초월한 방송이다. 현재 3백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고, 방송제작의 99%가 순수자원봉사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분이면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맹인복지회에 사랑의 소리방송 청취 라디오를 신청, 방송을 듣고 있다는 이연주씨(원심회 점자부 보조강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설이나 신문, 잡지의 소식을 사랑의 소리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청취소감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과 일반인의 사이를 좀더 가까이 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사랑의 소리방송에 불교 장애인 단체와 관심있는 불자들이 참여가 필요한 때다.

(사랑의 소리방송 02-705-8677)

부산불교TV 문화센터 개원

부산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센타인 부산불교TV 문화센터가 지난 29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부산불교TV 문화센터는 부산불교TV(사장 우관수) 사옥 5층 90평을 개방, 앞으로 부산지역 신행단체들의 법회도량은 물론이며 예술작품의 전시, 불교교양강좌 개설, 결혼식장 등 다목적 문화광장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등 각종단 대표스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류진수씨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열반경'에 담긴 의미소개

TV법회(3월 31일 오전10시20분)=부처님 열반절을 맞아 대각사 주지 도문스님이 불자들에게 열반경에 얽힌 법문을 설한다.

문화재 보호 현주소 진단

김병조의 이야기쇼(2일 오후1시5분)=통도사 박물관장인 법하스님이 출연, 성보의 중요성, 문화재 보호와 보존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주영운씨 보현행원의 삶

나의 삶 나의 불교(5일 오전11시)=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법등을 밝혀온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인 주영운씨의 삶과 불교관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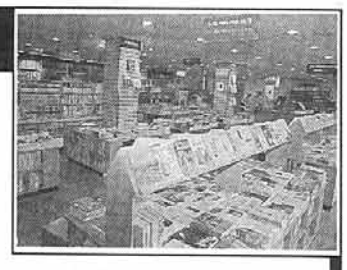
4·11총선과 불심주제 토론

TV 대중공사(6일 오후12시35분)=4.11총선을 앞두고 '정책인가, 불심인가'를 주제로 정천구교수(인천대), 김병준교수(국민대)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인다.

법안정사·대각사 한판승부

퀴즈특급 이뭐꼬(3일 오전11시10분)=불교의 교리를 알기쉽고 재미있게 풀어본다. 법안정사와 대각사 불자들이 나와 열띤 퀴즈 한마당을 벌인다.

불음 가득, 법향 가득 …



고객은 무조건 옳습니다. 특히 책방 여시아문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책방 여시아문은
무엇이든 항상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가장 손쉽게 다다갈 수 있을까?'
반드시 독자들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되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라도
꼭 구비해 놓는 것이
저희 책방 여시아문의
고객 우대 실천 덕목
제 첫번째
사항입니다.

모든 진열서적이,
고객의 손끝에 쉽게 닿도록,
매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더욱 편리한 매장 이용을 위하여 전 매장을 고객 중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불서와 첫 인연을 맺게 될 분들로부터 전문서적을 찾으시는 독자들에 이르기까지 매장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기만 하면 구하고자 하는 서적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매장의 구비 서적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방법 또한 **'불법의 세계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한 책'**등의 입문서와 함께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책' '삶의 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 등, 저희 책방 여시아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도서를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독서 환경 조성, 이것이 책방 여시아문의 또다른 지향점입니다.

통신판매 독도에서 LA까지,
독자가 원하면 어디든 갑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우편 발송료를 전액 부담하는 통신 판매망이 산사에서 도심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들어도 한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통신 판매, 책방 여시아문만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 지금 곧, 전화하십시오. 알찬 불서 관련 정보만을 실은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바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 737-0695, 팩스 : 737-0696